

안녕

An-nyeong

안녕 특집1 - 인터뷰
수필1
따뜻한 마음을 담은 편지
수필 2
한류, 한국문화 체험기
우송한국어교육원 어학연수
활동
광고

C O N T E N T S

04 안녕 특집1 - 인터뷰

Annyeong Part 1 - Interview
你好 特辑1 - 专访
Annyeong Phần 1 - Phỏng vấn

1) 부양사범대 정희 서기 인터뷰

1) Interview with Secretary cheng xi of Fuyang Normal University.
1) 阜阳师范大学程曦书记专访.

06 2) 외국인 교수님들과의 대담

2) Conversation with Foreign Professors
Interview with Prof. Martin Sketchley, Dirk Gotjes and Maria Mutitu from Woosong University.

12 3) 우송대학교 국제교류처 글로벌센터에 근무하는 하티투짱 선생님과 인터뷰.

3) Interview with Ms. HA THI THU TRANG, who works at the Global Center in Woosong University.
3) Phỏng vấn cùng HA THI THU TRANG, người làm việc tại Văn phòng Quốc tế Đại học Woosong.

14 수필1

Personal Essay 1
随笔 1
Tản văn 1

38 따뜻한 마음을 담은 편지

Letters from heart
温暖人心的信件
Những bức thư chứa đựng tấm lòng ấm áp

44 수필 2

Personal Essay 2
随笔 2
Tản văn 2

60 안녕5 -한류, 한국문화 체험기

Hallyu, K-Pop, Korean Cultural Experiences
韩流, 韩国文化体验记
Trải nghiệm văn hóa Hàn Quốc và làn sóng Hallyu

72 우송한국어교육원 어학연수

WKLI Language Training
WKLI 语言研修
WKLI Đào tạo tiếng Hàn trường đại học Woosong

82 활동

Events
活动
Sự kiện

85 우송한국어교육원 연혁 및 역대 시상내역 안녕 출간 기록

History of Woosong Korean Language Institute and Publication record of Annyeong
又松韩国语教育院沿革和历史内容以及安宁出刊记录

85 광고

Advertisements
广告
Quảng cáo

통권 제30호 2023 겨울호

- 발행인 : 김흥기
- 편집인 : 이강록
- 편집지도 교수 : 김숙자, 정희정, 오상희, 임새아미, 김미영, 김요셉, 송경옥, 이수인, 임은진, 최윤희
- 편집장 : 단다로바 지나이다(Dandarova Zinaida)
- 편집위원 : 아나스타샤 랍키나(Anastasiia Lepikhina), 케이진소(Kay Zin Soe), 두창우(Du Changyu), 노숙화(LU SHUHUA), 로창(LU CHANG), 디아나(Diana Zhanakulova)
- 감수 : 임명옥, 김효진
- 발행일 : 2024. 02

Woosong Korean Language Institute

300-719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55-3

TEL. 042.629.6697~8

편집위원 사진 빼주시고요. 편집부 인사말만 올려주세요.

안녕 18주년과 함께 서른 번째 『안녕』 출간을 자축합니다. 이렇게 여기 우리의 한 해만큼의 삶을 가지런히 모아놓습니다. 기쁘고, 반갑고, 즐거운 소식들, 그리고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볼 내용들을 제대로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의 빛나는 생각들, 아름다운 추억들을 제대로 잘 살리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모조록 아쉬움의 행간을 너그러이 채워주시고, 부디 『안녕』이 밑거름이 되어 풍요로운 유학 생활하시길 기원합니다.

- 안녕 30호 편집부 -

Congratulations on Annyeong's 18th Anniversary and the release of its 30th edition! Thanks to Annyeong, we are able to record those great moments in our lives annually. This time, we have put lots of efforts into the contents while trying to deliver joyful news and positive messages. Although we cannot cover all the brilliant thoughts and beautiful memories of Woosong students, we hope that this edition could add a little flavor to the wonderful university life.

- From the 30th edition of "Annyeong" editorial board.

热烈祝贺《你好》杂志创办18周年暨第30期出版。本刊内容汇集了我们一年中学习、生活的点点滴滴，有高兴、有惊喜，也有值得我们共同思考的种种问题。虽然我们已尽力书写，但仍会因未能将同学们先进的思想、美好的追忆表达得淋漓尽致而深感遗憾。如有不足之处，还望读者朋友们谅解，希望《你好》伴同学们度过愉快、充实的留学生活。

- 《你好》第30期编辑委员呈上 -

Xin chúc mừng kỷ niệm 18 năm phát hành Tạp chí Annyeong và sự ra đời của tập đặc biệt số 30! Nhờ có Annyeong mà chúng ta có thể ghi lại cuộc sống của mình một cách đều đặn qua từng năm. Lần này, chúng tôi đã dành rất nhiều tâm huyết xây dựng nên những nội dung ý nghĩa cũng như mang đến những câu chuyện vui vẻ và thú vị. Tuy không thể truyền tải hết tất cả những suy nghĩ và ký ức đẹp thời sinh viên của các bạn du học sinh, chúng tôi hi vọng bạn đọc có thể mở rộng lòng mình và đón nhận ấn phẩm lần này như một món quà tinh thần trong những ngày dưới mái trường đại học.

- Annyeong, tập báo kỉ 30, biên tập viên -

부양사범대 정희 서기 인터뷰

Interview with Secretary cheng xi of Fuyang Normal University.

阜阳师范大学程曦书记专访.

1. 한국 우송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한국 우송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로를 아는데 멀고 가까움은 문제가 안 됩니다. 만리의 거리에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전합니다! 또한, 우송대학교의 부양사범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도 편달과 보살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두 대학이 함께 아름다운 새로운 장을 창조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1.致又松大学留学生问候语

在又松大学求学的同学们，大家好！

相知无远近，万里心相邻。你们跨越山海到异国求学，不畏困难，勇于拼搏，向同学们致以诚挚的祝福！感谢又松大学对阜阳师范大学学子的培养与呵护，愿两校继续携手开创美好的新篇章。

2. 부양대학 소개

부양대학교는 1956년에 창립되었으며, 천년의 중국 역사와 문화가 깃든 매력적인 도시 안후이성의 부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후이성 정부가 인정한 국립 대학으로서, 16개의 석사 학위 과정과, 1개의 박사 후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안후이성의 박사 학위 수여 사업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청하와 서호 두 캠퍼스가 있으며, 총 면적은 114만 제곱미터이며, 건축 면적은 85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도서관에는 217만여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17개의 교육대학과 평생교육대학이 있고, 72개의 학부 전공, 3개의 국가급 특성화 전공, 6개의 국가급 일류 학부 전공 거점, 15개의 성정부급 일류 전공 거점 등으로 우수한 학문 및 전공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학생들은 국가급 학술대회에서 930 건의 상을 받았으며, 지방급 학술대회에서는 4,683건의 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연속적으로 중국 일반 대학 대학생 대회 학부 TOP 300, 국가 교육 대학 대학생 대회 Top20에 올랐습니다. 졸업생들은 실무 능력이 강하며 발전 가능성 또한 높아, 사회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안후이성 최초의 중국어 교육 기지이며, 미국, 영국, 일본 및 '일대일로' 정책에 따라 러시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여러 국가 및 대만, 마카오의 40여 개 대학과 장기적인 우의와 학술 교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 서앨라바마 대학교는 "유아교육" 전공의 학사 수준의 중외 협동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다수의 외국 교수진을 초빙하여 수업을 진행하며, 학부, 석사 유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박사 후 과정 연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2.阜阳师范大学简介

阜阳师范大学创办于1956年，坐落在千年历史文化古城、中国特色魅力城市阜阳，是安徽省人民政府举办的公办本科高校，现有16个硕士学位授予点，1个博士后工作站，2019年获批为安徽省博士学位立项建设单位。

现有清河和西湖两个校区，占地面积114.34万平方米，校舍建筑面积85.83万平方米；馆藏图书217.08万册。

设有17个教学学院和继续教育学院，72个本科专业，3个国家级特色专业，6个国家级一流本科专业建设点，15个省级一流专业建设点，形成了结构合理、优势突出的学科专业体系。

近五年，我校学生获得国家级学科竞赛奖励930项，省级学科竞赛奖励4683项，连续荣登全国普通高校大学生竞赛排行榜（本科TOP300）、全国师范类本科院校学科竞赛排行榜（Top20）。毕业生角色转换快、实践能力强、发展后劲足，社会满意度高。

我校是安徽省首批华文教育基地，与美国、英国、日本及“一带一路”沿线白俄罗斯、韩国、马来西亚、泰国、菲律宾等国家和中国台湾、澳门的40余所高等院校建立了长期友好合作与学术交流关系，与美国西阿拉巴马大学合作举办“学前教育”专业本科层次中外合作办学项目。学校聘请多名外籍教师到校授课，招收本科、硕士留学生，接收博士后进站研究。





3. 양 대학 간 교류 및 협력 계획

우리 대학교와 한국 우송대학교는 2011년에 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장기간에 걸쳐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학교 간 교류 방문, 경영학 교수단의 한국 연수, 언어 교사 교류, 학생 한국 연수 등 다양한 협력 교환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상당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앞으로도 양교는 인재 양성, 교수진 교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문 발전, 전공 구축, 과학 연구 등 심층적이며 고품질의 협력을 추구하여 더욱 풍성한 성과를 이루고자 합니다.

3.两校合作交流计划

我校与又松大学于2011年建立合作关系，长期以来双方联系密切，合作持续深入，开展了校际交流互访、商科教师团组赴韩研修、互派语言教师、学生赴韩研修等合作交流项目，取得显著成果。下一步双方将持续加强人才培养、师资交流等方面合作，力争在学科发展、专业建设、科学研究等方面开展更多领域、深层次、高质量的合作，取得更加丰硕成果。

4. 우송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우리 학우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말

우송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우 여러분, 쉽게 얻을 수 없는 학습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학문을 탐구하는 여정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늘 조국에 대한 애국의 마음과 지식 탐구의 의지를 가지고, 어려움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노래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길 바랍니다. 학교는 여러분의 학습과 유학생활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응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공을 나는 듯이, 구름을 뚫고 높이 비상하기를 기원합니다! 미래에도 두 대학이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며, 새로운 협력 교육의 지평을 열어 나가길 바랍니다!

4.对又松大学在校留学生寄语

希望在又松大学学习的每一位学子珍惜来之不易的学习机会，在书山学海中披荆斩棘、乘风破浪。希望你们永怀报国之志、永葆求知之心，不畏艰难险阻，积极乐观，矢志奋斗。学校也将一如既往地关心、关注你们的学习与生活。祝你们大鹏一日乘风起，扶摇直上九万里！也希望两校在未来携手共进，开创合作办学新局面！



외국인 교수님들과의 대담

Conversation with Foreign Professors

Interview with Prof. Martin Sketchley, Dirk Gotjes and Maria Munitu from Woosong University.



30호 특집으로서 외국인 교수님들과의 대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As a special Edition #30, we would like to conduct interviews with foreign professors.

한국어교육 내용

Korean language education content

마틴교수님 한국어를 배운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Professor Martin Sketchley, Why learning Korean is so important. In your opinion, what is the most crucial reason for studying Korean language?

The reason why I am studying Korean language is to better understand the country and culture where my wife is originally from. On top of this, it would also help improve my cultural awareness regarding where some of my students originate from.



지금까지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느낀 한국어의 특징이나 장점은 무엇입니까?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r advantages of Korean that you have noticed while studying Korean so far?

I have improved my vocabulary and cultural awareness, and am better able to take risks when communicating with other individuals in Korean. Learning more Korean idiomatic phrases have certainly helped me know more about the Korean mindset.

한국 문화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Moving on to culture, what aspect of Korean culture has the most impression on you?

As mentioned before, learning idiomatic phrases certainly helped me better learn more about Korean thinking. I also discovered that food holds a special place for those residing in Korea, and was surprised to learn that many idiomatic expressions revolve around food in this splendid country.

성공적인 한국 생활을 위한 조언

Advice for Successful Living Abroad

해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생활을 위한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유학생들이 가져야 할 전략, 태도, 습관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rawing on your overseas experiences, could you offer advice to international students for a successful life in Korea? What strategies, attitudes, or habits should they adopt?

This is such a tough question and something that is not necessarily that can be answered briefly. To have a successful life in Korea, I would suggest that learning more about Korean customs (i.e., Thanksgiving, Lunar New Year) and getting involved in such events with family, friends, as well as colleagues. This will certainly help. I also believe that each culture has their own advantages and drawbacks, so try to focus on the positives rather than the negatives – it is not worth trying to fix the unfixable. Just ride the waves and appreciate having the opportunity to spend time in such a welcoming and appreciative society.

유학생들에게 전하는 말씀

A message to international students

마지막으로 유학생들에게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Lastly, if you have any anything else or any advice specifically for international students, please feel free to share with them.

Some final thoughts - get involved with events that are organised by the local government, volunteer, attend concerts, agree to meet others, share your unique culture to others. This will help and you shall find your place in society and South Korea.

외국인 교수님들과의 대담

Conversation with Foreign Professors

Interview with Prof. Martin Sketchley, Dirk Gotjes and Maria Mutitu from Woosong University.



안녕하세요? 교수님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짧은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Hello Professor,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out your busy schedules to join with us. Firstly, could you please provide a brief introduction of yourself?

My Name is Professor Maria Mutitu. I come from Kenya and the USA. At Woosong University, I teach both University and Kindergarten students. So far, I have enjoyed my time in South Korea.

한국어교육 내용

Korean language education content

소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를 배운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Thank you for your introduction. Now, let's discuss why learning Korean is so important. In your opinion, what is the most crucial reason for studying Korean language?

First I think it's a sign of gratitude to try and learn the language of the people kindly hosting me in their country. Secondly, learning experience makes life easier as I can communicate a little to meet my basic needs. Finally, as an EFL professor, it's important for me to understand the Korean language structure so I can meet my students' needs better.

지금까지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느낀 한국어의 특징이나 장점은 무엇입니까?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r advantages of Korean that you have noticed while studying Korean so far?

I can hear natural Korean better as well as speak better. Listening to songs was very helpful.

한국 문화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Moving on to culture, what aspect of Korean culture has the most impression on you?

I love Korean culture. I can't choose one part. The people have been kind to me. There are many beautiful places to see. The food is delicious. I love it all.

성공적인 한국 생활을 위한 조언

Advice for Successful Living Abroad

해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생활을 위한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유학생들이 가져야 할 전략, 태도, 습관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rawing on your overseas experiences, could you offer advice to international students for a successful life in Korea? What strategies, attitudes, or habits should they adopt?

Living abroad can be difficult. Learning the local language is very helpful because it's possible to meet and speak to many people and therefore feel less isolated. Also, be patient while learning the new culture. Your mind will want to compare your culture with Korean culture and this can feel frustrating, but it's part of adapting. Choose to see the positive and similar aspects of Korean culture.

유학생들에게 전하는 말씀

A message to international students

마지막으로 유학생들에게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Lastly, if you have anything else or any advice specifically for international students, please feel free to share with them.

Traveling and meeting new people is always enriching. Try every good thing you encounter at least once.

외국인 교수님들과의 대담

Conversation with Foreign Professors

Interview with Prof. Martin Sketchley, Dirk Gotjes and Maria Miritu from Woosong University.



안녕하세요? 교수님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짧은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Hello Professor,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out your busy schedules to join with us. Firstly, could you please provide a brief introduction of yourself?

My name is Dirk Gootjes. I am from the United States, but I have spent most of my adult life living abroad teaching English. I have worked in Puerto Rico, Mexico, Peru, and now South Korea. I have lived in Daejeon for 3.5 years with my wife and son, who is a student at Woosong University. We are very happy living in South Korea as it is very safe and the people are very respectful.

한국어교육 내용

Korean language education content

소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를 배운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Thank you for your introduction. Now, let's discuss why learning Korean is so important. In your opinion, what is the most crucial reason for studying Korean language?

I believe it shows great respect to the citizens of a country when a foreigner tries to speak the language no matter how poorly it goes. In addition, Korean people really seem to like when I try hard to speak their language so it is a way to open doors and build rapport with people. Finally, being able to speak the language of the host country to a certain degree just makes negotiating daily life much easier.

지금까지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느낀 한국어의 특징이나 장점은 무엇입니까?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r advantages of Korean that you have noticed while studying Korean so far?

Hangeul is a very easy alphabet to learn to read as it has a mostly one-to-one correspondence between the symbols and the sounds. The syntax is quite different from English, which makes it challenging to create sentences in my mind sometimes. I really enjoyed the English class taught by our teacher 임명옥 because she incorporated a lot of traditional sayings and idiomatic expressions that Koreans frequently use in daily life. Not only have these expressions helped me to communicate better, but they have also provided me with a richer insight into the nuances of Korean culture.

한국 문화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Moving on to culture, what aspect of Korean culture has the most impression on you?

As I said, I have lived here for 3.5 years and love everything about Korea. I am an avid cook so I especially like Korean cuisine, but I also like hiking in the beautiful mountains on offer and exploring the rugged coasts. In Daejeon, my family and I go biking along the lovely river trails and discover new places all the time. Last week, I discovered a lovely historical site (수운교 용호당) 20 km by bike from my home. It was lovely and the history of the temple and religion were interesting.

성공적인 한국 생활을 위한 조언

Advice for Successful Living Abroad

해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생활을 위한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유학생들이 가져야 할 전략, 태도, 습관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rawing on your overseas experiences, could you offer advice to international students for a successful life in Korea? What strategies, attitudes, or habits should they adopt?

Other than trying to learn a little basic Korean before arriving, try to familiarize yourself with the customs and traditions of Korea as well. This can help you understand how age and seniority are reflected not only in daily interactions, but also in the language through honorifics and formality registers. Keep an open mind, be patient, ask for help, and do not be afraid to try new things. Being polite and friendly are your best allies to win people's hearts.

유학생들에게 전하는 말씀

A message to international students

마지막으로 유학생들에게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Lastly, if you have any anything else or any advice specifically for international students, please feel free to share with them.

Be mindful of your surroundings. Live every day like it is your last by being authentically in the moment. Get off the cell phone and get outside among people. You will be surprised how much is out there if you just pay attention and smile.

우송대학교 국제교류처 글로벌센터에 근무하는 하티투짱 선생님과 인터뷰.
Interview with Ms. HA THI THU TRANG, who works at the Global Center in Woosong University.
Phỏng vấn cùng HA THI THU TRANG, người làm việc tại Văn phòng Quốc tế Đại học Woosong.



30호 특집으로서 외국인 교수님들과의 대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As a special Edition #30, we would like to conduct interviews with foreign professors.

안녕하세요? 선생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짧은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6년째 유학생생활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온 하짱입니다. 현재는 우송대학교 글로벌호텔관광경영학과 박사과정 3학년 재학중이며 국제교류처 글로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Xin chào, tôi tên là Hà Trang. Tôi đến từ Việt Nam và đã học tập ở Hàn Quốc được 6 năm. Hiện tại, tôi là nghiên cứu sinh năm thứ 3 tại Khoa Quản lý Du lịch và Khách sạn tại Đại học Woosong và đang công tác tại Phòng Hợp tác Quốc tế.

한국에서의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경험(극복의 과정까지), 가장 즐거웠던 경험을 하나씩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좋은 추억도 있지만 힘들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바로 소통에 대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유학 초창기 시절에는 한국어를 잘 하지 못했기에 일상생활 속 많은 부분에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고 배운 것을 일상생활 뿐 아니라 교내에서도 다방면으로 사용하며 점차 한국어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점도 있는 반면에, 즐거웠던 추억도 많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수 있으며 다양한 관점과 넓은 견해를 가지게 되어 인생에 새로운 풍경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 볼 수 있고 음식을 통해 소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Trong suốt khoảng thời gian du học tại Hàn Quốc, tôi có nhiều kỷ niệm đẹp nhưng đôi lúc cũng gặp phải những khó khăn. Điều khó khăn nhất mà tôi gặp phải khi mới đến Hàn Quốc là khó khăn trong giao tiếp. Không giống như bây giờ, khi mới du học Hàn Quốc, tôi không giỏi tiếng Hàn nên gặp rất nhiều khó khăn khi giao tiếp ngay cả trong đời sống hàng ngày. Tuy nhiên, để khắc phục điều này, tôi đã chăm chỉ học tiếng Hàn và áp dụng những gì học được không chỉ trong khuôn viên trường học và còn trong cả cuộc sống hàng ngày, kết quả là khả năng tiếng của tôi ngày càng tiến bộ rõ rệt. Bên cạnh đó tôi cũng có rất nhiều kỷ niệm vui vẻ. Tôi có thể kết thân với nhiều bạn bè mới giúp tôi có cái nhìn đa dạng và mở mang kiến thức. Ngoài ra, tôi còn có thể thử nhiều món ăn ngon ở Hàn Quốc cũng như tận hưởng niềm vui cũng như giao lưu thông qua nền ẩm thực phong phú này.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의 직장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몇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잘 하려면 먼저 탄탄한 한국어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는 업무와 소통의 핵심이기에 한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할수록 직장 내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직장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국적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다양성을 존중하며 포용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계발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들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ôi nghĩ để có thể làm việc tốt ở Hàn Quốc thì trước tiên bạn phải có trình độ tiếng Hàn vững chắc. Tiếng Hàn là cốt lõi của công việc và giao tiếp, do đó bạn càng thông thạo tiếng Hàn thì bạn càng có khả năng giao tiếp trong công việc tốt hơn và duy trì mối quan hệ thân thiết với đồng nghiệp. Ngoài ra, tại Hàn Quốc, bạn có cơ hội làm việc với các đồng nghiệp từ mọi nơi mọi nền văn hóa trên thế giới, vì vậy điều quan trọng là bạn phải tôn trọng và học cách tiếp nhận sự đa dạng đó. Cuối cùng, tôi nghĩ việc không ngừng phát triển bản thân cũng vô cùng cần thiết. Không chỉ tiếng Hàn, bạn nên học tập thêm kiến thức và kỹ năng liên công việc.

한국어를 아주 잘 하시는데요. 한국어를 잘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까요?

제 한국어 공부법은 대부분 학생들과 비슷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떤 언어를 공부하든 즐거움이 있어야 학습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취미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취미를 활용하여 어떻게 한국어를 학습할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기에 늘 자막없이 시청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대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자막을 찾아가면서 공부합니다. 이를 통해 듣기능력이 많이 향상 되었습니다. 또한, 독서 취미를 가지는 것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독서를 통해 새로운 단어를 접하고 문맥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어휘가 확장됩니다.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문학 작품이나 기사를 읽으면서 정확한 문법과 문장 구조를 학습할 수 있으며 언어의 흐름과 문장의 구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집니다.

Phương pháp học tiếng Hàn của tôi cũng giống như hầu hết các bạn học sinh khác. Nhìn chung, tôi tin rằng dù bạn học ngôn ngữ nào đi chăng nữa, nếu bạn tìm được niềm vui trong đó thì bạn sẽ học nhanh hơn. Vì vậy, điều quan trọng là bạn phải suy nghĩ xem bản thân thích gì, và biến sở thích đó thành công cụ học tiếng Hàn cho riêng mình. Ví dụ như tôi thích phim Hàn Quốc nên tôi luôn cố gắng xem phim mà không có phụ đề. Nếu tôi không nghe rõ lời thoại, tôi sẽ tìm phụ đề và học. Nhờ đó, kỹ năng nghe của tôi đã tiến bộ rất nhiều. Việc đọc sách cũng giúp ích rất nhiều cho việc học tiếng Hàn. Đọc sách giúp bạn mở rộng vốn từ vựng của bạn thông qua việc tiếp cận những từ vựng mới và hiểu ý nghĩa của chúng trong ngữ cảnh. Bạn có thể học nhiều từ vựng và cách diễn đạt thông qua việc đọc sách thuộc nhiều thể loại khác nhau. Ngoài ra, bằng cách đọc các tác phẩm văn học hoặc báo chí, bạn có thể học đúng ngữ pháp và cấu trúc câu, đồng thời tăng khả năng hiểu mạch ngôn ngữ và cấu trúc câu.

성공적인 한국 생활을 위한 조언 Advice for Successful Living Abroad

한국에서의 오랜 경험을 한 선배로서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생활을 위한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6년은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 기간입니다. 저보다 더 많은 선배들 계시지만 한국생활 아직 낯선 친구들이나 한국유학 꿈 꾸는 학생을 위해 한국에서의 오랜 경험을 한 대표로서 작은 조언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세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면 일상생활과 소통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또한, 건강을 잘 관리하세요. 부모님을 떠나 독립생활 처음 하다보면 끼니를 건너 뛰거나 식생활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타국에서 생활하면서 더 많은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며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조언을 통해 여러분의 즐겁고 의미 있는 한국 유학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Phương pháp học tiếng Hàn của tôi cũng giống như hầu hết các bạn học sinh khác. Nhìn chung, tôi tin rằng dù bạn học ngôn ngữ nào đi chăng nữa, nếu bạn tìm được niềm vui trong đó thì bạn sẽ học nhanh hơn. Vì vậy, điều quan trọng là bạn phải suy nghĩ xem bản thân thích gì, và biến sở thích đó thành công cụ học tiếng Hàn cho riêng mình. Ví dụ như tôi thích phim Hàn Quốc nên tôi luôn cố gắng xem phim mà không có phụ đề. Nếu tôi không nghe rõ lời thoại, tôi sẽ tìm phụ đề và học. Nhờ đó, kỹ năng nghe của tôi đã tiến bộ rất nhiều. Việc đọc sách cũng giúp ích rất nhiều cho việc học tiếng Hàn. Đọc sách giúp bạn mở rộng vốn từ vựng của bạn thông qua việc tiếp cận những từ vựng mới và hiểu ý nghĩa của chúng trong ngữ cảnh. Bạn có thể học nhiều từ vựng và cách diễn đạt thông qua việc đọc sách thuộc nhiều thể loại khác nhau. Ngoài ra, bằng cách đọc các tác phẩm văn học hoặc báo chí, bạn có thể học đúng ngữ pháp và cấu trúc câu, đồng thời tăng khả năng hiểu mạch ngôn ngữ và cấu trúc câu.



영혼의 친구

안나 (K-pop 예술경영 2학년)

한국에 온 첫 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느낌이었다. 내가 보고 말하고 듣는 모든 것이 다 새로웠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새로웠다. 특히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하는지, 어떤 주제로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지....

그런 내가 한국 공항에 도착해서 표를 살 때였다.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어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서 한국어로 표를 달라고 했다. 그 순간,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던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학기가 시작된 어느 날, 학교에서 한 한국인 학생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라서 어렵지 않게 말을 걸었는데, 그날 이후로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친구를 만들려고 노력한 것은 아니지만 우연한 기회에 한국 친구를 사귀게 된 것이다. 그 친구에게 말을 건 순간부터 우리는 '친구'라는 관계가 되었다.

지금도 그 친구를 자주 만나고 있는데, 한국어로 소통하고 한국 문화도 배울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지금도 가끔은 한국어로 말하는 게 어렵지만, 나의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친구와 같이 있을 때 가족과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웠지만, 지금은 친구들 덕분에 마치 고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나의 또 다른 가족이 되어 준 친구들에게 항상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A friend of the sou

Vaihandt Hanna (K-pop art second year)

The first day in Korea felt like the beginning of a new life. Everything I saw, spoke, and heard was completely new. Meeting people was also a new experience, especially talking to Koreans. It was challenging to figure out how to approach conversations, not knowing what to say or where to start...

The same moment came when I had to buy a ticket upon arrival in the Korean airport. Realizing that I should speak Korean since I was in Korea, I gathered all my courage to ask for a ticket in Korean. At that moment, I felt proud of myself for overcoming my worries about whether I could do it or not.

Then, one day after semester started, I got to talk to Korean students at school. Being an extrovert person, it wasn't difficult for me to strike up a conversation. But since that day, we have become friends. I didn't try to be close with them intentionally, but through a chance encounter, we did. And from that moment on, we became true friends.

Now, I still meet them often. And communicating with me in Korean and teaching the culture is truly a great help for me. Even though it might still be challenging to speak Korean at times, even if my Korean is not perfect and I might not be able to recall certain words, we always understand what each of us is trying to say. So being with them feels like being with family.

When I first came to Korea, everything was unfamiliar and new, but now, thanks to my friends, it feels like my hometown. And for this I will always be grateful to my friends, the ones who have become my other precious family.



자전거 도로 위의 작은 여행

양진 (철도전기시스템학과 4학년)

저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대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학교 근처에도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저는 수업이 없을 때 대동고 아래 자전거 도로를 출발하여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2주 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대청댐에 갔는데, 대동고 자전거 도로에서 대전천 자전거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30km 정도 가면 대청댐이 나옵니다. 대청댐은 매우 크고 대청호도 아름답습니다, 호숫가에는 유람선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유람선을 타고 대청호를 관광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운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청댐 옆에는 공원이 있는데, 저는 자전거를 타다가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그 공원에서 잠시 쉬기도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서 대청댐까지는 좀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대청댐 주변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길가에는 해바라기, 라벤더 등 많은 꽃들이 있고 축구장, 농구장, 골프장 등 다양한 운동장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동물도 있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을 많이 만나 봐서 그런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대청댐을 가는 것은 작은 여행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고 계절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쁜 일상 때문에 느낄 수 없었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 타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自行车道上的小旅行

杨振 (铁道电器系统系 4学年)

我热爱骑行。众所周知,

韩国拥有众多专设自行车道路。这些自行车道仅供自行车使用, 确保了骑行的安全。

在大田, 自行车专用道随处可见, 学校附近也有便捷的自行车道。在课余时间, 我常从大东桥下的自行车道出发, 漫游城市。

就在两周前, 我骑车前往了大厅大坝, 沿着大田川自行车道北行30公里左右, 便能欣赏到大厅大坝的壮丽景色。大清坝宏伟壮观, 大清湖更是如画, 湖畔还有游船悠悠。原本我计划乘坐游轮游览大清湖, 可惜好像并未实际运行。

大厅大坝旁边的公园是我骑行途中的一处补给站, 我会在那里稍事休息, 为下一段旅程储备能量。虽然从学校骑行至大清坝有些远, 也让我感到有些疲惫, 但大厅大坝周围的美景令人陶醉。路旁盛开着向日葵、薰衣草等各种花朵, 还有足球场、篮球场、高尔夫球场等多种运动场所。老年人们在这里锻炼身体或散步, 而各类小动物也因为习惯了经过的骑行者, 显得不再畏人。

骑行至大清坝如同一次小型旅行。我可以欣赏到美不胜收的风景, 感受到四季变幻的氛围。此外, 这样的骑行也让我体验到繁忙日常中所难得感受到的悠闲时光, 这正是我热爱骑行的最大优点。



나의 사랑 나의 기타

도서성(경영학과 4학년)

부모님은 내가 예술적 재능이 있기를 바라시며 어렸을 때부터 미술반, 색소폰 수업을 등록해 주셨다. 하지만 나는 예술 세포가 없다고 생각하여 열심히 안 배웠다. 하지만 초등학교 친구들의 기타 공연을 보고, 그 순간 아주 새롭고 자유로운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어린 나의 마음에 큰 자극이 되었고, 그때부터 나는 무대 아래에서 박수 치는 사람이 아닌 무대 한가운데에 서서 연주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첫 통기타 수업에서 선생님께서는 악기에 대해 예의를 갖추고, 연주자는 먼저 좋은 품성 즉 덕과 끈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매일 열심히 연습했고, 기타 줄에 손이 다 벗겨져도 포기하지 않았었다. 정말로 기타를 사랑하고 좋아했기에 날이 갈수록 기타 실력도 좋아졌다.

중학교 때는 일렉트릭 기타를 접하게 되었는데 통기타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다. 평소 락과 메탈 음악을 매우 좋아한 나는 일렉트릭 기타에 빠지게 되었다. 대학교에서는 친구들과 밴드도 결성하고 활동했다.

그동안 코로나로 열리지 않던 기타 콩쿠르가 올해 마침내 다시 열렸고, 나는 많은 참가자를 제치고 중국 라오닝성에서 금상을 받았다. 수상 후 흥분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내 마음 속에는 평온함과 여유로움이 있었다. 나의 그 길고 힘든 기타 연습의 과정은 기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어쩌면 나와 기타의 사랑은 지금부터 시작일지 모른다. 나의 기타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我的爱 我的吉他

都书圣(国际经营学系4年级)

父母希望我有艺术上的造诣,从小就报了美术班、萨克斯课程。但是我觉得我没有艺术天赋,所以并没有去认真学.但是在学校的文艺晚会上看到小学同学们的吉他表演,那一瞬间感觉非常自由且洒脱。这对我幼小的心灵产生了很大的冲击、从那时起,我就决心成为站在舞台中央演奏的人,而不是站在舞台下鼓掌的人。

在第一次的吉他课程中,老师说想学艺先修德、演奏者首先要有好的品德即德和毅力。所以我每天都在努力练习,即使手被吉他弦磨破了,我也不会放弃。因为真的喜欢和努力练习吉他,所以吉他实力也越来越好了。

中学时接触了电吉他,具有与木吉他不同的魅力。平时很喜欢摇滚乐和金属音乐的我迷上了电吉他。在大学,我还和志同道合的朋友组建了乐队。

此前因新冠疫情而未能举行的吉他比赛今年终于再次举行,我力压众多参赛者,在中国辽宁省获得了金奖。与获奖后会兴奋的预想不同,我心里有平静和从容。因为我对吉他的热爱、在艰苦在漫长我也可以克服。也许我和吉他的故事才刚刚开始。正所谓热爱可抵岁月漫长,喜欢的事情要做到极致!

나의 한국 생활 일기

진혁동(국제경영 4학년)

오늘은 제가 한국에 유학 온 지 4개월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과 어머니 음식이 그리고, 고향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먼저, 불고기와 비빔밥 등 맛있는 한국 음식이 있고, 또 한국의 커피는 맛있고, 가격도 쌉니다. 특히 아침에 마시는 블랙 커피는 붓기를 빼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대전 은행동 큰 쇼핑몰에 갔었는데 그곳은 귀엽고, 세시하고, 트렌디한 다양한 스타일의 옷들이 있어서 친구들과 자주 가서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배운 갈비탕과 부대찌개도 맛보았습니다. 또 대형 마트인 다이소에는 필요한 생활용품이 모두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저도 매일 갔었고 생활의 편리함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은 중국 유학생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합니다. 매일 만나는 한국어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잘 대해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셔서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식당에 가서 혼자 주문할 수 있으며, 더이상 예전처럼 번역기 도움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 4급도 취득하고, 대학원에 입학해서 더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번 한국 유학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경험 중 하나이며 저에게 매우 소중한 추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대전의 겨울

곽현희(경영학과 4학년)

나는 대전에 온 지 벌써 두 달이 되었고, 이쪽 생활도 조금씩 적응하고 있다. 중국에 계신 엄마는 처음에는 걱정하시며 자주 전화를 걸어 공부에 어려움이 없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엄마에게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고, 스스로 요리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근처에 사는 나는 이웃인 중국 친구들과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에 대해 종종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언니가 나를 많이 아껴준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거나 커피를 마시며 즐겁게 생활한다.

대전의 겨울은 햇볕이 잘 들어서 나는 자주 빨래를 하고 옥상에 가서 말린다. 그리고 따스한 햇볕 아래서 여유를 가진다. 이 순간 나는 엄마도 한국의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영상 통화를 한다.

옛것에는 중국의 입동절이었고, 중국에서는 만두를 먹는 것이 풍습이다. 나도 편의점에서 한국 만두를 사서먹으며 고향에 보고 싶은 가족과 그리움을 달랠 수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을 천천히 걸으며 알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무들이 푸른 잎사귀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황금빛 잎사귀로 변해 땅에 낙엽이 가득했다. 길에서 어느 할아버지가 낙엽을 치우는 모습을 보고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할아버지도 미소를 지었다.

이곳 한국 사람들은 모두 친절해서 나는 행복하다. 나에게 대전에서의 겨울이 참 따뜻하다.

我的韩国生活日记

陈奕彤(国际经营系4年级)



今天我来韩国留学4个月了。我渐渐适应了韩国的生活。起初,我怀念家里和母亲做的食物,想回到故乡的怀抱,但是在这里制造了很多美好的回忆。首先,有烤肉和拌饭等好吃的韩国食物;还有韩国的咖啡好喝,价格也便宜,特别是早上喝的黑咖啡可以消肿,有助于减肥。

最近去了大田银杏洞的大购物中心,那里有可爱、性感、时尚等的多种风格的衣服,所以经常和朋友们一起去逛,还品尝了在书上学的排骨汤和部队汤;另外,大型超市大创(Daiso)有所需的所有生活用品,价格也很便宜,我也每天去,给生活带来了便利。

最后,韩国人对中国留学生亲切而温暖。每天见面的韩语老师们对我们很好,一直鼓励我们,所以对韩语有了很多自信。结果现在可以去餐厅自己点菜了,不再需要像以前用翻译都帮忙了,对我来说是非常有意义的事情。以后想考取韩国语能力考试4级,考入研究生院学习更专业知识。

此次去韩国留学是我人生中重要的经历之一,相信会成为我珍贵的回忆。

大田的冬天

郭炫姬(国际经营系4年级)



来到大田两个多月了,也逐渐适应了这边的生活。而我的妈妈还是放心不下我,经常给我打电话问我学习上有没有困难。我告诉妈妈,我在韩国过的很好,自己做饭,努力学习。

我住在学校附近,邻居们都是中国人,我们经常讨论韩国美丽风景和美食。在这里读研究生的姐姐很关心我,我们一起逛市场,一起喝咖啡。

大田的冬天阳光很充足,我经常洗完衣服去天台晾干,然后坐下来沐浴阳光,这个时候我会给我妈妈打视频电话,让妈妈也能看到韩国的天空。

前几天是中国的立冬节,在中国的习俗是吃饺子。我也可以在便利店买韩国的饺子吃,希望在异国感受到一丝故乡的气息。

沿着回家的路慢慢的走着,突然发现不久前的树还是挂满了绿叶,今天却落了满地的金黄,我看着路边老爷爷在收拾树叶,我礼貌的打招呼,老爷爷也露出了微笑。

这里的人们都很礼貌和热情,我很幸福。对我来说,大田的冬天真是温暖。

매일매일이 새로워~

송옥(철도전기시스템전공 3학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긴장이 되었지만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면 금방 마음이 편안해졌다. 가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옆자리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었던 것 같다. 또 한 때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치킨과 군고구마를 사 먹었다. 그렇게 맛있는 걸 먹는 것으로 2023년을 빠르게 맞이했다. 개강 후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갔다. 어느 날 수업 후에 우연히 통통한 오렌지색 고양이를 만났다. 너무 귀여워서 한참을 보다가 보니 웃음이 절로 나왔다.

가끔 공부를 하고 버스를 타면 피곤해서 졸릴 때도 있었다. 하지만 햇빛이 차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기사가 귀여운 인형을 운전석 옆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것을 보고는 또 재미있어서 혼자 웃었다. 이런 작은 아름다움은 항상 사람을 기쁘게 한다.

어느 날 저녁 무렵에 친구들과 하늘공원에 올라갔다. 이 시간에는 해가 서쪽으로 한 뼘씩 지기 때문에 보이는 풍경도 사뭇 다르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진을 많이 찍었다. 공원 정상에 이르자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멀리 황금빛 석양만 건물 위에 놓여 있었다. 한참을 걸려서 내려오니 어느새 길가 상점에는 하나, 둘 형형색색으로 불이 켜지고 있었다. 공원으로 올라갈 때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풍경이 눈앞으로 지나간다. 시원한 밤 바람이 하루의 피로를 모두 날려버린 듯했다.

每天每天都是新的一天~

宋玉(铁道电气系统专业 3年级)



第一次来到韩国,既陌生又紧张,外出时天空上的漂浮的云朵格外漂亮,不知为何心情变得舒畅。

有时又会去吃一顿烤肉。看着烤肉的热气往上冒,看着别人说说笑笑,我也不自觉的放松起来。感觉一天的疲惫都被驱散了。而后几天陆续买了炸鸡,烤红薯,在美食的香味中很快迎来了2023年。美食这种东西也是生活中不可缺少的一部分。开学后忙了起来,不过某一天上课的时候,路上偶然

遇见了一只小猫。橙色的,胖胖的。看着看着我的脸上也不自觉的冒出笑容。

偶尔有学习后坐在公交车上感到疲惫的时候。但是看到阳光洒到车内,看到司机把玩偶一排排整齐地放在车前,又觉得可爱又高兴。这些小美好总是让人开心。

某一天突然想和朋友去天空公园,于是吃完饭后趁着天还没暗边散步边走着去。走过的路因为太阳一寸寸的落下,看到的风景也截然不同,拍了好多美好的照片。到公园山顶时,天已经黑了,只剩远处的夕阳渡在建筑上,是金色的。回去的路上发现路边的店的招牌都亮起来了,五光十色,和白天完全不一样的感觉。微凉的风吹过,仿佛把一天的疲倦都吹走了。

팬데믹 이후의 삶의 변화

리 엘레나(솔브릿지 경영학부 2학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의 삶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되어 팬데믹 이후의 세계를 헤쳐나가면서 발생한 중요한 변화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는 적응력입니다. 원격 근무, 온라인 학습, 디지털 혁명을 수용하여 쇼핑, 의료 서비스 접근 및 사고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유연성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고용 시장과 의료 전문가의 연결 방식을 재구성했습니다.

팬데믹은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약이 완화되면서 사람들은 친구 및 가족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친목 모임과 여행은 우리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팬데믹은 건강과 웰빙에 대한 새로운 초점을 촉발했습니다. 산책에서 건강한 식습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돌봐야 할 필요성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은 우리에게 인간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더 친환경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전기 자동차,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일회용 플라스틱 감소는 이제 뉴노멀의 일부입니다.

결론적으로, 팬데믹 이후의 시기는 우리의 삶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적응하고, 다시 함께하고, 건강을 우선시하며, 지속가능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회복력과 변화에 대한 역량을 상기시키며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계속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Изменения в жизни после пандемии

Li Alena(Solbridge business department 2nd year)



После глобальной пандемии COVID-19 наша жизнь изменилась так, как мы и предположить не могли. Сегодня я расскажу о значительных изменениях, которые произошли в нашем мире после пандемии. Один из самых замечательных аспектов постпандемического периода - наша способность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Мы приняли

удаленную работу, онлайн-обучение и цифровую революцию. Пандемия также вызвала повышенное внимание к здоровью и благополучию. Начиная с ежедневных прогулок и заканчивая здоровым питанием, мы осознал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заботиться о своем физическом и психическом здоровье как никогда раньше. В заключение хочу сказать, что период после пандемии привел к глубоким изменениям в нашей жизни. Мы приспособились к новым условиям, восстановили связи, расставили приоритеты в отношении своего здоровья и приняли идею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Эти изменения оставили неизгладимый след в нашем мире, напомнив нам о нашей жизнестойкости и способности к переменам. Давайте продолжим учиться на этом опыте и вместе строить лучшее будущее.

사랑에게

레니타 (글로벌영상 미디어학과 2학년)

사랑.
지금 첫사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첫키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기분은 어떤 느낌일까요?
사랑을 받는 것.
처음 눈을 마주치는 순간,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커지나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 걸 보면
사랑은, 이 세상 최고의 감정인가 봐요.

나의 하나뿐인 사랑.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내가 잘할 테니까
제발 내 곁에 있어 줘요.
나를 버려두지 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만큼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약속할게요.



Dear Love

Lennita (Global Media and Communication Arts 2nd year)

Love.
I'm waiting for my first love.
Waiting for my first kiss.
Someone who can give their all to me.

What does it feel like?
Receiving Love.
From the very first sight, can I feel Love?
Or does Love grow over time?

Seeing that everyone is falling in Love
Love, I guess, is the best feeling in the world.

My one and only Love.
We haven't met yet
But I will treat you well
So please stay by my side.
Don't leave me alone.

Just like I Love myself
I can Love you just as much.
I promise.



오토바이를 타고 한국을 알아가는 것

디요르벡(솔브릿지 경영학부 4학년)



대전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에서 국제 학생으로서 대한민국에 왔을 때, 나는 이 땅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 채 발을 들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의 나의 모험은 나의 학업 경험을 재정의할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를 타고 느낄 수 있는 풍경과 풍부한 문화, 새로운 우정의 세계를 열게 되었다.

대한민국에 도착했을 때, 언어, 관습, 요리에 대한 낯선 경험들은 나에게 어렵게 다가왔다. 두 바퀴로 이 미지의 영토를 탐험하는 아이디어는 거창해 보였지만, 이 새로운 나라를 알아가는 열쇠로 작

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다.

나의 오토바이 여행은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나와 함께 탈 친구들과의 연대감이 나의 오토바이 여행을 촉발시켰다. 함께 여행하며 경험하는 것은 일상적인 학생 생활을 뛰어넘는 모험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는 그저 이동 수단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탐험으로 이끌어주는 열쇠가 되었다.

대전의 활기찬 거리를 달려가면서, 나는 대한민국의 심장 박동을 발견했다. 바쁜 시장에서부터 생동감 넘치는 축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오토바이는 내가 외국인으로서 한국 커뮤니티에 자연스럽게 동화할 수 있게 했다.

이 여정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측면 중 하나는 이 나라의 자연 경치와의 뜻밖의 만남이었다. 대한민국의 풍경은 때때로 번잡한 도시 풍경에 가려져 무시되곤 하지만, 나에게 그 모든 멋진 모습들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길이라고 보였다. 굽이 굽이 이어지는 도로는 나를 놀라운 산, 고요한 호수, 그림 같은 계곡으로 안내했으며, 각 도로의 곡선마다 이 매혹적인 나라의 새로운 양상이 드러났다.

잊을 수 없는 여행 중 하나는 나를 한국의 시골로 이끌었다. 거친 초록 논밭이 수평선과 만나고, 고대 절이 한국의 풍부한 역사를 대표하는 목격자로 남아 있었다. 오토바이는 자유로운 이동성을 통해 전통적인 관광의 한계를 넘어 숨겨진 보석을 속으로 내게 진정으로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아마도 이 오토바이 여행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동안 형성된 인간관계일 것이다. 오토바이를 타는 친구들은 평생 친구로 변하였고, 각각의 중간 정거장은 이야기, 웃음, 그리고 물론 맛있는 한국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오토바이의 공동된 사람을 통해 문화적인 장벽은 사라지고, 나는 한때 이 국가에서는 외국인이었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소속감을 찾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보낸 시간을 돌아보면, 명백한 것은 오토바이가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변형적인 힘이었다. 그것은 나를 캠퍼스 생활의 한계를 넘어 이 놀라운 나라의 본질에 가까이 데려가 주었다. 헬멧 쉴드 뒤에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교과서와 강의로는 전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본질에 가까워졌다.

그래서 비슷한 여행을 고려하는 누군가에게 나는 말한다. 오토바이를 타고 바람에 실려 가 보라고.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대한민국이 있고, 때로는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오토바이 좌석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엔진이 울리며 풍경이 펼쳐질 때마다, 길의 각 굽이마다 이 놀라운 나라의 본질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Matatsikl orqali Janubiy Koreyani zabt etish

Diyorbek (Solbridge business department 4th year)

Janubiy Koreyaning Daejeon shahridagi SolBridge xalqaro biznes maktabida xalqaro talaba sifatida ushbu jo'shqin mamlakatning yuragi va qalbiga sayohatim kutilmagan burilish yasadi, bu dvigatellarning shovqini, sochlarimdagi shamol va ochiq yo'lni qamrab oldi. oldimga cho'zilgan. Janubiy Koreyani mototsiklda kashf qilish qarorim nafaqat talabalikdagi tajribamni o'zgartiribgina qolmay, balki hayajonli manzaralar, boy madaniyat va yangi do'stliklar olamiga eshik ochishini bilmagan edim.

Janubiy Koreyaga kelganimda, men hamma narsaga - tilga, urf-odatlariga, oshxonaga begona edim. Bu notanish hudud bo'ylab ikki g'ildirakda harakatlanish g'oyasi qo'rqinchli bo'lib tuyuldi, biroq bu qaror tez orada bu sehrli zaminning sirlarini ochishning kalitiga aylanadi.

Mening sayyohlik sayohatim haydashdagi do'stlarimga aylanadigan velosipedchilarning do'stligi tufayli organik tarzda boshlandi. Birgalikda biz an'anaviy talabalar tajribasi chegarasidan oshib ketadigan sarguzashtlarga kirishdik. Aftidan, mototsikl nafaqat transport vositasi, balki madaniy kashfiyotlar uchun darvoza edi.

Daejeonning jonli ko'chalari bo'ylab sayohat qilib, men Janubiy Koreyaning yurak urishini - gavjum bozorlarda, jonli festivallarda va uning odamlarining iliqligida aks-sado beradigan ritmni topdim. Mototsikl mening aloqa pasportimga aylandi, bu menga chet ellik maqomim va koreys hamjamiyatining samimiy quchog'i o'rtasidagi tafovutni bartaraf etishga imkon berdi.

Ushbu sayohatning eng diqqatga sazovor jihatlaridan biri mamlakatning tabiiy mo'jizalari bilan o'z-o'zidan uchrashish bo'ldi. Ko'pincha gavjum shahar manzaralari soyasida bo'lgan Janubiy Koreya manzarasi butun ulug'vorligi bilan mening ko'z o'ngimda ochildi. Aylanma yo'llar meni hayratlanarli tog'lar, sokin ko'llar va go'zal vodiylarga olib bordi - yo'ldagi har bir egri bu maftunkor mamlakatning yangi qirralarini ochib beradi.

Bir unutilmas sayohat meni Koreya qishloqlarining yuragiga olib bordi, u erda ufqni kutib olish uchun cho'zilgan yam-yashil guruch maydonlari va qadimiy ibodatxonalar mamlakatning boy tarixidan dalolat beradi. Harakat erkinligi bilan mototsikl menga an'anaviy turizm chegaralaridan oshib o'tishga va Janubiy Koreya taqdim etayotgan yashirin marvaridlarga chinakam sho'ng'ishimga imkon berdi.

Ammo, ehtimol, mening mototsikldagi sarguzashtlarimning eng qimmatli tomoni bu yo'lda o'rnatilgan munosabatlardir. Chavandoz do'stlari umrboqiy do'stlarga aylandi va har bir pit-stop hikoyalar, kulgi va, albatta, mazali koreys oshxonasi bilan bo'lishish imkoniyatiga aylandi. Ochiq yo'lga bo'lgan muhabbat tufayli madaniy to'siqlar yo'q bo'lib ketdi va men bir paytlar juda begona bo'lgan joyga tegishlilik tuyg'usini topdim.

Janubiy Koreyada o'tgan vaqtimni o'ylab ko'rsam, mototsikl shunchaki transport vositasi emas, balki o'zgartiruvchi kuch bo'lganini ayon bo'ladi. Bu meni kampus hayoti doirasidan tashqariga olib chiqdi va bu aql bovar qilmaydigan mamlakatning yuragi bilan tanishtirdi. Dubulg'a visorining ob'ektivi orqali men Janubiy Koreyaning go'zalligini darsliklar va ma'ruzalar hech qachon etkaza olmaydigan tarzda ko'rdim.

Shunday qilib, shunga o'xshash sayohatni o'ylayotgan har bir kishiga aytaman, egarlang va shamol sizni boshqarsin. Janubiy Koreya kashf etilishini kutmoqda va ba'zida uning sirlarini ochishning eng yaxshi usuli - mototsikl o'rindig'i. Dvigatelnining shovqini va manzaralar ochilganda, yo'lning har bir burilishi sizni ushbu ajoyib mamlakatning mohiyatiga yaqinlashtirayotganini ko'rasiz - bu faqat mototsikl taqdim eta oladigan erkinlik va hayajon bilan eng yaxshi o'rganilgan joy.

참살이

뉴엔 레 닉 마이(솔브릿지 경영학부 4학년)



‘참살이’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입니다.

참살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참살이족 또는 웰빙족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몸과 마음, 일과 휴식, 가정과 사회, 자신과 공동체 등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러한 참살이족들은고기 대신 생선과 유기농 농

산물을 즐겨 먹고 단전 호흡이나 요가와 같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하며 외식보다는 가정에서 만드는 ‘슬로우 푸드(slow food)’를 먹으며 여행이나 등산, 독서 등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03년 이후 참살이 문화가 확산되었는데 한국에서의 참살이 문화는 특히 ‘건강에 좋은, 친환경적인’의 의미로 인식되고 있으며 참살이족을 겨냥한 의류, 식품, 주택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과 더불어 주택에서도 참살이를 실천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시멘트나 각종 화학제품을 사용해 지은 새집에 들어가서 살면 새집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즉, 집이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사용한 건축 자재나 벽지 등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 때문에 거주자들이 두통이나 기침, 가려움증, 피로감 등의 건강상 문제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새집증후군을 피하기 위해 나무나 황토 등 천연 재료를 이용해 지은 집이 인기입니다. 특히 이러한 참살이 열풍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외면받던 한옥과 전통 기법으로 지어진 가옥들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참살이 문화는 한국인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이제 한국인의 의식주 생활 곳곳에 ‘참살이’를 표방하지 않은 물건이 없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참살이’는 한국 사회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인류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데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Lối sống đích thực

Nguyễn Lê Ngọc Mai(Solbridge business department 4th year)

‘Chamsali’ là khái niệm chỉ một lối sống hoặc văn hóa theo đuổi một cuộc sống hạnh phúc và tươi đẹp thông qua sự hài hòa giữa sức khỏe thể chất và tinh thần.

Những người theo đuổi lối sống này cố gắng duy trì một trạng thái trong đó thể xác và tinh thần, công việc và nghỉ ngơi, gia đình và xã hội, bản thân và cộng đồng, đều hài hòa và không thiên về một hướng. Họ thích ăn cá và các sản phẩm hữu cơ thay vì thịt, tập các bài tập để tĩnh tâm như thở danjeon hoặc yoga, ăn ‘thức ăn chậm’ nấu ở nhà hơn là ăn ở ngoài, và đi du lịch, đi bộ đường dài, đọc sách, v.v.

Văn hóa Chamsali cũng lan rộng ở Hàn Quốc từ năm 2003. Tại Hàn Quốc, văn hóa Chamsali đặc biệt được công nhận là ‘lành mạnh và thân thiện với môi trường’.

Ngoài ra, còn có một xu hướng mạnh mẽ là thực hành lối sống Chamsali tại nhà. Nếu bạn sống trong một ngôi nhà mới được xây bằng xi măng hoặc các sản phẩm hóa học khác nhau, bạn sẽ gặp phải ‘hội chứng nhà ốm’. Nói cách khác, việc cư dân gặp các vấn đề về sức khỏe như đau đầu, ho, ngứa ngáy, mệt mỏi do các chất độc hại thải ra từ vật liệu xây dựng hoặc giấy dán tường được sử dụng khi xây nhà, công trình mới rất phổ biến. Đặc biệt, do ảnh hưởng của cơn sốt Chamsali này, Hanok và những ngôi nhà được xây dựng theo kỹ thuật truyền thống vốn bị lãng quên trong thời gian dài đang dần được chú ý trở lại.

Trong những năm gần đây, văn hóa sống sung túc đã thấm sâu vào mọi khía cạnh của đời sống Hàn Quốc. Thật khó để tìm thấy một nơi trong cuộc sống hàng ngày không có những món đồ không tương trưng cho “cuộc sống đích thực”. Bằng cách này, ‘Chamsali’ có ảnh hưởng lớn đến xã hội và văn hóa Hàn Quốc, đồng thời trở thành một giá trị quan trọng trong hành trình tìm kiếm một tương lai bền vững của nhân loại.



창밖의 나무

리수치(솔브릿지 경영학부 1학년)



나는 항상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인지 찾고 있다. 어느 날 문득 창밖의 회화나무에 꽃이 피는 것을 발견했다. 작은 흰 꽃 한 송이가 나뭇가지 아래에 매달려 파릇파릇한 잎사귀와 함께 바람에 나풀나풀 흔들린다. 하늘은 주황색이고, 마침 해가 질 때이다. 이 주황색의 빛도 작은 흰 꽃에 비추고 꽃잎에도 오렌지색으로 약간 물들었다. 내가 창문으로 다가가자 이따금 향기가 콧속으로 풍겼다. 작은 꽃들을 바라보니 아직도

많은 작은 벌들이 꽃을 에워싸고 날고 있다. 이런 경치는 정말 아름답다. 내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경치를 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곤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자책의 파도를 일게 한다.

봄에는 나무에 작은 흰 꽃이 핀다. 아주 많아 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옆의 나뭇잎은 연두색이다. 꽃 옆에 작은 벌이 날고 있다. 정원 밖에 작은 강이 하나 있다. 봄에는 항상 작은 바람이 분다. 작은 바람이 나의 작은 집에 꽃향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꽃향기가 진하지 않은 그런 은은한 맑은 향기이다. 향기가 더해져 나의 창문은 입체적인 그림이 되었다.

여름에는 창밖에 있는 회화나무의 작은 흰 꽃이 모두 시들고 잎의 색깔도 가득 깊어져 작은 벌도 날아갔다. 그러나 이것도 새로운 그림을 형성했다. 여름에는 나뭇잎이 독특한 광택감을 느낄 수 있는데, 마치 대자연이라는 화가가 이 그림에 약간의 하이라이트를 그린 것 같다. 여름에도 항상 비가 오는데, 특히 폭우가 내린다. 폭우가 내리면 밖은 어두워지고 창밖에는 천둥이 치고 나뭇가지도 광풍에 흔들린다. 바깥 지하철은 몇 분에 한 번 지나갈 수 있는데, 매우 어두워서 한 줄기 빛이 지나가는 것만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음침한 공포감이 느껴진다.

가을 바람은 항상 잔잔한 슬픈 느낌을 갖게 되는데, 아마도 여름에 작별을 고하는 것 같다. 이때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주룩주룩 소리를 낸다. 나는 항상 이럴 때 나의 큰 침대에서 즐거움을 좋아한다.

겨울에는 창밖의 회화나무가 완전히 벗겨벗겨졌지만, 이 또한 나무 뒤의 경치를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눈이 오는 날에는 눈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나는 항상 나무에 새하얀 꽃이 피는 것처럼 신선함을 느낀다. 전체적으로 은백색의 나무 뒤에는 하얀 눈이 깔려 얼어붙은 호수가 있다.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아름다운 광경은 항상 눈앞에 나타난다. 꼭 해가 뜨고 질 때의 해변일 필요는 없고, 등하곳길의 해돋이와 일몰일 수도 있다. 꼭 산꼭대기에 올랐을 때 보이는 도시일 필요는 없고, 길가의 작은 꽃일 수도 있다. 꼭 초원의 별일 필요도 없고, 집 앞의 별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매혹시킬 수 있다.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항상 눈앞에 있다.

窗外的树

李淑慈(索布里奇商学院, 大一)

我总在探寻什么才是“最美”的风景。有一天我突然发现窗外的槐花树上开花了。一串一串的小白花吊在树枝下,和嫩绿的叶子一起被小风吹的一摆一摆。天空,是橘红色,刚好是日落的时候。这橘色的光也照在小白花上,花瓣上也染上了点点橘色。我走近窗户,阵阵香味飘进鼻腔。看向小花们,还有许多小蜜蜂在围着花儿飞。这样的景色实在是太美了。我怎么能把这样一幅美景给忘了呢?心中浮现阵阵自责。我总是忘记,在离我这么近的地方,还有这么个美丽风景。

春天,树上的小白花会开。很多很多,一串串挂在树枝上。旁边的树叶是嫩绿色。花的旁边飞着小蜜蜂。院子外面,有一条小河。春天里时常会吹些小风,小风会把花香吹进我的小屋。花香不浓,是那种淡淡的清香。有了香味的加持,我的窗户就成了一幅立体的画作。

夏天,窗外槐树上的小白花都凋谢了,叶子颜色也满满变深了,小蜜蜂也飞走了。但这也形成了一幅新的画作。夏天里树叶会有一种它独有的光泽感,就像是大自然这个画家为这幅画上画上了点点高光。夏天里也总是下雨,尤其是暴雨。一到暴雨天气外面就会变得很暗,窗外会打雷,树枝也会随着狂风摆动。外面的地铁几分钟会过一趟,因为很暗所以只能看见一条光亮闪过去。整体上感觉有种阴暗的恐怖感。

秋天的风总是会有一种淡淡的伤感的感觉,大概是夏天在告别。这时的风吹着树叶哗啦啦响。我总是喜欢在这种时候在我的大床上打盹。

冬天,窗外的槐花树彻底变得光秃秃了,但是这也使树后的景色更加突出。下雪天气雪会挂在树枝上,我总是觉得很新鲜,就仿佛树开出了新的白色的花。整体银白的树后是铺满白雪结冰的湖。

或许“最美的风景”并不存在。美丽的景象总是会出现眼前。不必一定是日出日落时的海滩,也可以是上下学路上的日出日落。不必一定是登上山顶时看到的城,也可以是路边上的一朵小花。也不必一定是草原的星星,家门口的星星也可以一样迷人。最美的风景,总是会在眼前。



발리볼 경기

로히안(솔브릿지 경영학부 1학년)



11월 23일 목요일, 나는 대전팀과 서울팀의 발리볼 경기를 관람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나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발리볼 경기였으며, 경기장 안은 정말 놀라운 에너지로 넘쳐났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대전팀의 빛나는 색상의 작은 수건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대전팀을 응원했습니다.

선수들, 특히 22번과 14번 선수들은 정말 눈에 띄게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

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적인 능력, 민첩성, 그리고 의지는 관중들의 주목을 사로잡아 매번 공을 주고받을 때마다 긴장감과 흥분을 일으켰습니다.

경기는 총 세 세트로 진행되었고, 대전팀은 각 세트를 확실하게 가져가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경기에서 드러난 이길 수밖에 없는 대전의 우세함에 대한 기뻐하는 환호 소리가 경기장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내의 활기찬 분위기에 더해 퍼포먼스를 펼치는 풍뎉 갈즈와 마스크트가 특별한 매력을 더했습니다. 그들의 활기찬 춤과 응원음은 경기장 전체에 팬들의 흥분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마스크트는 관중과 악수를 나누는 등 팬들과의 근접한 순간을 만들어 냈습니다.

추억으로, 나의 친구는 경기 시작 전에 던져진 공 중 하나를 잡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미 기억에 남을 만한 이 특별한 순간에 더해져 더욱 특별한 경험으로 남을 것입니다.



match de volley-ball

Rungi Loreane Gisele Marie Therese
(Solbridge business department 1st year)

Le jeudi 23 novembre, j'ai eu l'opportunité d'assister à un passionnant match de volleyball opposant l'équipe de Daejeon à celle de Seoul. C'était ma première expérience en tant que spectateur de ce sport et l'énergie dans la salle était tout simplement incroyable. À notre arrivée, chaque personne s'est vue remettre une petite serviette aux couleurs vives de l'équipe de Daejeon, que nous avons utilisée de manière créative en tant que banderole pour montrer notre soutien.

Les joueurs, en particulier les numéros 22 et 14, ont vraiment volé la vedette avec leurs performances exceptionnelles sur le terrain. Leurs compétences techniques et leur détermination ont captivé l'attention du public, créant des moments palpitants à chaque échange de balle.

Le match s'est déroulé en trois sets, et l'équipe de Daejeon a dominé la rencontre. L'atmosphère dans la salle atteignait des sommets à chaque point marqué, et les supporters étaient inondés de joie à chaque victoire.

Outre l'action sur le terrain, les pompom girls et la mascotte ont ajouté une touche spéciale à l'événement. Leurs danses énergiques et leurs encouragements ont contribué à maintenir l'excitation dans tout le stade. La mascotte a même pris le temps de saluer le public et de serrer la main des fans, créant des moments de proximité et de convivialité.

En guise de souvenir, mon ami a eu la chance d'attraper l'un des ballons lancés avant le début du match, ajoutant une note encore plus spéciale à cette soirée.

안녕 한국, 안녕 대전

유화우 (철도경영학과 3학년)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대전에 와서도 주말에 등산을 합니다. 대전의 산은 높지 않지만 매우 아름답습니다. 가끔 밤에도 등산을 하는데, 어둡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등산을 합니다. 산에는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나이가 있는 어르신들도 계신데, 모두 건강해 보였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산 아래의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많은 건물

들 중에서 우리 학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에 보는 학교 캠퍼스는 낮에 볼 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밤인데도 불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을 보면 대전은 변화하고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도시에 산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你好韩国，你好大田

刘华宇 (轨道经营系 三年级)

鉴于我对运动的热爱，我在大田的周末时常选择登山，尽管这里的山并不高，但却别具风采。有时，我甚至选择在夜幕降临后徜徉山间，尽管在黑夜里，我依然小心翼翼地攀登。山上的行人络绎不绝，其中不乏年长者，他们看上去依旧健康矍铄。

攀升至山巅，俯瞰山下的景致如画，尤其是在夜幕降临时，校园的灯火辉映成了一副别样的美景。在众多建筑之中，我们学校仿佛是最耀眼的明珠。夜晚的校园氛围与白天截然不同，尽管时至深夜，但灯火辉煌，勾勒出大田这座城市的繁华美丽。在灯光的照射下，大田展现出一幅璀璨夺目的画卷，我深信能够在这个城市生活是一件幸事。



만약 나에게 꿈이 있다면

고유일 (미디어디자인 영상전공)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솔직히 지금까지 꿈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습니다. 가끔 왜 꿈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지만, 제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대학에 가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공부를 하면,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있지만,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미디어디자인 영상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BTS의 정국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림도 잘 그리고 영상 촬영도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국의 팬이기 때문에 그를 닮고 싶어서 이 전공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공 공부는 쉽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BTS의 슈가가 부른 〈so far away〉를 생각합니다. 그 노래에는 저에게 힘을 주는 가사가 있어서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Dream, 그대의 창조와 삶의 끝에 함께 하길,
Dream, 그대의 자리가 어딜지라도 관대하리,
Dream, 결국 시련의 끝에 만개하리,
Dream, 시작은 미약하지만 언젠가 끝은 창대하리."

2년 동안 공부하면서 전공을 점점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 나에게 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멋진 광고 디자이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가서 자유롭게 사진을 찍으며 살고 싶습니다.

果我有梦想的话

高唯一 (媒体设计与影像专业)



从小就被问及关于梦想的问题，但坦率地说，至今我并没有一个明确的梦想，也没有特别想要追求的事情。时常会思考为何需要有梦想，但由于我消极的性格，一直没有勇气去设想可以实现梦想的可能性。

父母一直对我说希望我上大学，认为通过学习，我可以追求自己喜欢的事情。于是，我来到大学学习，尽管对所学专业并不感兴趣。一开始，我选择了媒体设计影像专业，主要是受到了BTS的国际知名成员田政国的启发。他在绘画和拍摄方面都非常出色，因为我是他的粉丝，所以想要学习他的技能，因此选择了这个专业。

然而，专业学习并不容易，有时候想要放弃。每当陷入低谷，我就会想起BTS的SUGA演唱的《so far away》。这首歌的歌词给予我力量，因此每次听到它都会重新振作起来。

"Dream, 愿你的创作陪伴你到人生尽头,
Dream, 愿你无论身处何方都能宽宏大量,
Dream, 在试炼的终点是花开万里,
Dream, 愿你以渺小启程以伟大结束."

学习了两年，我似乎越来越喜欢这个专业。如果说我有梦想，那就是成为一名优秀的广告设计师。我是否能够实现这个梦想呢？我期待能够去任何地方，自由地捕捉生活中的美好瞬间。

안녕, 한국

주영 (국제경영학과 2학년)



2021년, 나는 중국에서 그다지 원하지 않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그해 여름 방학은 그다지 즐겁지 않았다. 그때 나의 삼촌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공부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 유학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엄마는 나에게 유학을 가고 싶으냐고 물으셨고 나는 한국 유학을 결심하고 준비한 끝에 8월에 우송대학교의 입학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나는 제때 한국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휴

학을 신청을 하게 됐고 이번 학기가 되어서야 한국에 오게 됐다.

나는 같이 한국에 온 친구와 같은 시간의 비행기 표를 샀기 때문에 공항에 도착해서 친구를 찾아 그와 함께 인천에서 대전으로 오는 버스를 탔다. 대전에 도착한 날은 호텔에 묵어야 해서 호텔을 찾고 있었는데, 호텔을 찾을 수가 없어서 헤매고 있었다. 그때 옆에 있는 한국인 부부가 나와 친구가 중국어를 하는 것을 듣고 도와줬다.

다음 날, 다른 친구도 대전에 도착했고 우리는 먼저 친구가 묵고 있는 집에 가서 숙박을 한 후, 방 구하기에 나섰다. 친구가 소개해 준 부동산에서 적당한 집을 찾았는데, 우리의 많은 요구를 부동산에서 모두 해결해 주었고, 마침내 9월 8일에 마침내 내 집에 들어왔다. 이때부터 나의 한국 유학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你好, 韩国

朱赢 (国际经营系, 2年级)

在2021年, 我在中国就读了一所并非我理想之选的大学. 当年的暑假过得并不尽如人意. 在那个时候, 我的叔叔来访, 谈及学业的话题中, 韩国留学成为了我们的对话焦点. 母亲询问我是否有兴趣留学韩国, 我果断地选择了是, 通过充分准备, 我在八月收到了又松大学的录取通知书.

然而, 由于签证未能及时获批, 我未能如期抵达韩国, 迫不得已申请了休学, 直到本学期才得以踏足这片异国风光.

与一同前往韩国的朋友购买了相同时间的机票, 我们在机场相遇, 共同搭乘仁川到大田的公共交通. 抵达大田的那一天, 由于需要临时落脚, 我们一边寻找酒店一边四处徘徊. 在这个陌生的城市, 我们遭遇了困惑.

幸运的是, 在找不到住处的困境中, 一对韩国夫妇得知我们在用中文交流后, 热心地伸出援手, 为我们提供了帮助. 第二天, 其他朋友也抵达大田, 我们首先在朋友暂时居住的房子过夜, 然后开始寻找适合我们的长期住所. 在朋友推荐的中介处, 我们找到了满足要求的房源, 中介积极地协助解决了许多问题. 最终, 在九月八日, 我们迎来了搬进新家的日子, 从此, 我在韩国的留学生活正式拉开帷幕.



제주도 여행

구조월 (철도경영학과 4학년)



나는 1학기가 끝나고 남자친구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되어 제주도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가 컸다.

내가 처음에 간 월정리 해변은 제주도에서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젤리바다'라는 별명이 있다고 한다. 나는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한 폭의 그림 같은 경치에 매료되었다. 그동안 중국 상산의 바다, 칭다오 대련의 바다, 베이징의 바다를 모두 가봤지만, 이렇게 푸른 바다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또한 해변에 놓여있는 의자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푸른 하늘을 조용히 감상할 수 있게 해주었다. 바다를 본 순간,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내 눈 앞에 펼쳐질 때의 그 아름다움은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속소 앞에는 열대 나무들이 우뚝 솟아 있었고, 초록 앞들이 바닷바람에 좌우로 흔들렸다. 꼭 멀리서 온 우리를 환영하는 것 같았다. 해변의 경치가 아름답고 바닷물이 맑은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는 제주도 흑돼지구이가 유명하다고 해서 처음으로 흑돼지를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었다. 식당 직원이 한 조각씩 구울 때마다 고기 냄새가 좋아서 남자친구와 나는 계속해서 흑돼지구이를 칭찬하며 먹었다.

제주도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주도 시장이었다. 수많은 노점상, 처음 보는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열정적으로 춤추는 사람. 우리는 많은 음식 중에서 닭날개 구이와 문어빵, 그리고 육회를 사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이번 제주도 여행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기회가 된다면 또다시 제주도에 가고 싶다!

济州岛之行

邱楚钊 (铁路经营学系 4年级)

在今年六月学期结束的时候,我和男朋友一同展开了一场济州岛之旅。这是我来到韩国后第一次踏上远离日常喧嚣的旅途,对未知事物充满了好奇和期待。

月汀里是我们必去的地方,“果冻海”的美誉不虚传。一到达那里,我被那里的景色深深吸引。象山的海、青岛大连的海、北戴河的海我都曾游历过,唯独这一次看到了如此碧蓝的海。岸堤上矗立着高大的热带树木,绿叶在海风的吹拂下摇曳生姿,仿佛在欢迎远道而来的客人。两棵树之间摆放着椅子,让游客可以坐在那里,远眺辽阔的大海和湛蓝的天空。在那一刻,看到大海的景象,所有的烦恼都仿佛烟消云散。薄荷绿的大海在我眼前呈现出美不胜收的画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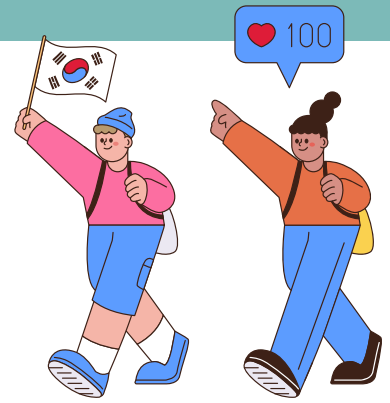
海边的景色格外美丽,清澈透明的海水令人心旷神怡,强烈推荐前来一游。

此外,济州岛还以烤黑猪肉为特色。之前从未尝试过的我,也开始对其赞不绝口。当服务生将一块块黑猪肉烤制而出时,香味扑鼻而来,我和男朋友不禁连连称赞其美味。

而令我印象深刻的还有济州岛的市场。琳琅满目的小摊儿,各种美味的食物让人目不暇接。市场上还有热情如火的舞者。那天我们购买了著名的烤鸡翅、章鱼小丸子以及生牛肉,无一不美味。

济州岛之行是我难以忘怀的一次旅程,若有机会,我定会再度踏足这片美丽的土地!





소탈한 서울 여행

이우림(미디어디자인·영상전공 3학년)



추석 연휴가 6일 있어서 친구랑 계획 없이 그냥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서울이었습니다. 버스를 두 시간 타고 금방 서울 고속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고속터미널에서 나온 후에 택시를 타고 서울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방문지인 이화여대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교회 같은 강의동이 보였고, 왼쪽에는 배꽃이 새겨진 벽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6대 총장인 아펜젤러 여사를 기리기 위해 지은 악학관 A동도 있는데 주강의동과 쌍둥이 건물입니다.

두 번째 방문지는 홍대입니다. 그곳은 매우 변화하고 가게가 다양해서 없는 것이 없는 것 같다.

세 번째 도착지는 N서울타워입니다. 이때 이미 밤이 되었는데 산꼭대기에 서서 서울의 점점이 찍힌 별빛을 내려다보며 도시의 불꽃놀이를 느꼈습니다. N서울타워도 밝아졌고 사람들이 이 순간을 찍고 남겼다.

바로 다음 날은 롯데월드에 가기 위해 우리 일찍 일어났습니다. 롯데월드는 실내와 야외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롯데월드에 도착하자마자 야외로 뛰어갔습니다. 실내와 야외를 연결하는 다리에 오르자 바로 앞에 있는 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은 높고 웅장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야외에서 가장 큰 롤러코스터인 아틀란티스를 탔습니다. 밤에는 야외 성곽 불꽃쇼와 실내 조명쇼도 봤는데 하나 하나가 눈을 땔 수가 없었습니다.

환호성 속에서, 우리는 이 잊을 수 없는 서울 여행을 끝내야 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저의 유학 생활에 조금 다른 색채를 더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모든 여행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알게 합니다. 다른 문화 속 사람들의 정과 문화를 느꼈습니다. 여행을 통해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여행하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많은 것을 얻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洒脱的首尔之旅

李雨霖(媒体设计·影像专业 3年级)

中秋假期放了六天假, 和朋友打算来一场说走就走的旅行, 于是我们把目标定在了首尔。在乘坐两个小时后大巴终于稳稳的停在了首尔站。出了大巴士, 坐上出租车开始了首尔之旅。

第一站我们来到了梨花女子大学。刚一进门就看到了教堂似的教学楼, 左侧是印有梨花的浮雕墙。很多人去那里拍照打卡。还有为了纪念第六任校长阿伯策尔女士所专门建造的药学馆A楼, 与主教学楼被称为双子建筑。

第二站我们来到了弘大, 那里非常繁华, 商店种类丰富, 应有尽有。

第三站是首尔塔, 此时已经到了晚上, 站在山上俯瞰着首尔的点点星光, 感受着城市的人间烟火。首尔塔也亮了起来, 许多人拍照留下这一瞬间。

第四站也就是第二天, 那一天我们早早的起来了, 因为要去乐天世界! 乐天世界分为室内, 室外两大类项目。刚一进门我们就直奔室外项目。走上连接室内外项目的桥, 就被前面的城堡吸引了目光, 城堡高大且宏伟。我们第一个乘坐的是室外最大的过山车——亚特兰蒂斯, 尖叫声此起彼伏。晚上观看了室外城堡烟花秀和室内灯光秀, 每一个都使人目不转睛。

在一片欢乐声中, 我们匆匆结束了这段难忘的首尔之旅, 这次旅行在我的留学生活中增添了一抹不同的色彩, 一切都像一场梦一样。每一次旅行都是对自己的重新认识。感受不同的风土人情和文化元素。开拓自己的视野。虽然很累但是收获了很多知识, 玩得很开心!



서울 여행기

주정정 (국제경영학과 4학년)

추석 때 친구들과 KTX를 타고 서울에 갔습니다. 오래전부터 서울에 가고 싶어 여러 가지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동에서 쇼핑하고 싶어서 그 근처에 있는 호텔로 예약했습니다. 명동에는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점과 멋진 공연장이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오전에 경복궁에 가서 궁중 의식 공연을 관람했는데 사진을 찍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한국어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 부탁을 했습니다. 사진이 아주 예쁘게 잘 나와서 그분에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으로 압구정에 갔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노선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처음이라 길을 잘 못 찾기도 해서 우리는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압구정에서 저녁도 먹고 구경도 했습니다. 가로수길에도 갔는데 그곳에는 예쁜 물건을 파는 상점들이 많았습니다. 구경을 하고 나서 한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옥상은 꽃과 소파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친구와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면서 좀 쉬 다음에 저녁에 홍대에 가서 맛있는 감자탕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우리는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서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종업원이 휴대전화를 꺼내서 번역기로 우리와 대화를 했는데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잘 못해서 당황할 때도 많았지만 그만큼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남겨 준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도시-대전, 서울

이숙원(뷰티디자인경영학과 3학년)

낯선 곳에서의 생활과 여행은 신선함, 스릴, 미지의 탐구를 추구하는 방법인 것 같다. 다양한 문화와 풍경, 삶의 방식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청춘의 일부가 될 유학생활의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제가 처음 본 대전은 친구들과 산책하듯이 한가로이 거닐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가는 사람마다 커피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국의 커피 문화를 실감했다. 저도 멋스러운 디자인의 카페에 들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주문하는 것이 행복한 즐거움이 되었다. 대학축제에서 무대 위의 가수와 함께 경충경충 뛰면서 뜨거운 젊음을 즐기는 모습도 정말 멋있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 친구들과 서울에 다녀왔다. 우리는 길을 따라 걸으며 이곳 저곳을 둘러보았는데, 매우 감성적이고 특색 있는 가게들이 많았다. 한국 학생들이처럼 인생 네컷 사진을 찍으며 다양한 포즈도 취해 봤다. 외국인들이 꼭 가 본다는 명동과 홍대도 갔다. 저녁에 한강에서 바람을 쐬면서 서로의 유학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편안하고 상쾌해졌다. 다리 위에서 함께 소리 높여 노래도 부르며 에너지를 충전했다. 이 추억만으로도 남은 유학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한국에 와서 대전과 서울 두 도시를 만났다. 대전이 주는 편안함과 따뜻함, 서울에서 느낀 화려함과 즐거움이 있었지만 이 두 도시 모두에는 젊음이 있었다. 나, 너 그리고 우리 모두의 젊음.

首尔之旅

朱晶晶 (国际经营专业 4年级)



中秋的时候,我和朋友们乘坐 ktx去了首尔,这是一场蓄谋已久的旅行。为了方便购物,我们住在了明洞附近,明洞有各种好吃的美食还有精彩的演出。

上午去了景福宫,观看了宫廷仪式表演。因为想拍合照,所以我们大胆地找了一个韩国人帮我们拍,照片拍得很漂亮,很感谢那个热心的韩国人。

韩国的地铁真的很复杂,因为是第一次坐,所以找不到路,导致我

们走了很多“弯路”。下午我们去了狎鸥亭,吃吃逛逛,商铺林立的林荫道,每间店都很精致。我们找了一家咖啡厅,顶层有花和座椅,在那里喝咖啡,聊聊天,小憩了一会。

傍晚我们去了弘大,吃了好吃的土豆脊骨汤,点餐的时候因为我们的韩语都不好没办法沟通,餐厅服务员看了一下,便拿出手机用翻译器与我们交流。韩语不熟练而导致有些许慌张的时候不少,但这种体验也很有意思。这是一次难忘的旅行,有欢乐也有惊喜。

我遇到的城市 - 大田, 首尔

李淑媛(美容设计经营学系 3学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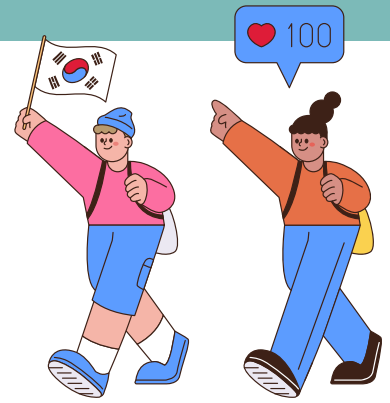


在陌生的地方生活和旅行似乎是追求新鲜、刺激、探索未知的方法。不仅可以体验多种文化、风景和不同的生活方式,还会成为我青春中难忘的回忆。

我第一次遇见的大田,她是一座可以和朋友们慢慢闲逛的城市。看到来往的人手里都拿着一杯咖啡,也切实感受到了韩国的咖啡文化。我也走进设计精美的咖啡厅,点上一杯热气腾腾的咖啡,这也成为了我生活中简单的乐趣。

秋天开始的时候,我和朋友们一起去了首尔。我们沿街闲逛,四处张望,看到了很多很有感觉、很有特色的饰品店。像韩国学生一样和朋友一起拍了人生大头贴,摆出了各种姿势。还去了外国人必去的明洞和弘大。晚上我们去汉江了,吹着凉爽的江风,互相谈论着留学生活,心情变得舒畅和愉悦。我们在桥上一边唱着歌,走着路。仅凭这些回忆,就可以愉快地度过剩下的留学生活。

我来韩国后遇见了大田和首尔两个城市。大田带来的舒适和温暖,在首尔感受到的华丽和快乐,但这两个城市都有青春。我,你还有我们所有人的青春。



내가 아는 한국

셀맥(솔브릿지 경영학부 3학년)

나는 지난 8월 23일에 한국에 도착했다. 공항을 떠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높은 빌딩과 긴 다리였다. 한국에 와서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곳을 여행하며 최대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9월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구경을 하고, 10월에는 부산에 가서 바다를 봤다. 그리고 대전에서는 지난 4개월 동안 대전의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했다.

대전에는 우암사적공원, 하늘거리, 장안시장, 엑스포공원 등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사람을 알 수 있는 곳이 가득하다. 대전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탓인지 한국에서 대전이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인 것 같다.

9월에 7일간 친구들과 함께 서울을 여행했는데, 서울은 대전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었다. 너무 크고 복잡한 데다가 정말 혼잡해서 조금 무서웠다. 하지만 서울 산책은 정말 즐거웠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나는 많은 역사적, 문화적 장소에 다녀왔다. 부산은 수학여행으로 다녀왔는데, 하루 동안 친구들과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나는 이곳에서 공부하는 2년 동안 많은 곳을 여행하며 한국을 알아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Миний мэдэх Солонгос

Ц э л м э г (Solbridge 3 курс)

Миний бие 8 дугаар сарын 23-ны өдөр Бүгд Найрамдах Солонгос Улсад хүрэлцэн ирсэн билээ. Анх онгоцны буудлаас гараад миний анзаарсан хамгийн эхний зүйл нь том өндөр барилгууд, уртаас урт гүүрнүүд байсан юм. Энд байх хугацаанд би олон хүмүүстэй танилцаж мөн олон газруудаар аялсан ба аль болох өөрийн цаг хугацааг зугаатай өнгөрөөхийг хичээсэн билээ.

10 сард Бусан хотын далай үзэж, 9 сард Чүсокын үеэр Сөүл хотын хөл хөдөлгөөнтэй гудамжнуудаар зугаалж, 8-11 сарын хугацаанд Дэжон хотын байгалийн үзэсгэлэнг мэдэрсэн ба маш олон зүйлс миний сэтгэлд үлдсэн.

Дэжон хот нь Уам түүхэн парк, Скай гудамж, Жанган зах, Экспо парк зэрэг маш олон очиж үзсэнээр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 соёл, хүмүүстэй нь танилцаж болох газруудаар дүүрэн. Дэжон хотод хамгийн удаан байсан болохоор ч тэр юм уу Дэжон нь надад хамгийн тайван, үзэсгэлэнтэй хотуудын нэг юм шиг санагддаг.

Би 9 сард 7 хоногоор Сөүлээр найзуудтайгаа аялсан ба Сөүл нь Дэжонгоос маш өөр санагдсан юм. Хамаагүй их хөл хөдөлгөөнтэй, хэтэрхий том, маш олон хүн амтай байсан тул бага зэрэг аймар санагдаж байсан ч Сөүлээр зугаалах үнэхээр талаагдсан. Тэнд байх хугацаанд түүх соёлын олон газраар аялсан юм. Бусан хотод сургуулийн аяллаар зөвхөн нэг өдөр байсан ч далайн эрэг дээр найзуудтайгаа цагийг өнгөрөөж, далайн давлагаа сонсон суух гайхалтай байсан.

Энд сурах 2 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өөрийгөө олон газраар аялж, Солонгос улстай танилцсаар байх болно гэдэгт эргэлзэхгүй байна.

강릉의 마법같은 순간들: K-드라마 꿈을 쫓아

엘비라(솔브릿지 경영학부 2학년)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것을 실제로 체험하다는 것은 마치 꿈속으로 발을 디딘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가을, 나와 친구들은 남한 동해안에 위치한 멋진 강릉 시로의 기억에 남을 여행을 떠났어요. 이 도시는 아름다운 해변, 다양한 신선한 해산물, 아늑한 카페,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따뜻한 환대로 유명해졌죠.

하지만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즐겨보던 K-드라마 “도깨비”에서 알게 된 장소였어요. 여기가 바로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인 김고은이 전설적인 빨간 스카프를 두르고 케이크의 양초를 끄는 장면에서 도깨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전 세계의 팬들이 이 마법 같은 장소를 체험하기 위해 강릉을 찾아와요. 그 마법 같은 장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은 모든 K-드라마 팬의 꿈이에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있었는데, 그 순간을 더 화려하게 만들어 줄 빨간 스카프를 가져오지 않아서 아쉬웠어요.

그곳에서 완전히 놀라서 서 있을 때, 파도 소리를 듣고 아름다운 하늘을 즐기며, 이 순간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모두에게 이 놀라운 장소를 방문하고, 이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매 순간의 마법에 빠져들기를 진심으로 추천해요.



Magical Moments in Gangneung: Pursuing K-drama Dreams

Tokonova Elvira (Solbridge business department 2nd year)

This autumn, my friends and I embarked on a memorable trip to the charming city of Gangneung, located on the east coast of South Korea. Known for its beautiful beaches, diverse fresh seafood, cozy cafes, and the warm hospitality of the locals, this city has left a lasting impression.

However, the true highlight was discovering the exact location featured in the beloved K-drama “Goblin”, a place where the main character, Kim Go Eun, goblin and blows out the candles on the cake scene while wearing the legendary red scarf. Fans from around the world visit Gangneung to experience this magical place. Capturing a photo with the magical scene in the background is every K-drama fan's dream. As I stood there, I wished I had brought a red scarf to make that moment even more

Surrounded by the sound of waves and enjoying the beautiful sky, I realized that standing there, completely astonished, would be a moment I'd remember for a lifetime. I wholeheartedly recommend everyone to visit this remarkable place, witness its beauty firsthand, and immerse themselves in the magic of every moment.

내가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

왕근이 (미디어디자인학과 3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디자인학과 3학년 왕근이입니다. 저는 2022년 11월 2일에 한국에 왔습니다. 당시 저는 외국 생활이 처음이고 한국어도 잘하지 못해서 매우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고 많은 도움을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2022년 12월 31일 저녁에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과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날의 불꽃놀이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비록 날씨가 매우 추웠지만, 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때가 타국에서 보낸 저의 첫 새해였습니다. 방학에 잠시 고향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왔을 때는 이미 봄이었습니다. 지난겨울에 한국에 왔을 때, 저는 팬더를 보러 에버랜드에 가고 싶었는데 너무 추워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봄에 날씨가 따뜻해져서 에버랜드에 놀러 가서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바다를 보고 싶어서 부산에 갔습니다. 친구와 함께 주로 해운대 근처에서 놀았는데 바다가 너무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이 많았습니다. 특히 ‘산낙지’를 처음 먹어 봤는데 아주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해운대에서 제일 유명한 해물전골도 먹으러 갔는데 저는 해물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식당의 해물파전 이 맛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참 행복합니다. 중국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한국으로 유학 온 것은 제가 한 결정 중에 가장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我在韩国的所见所闻

王瑾怡 (媒体设计专业 三年级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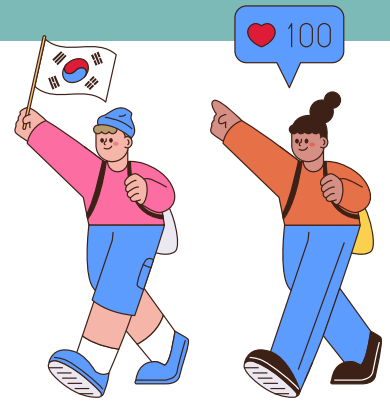


大家好，我是媒体设计系三年级的王瑾怡，于2022年11月2日踏足韩国。这是我第一次在国外生活，当时韩语并不流利，感到有些茫然。然而，我所遇到的韩国人都表现得非常亲切，感激他们给予我很多的帮助。

在2022年12月31日的夜晚，我与许多人一同迎接新年，欣赏了美丽的烟花。尽管天气寒冷，但我感到无比开心！那是在异国度过的第一个新年。在短暂的回老家假期后，当我再次回到韩国时，已是春天。去年冬天来到韩国时，我曾想去爱宝乐园看熊猫，但由于寒冷的天气未能实现。然而，随着春天的到来，气温回暖，我终于圆了梦，留下了美好的回忆。

在中秋节的长假中，我为了欣赏大海的美丽而前往釜山。与朋友一起在海云台附近玩耍，海的美丽令人陶醉，还有许多美味的食物等着我们。尤其是第一次尝试“活章鱼”，这是一次非常神奇的经历。我们还品尝了海云台最有名的海鲜火锅，虽然我并不是海鲜的爱好者，但那家餐厅的海鲜葱饼却让我赞不绝口。

在韩国的生活让我感到无比幸福，我很高兴能够体验到在中国从未有过的种种美好。来韩国留学似乎是我迄今为止做过的最正确的决定。



유림공원 국화축제

부티응억빅 (Edicott 자율융합학부)



벌써 가을이 됐다. 한국은 가을에 축제가 많은데 아직 방학이 아니라서 대전에서 열리는 축제에 다녀왔다. 나는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꽃 축제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매년 유림공원 국화축제에 간다. 4년 전에 대전에 온 이후로 그 축제에서 국화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다. 국화축제에는 직원들이 직접 기른 약 5,000만 송이의 국화와 함께 국화조형물 1,400여 점,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 등이 마련되어 있다.

꽃이 아주 많아서 축제 장소에 도착하기 전부터 꽃향기가 풍기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유림공원에서는 호수의 물레방아 소리를 들으면서 산책도 할 수 있고 파란 하늘과 국화, 단풍과 핑크몰리 등 다양한 꽃들을 감상할 수도 있다. 공원에 가면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계단을 올라가서 전망을 구경하면 바쁜 일상을 잠시 잊을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진다. 그곳에서는 시청의 허가를 받으면 드론으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또 갑천 옆에는 국화로 만든 조형물과 은행나무를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대전을 테마로 한 포토존도 있고 오른쪽으로는 푸드 트럭과 테이블이 있어서 잠시 쉬어 가기에 아주 좋다.

국화축제는 대전에서 꽤 큰 축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가족 단위로도 많이 방문한다. 그뿐만 아니라 로맨틱해 보이는 공간도 있어서 커플들이 데이트로 다녀오기 좋다. 행복하고 따뜻한 가을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유림공원 국화축제를 추천한다.



Lễ hội hoa Yurim

VU THI NGOC BICH (Chuyên ngành Endicott)

Đã mùa thu rồi. Có rất nhiều lễ hội vào mùa thu ở Hàn Quốc, nhưng vì chưa phải là kỳ nghỉ nên tôi đã đến lễ hội được tổ chức ở Daejeon. Vì yêu hoa nên tôi không bao giờ bỏ lỡ lễ hội hoa. Đó là lý do tại sao tôi đến Lễ hội hoa cúc ở công viên Yurim hàng năm. Lễ hội hoa cúc có khoảng 50 triệu bông hoa cúc do nhân viên trồng, cũng như hơn 1.400 tác phẩm điêu khắc hoa cúc và một nơi để ngắm cảnh đêm. Có rất nhiều hoa đến nỗi thật ấn tượng khi người thấy mùi hoa ngay cả trước khi đến địa điểm lễ hội.

Tại công viên Yurim bạn có thể vừa đi dạo vừa lắng nghe âm thanh của cối xay nước trong hồ và tận hưởng bầu trời trong xanh cùng nhiều loài hoa đa dạng như hoa cúc, lá phong, hoa muhly hồng. Nếu bạn đến công viên, có một nơi bạn có thể ngắm cảnh, nếu bạn đi lên cầu thang và ngắm cảnh, bạn có thể tạm quên đi cuộc sống bận rộn hàng ngày và cảm thấy thoải mái. Ở đó, bạn cũng có thể chụp ảnh bằng máy bay không người lái nếu được tòa thị chính cho phép. Ngoài ra, bên cạnh suối Gapcheon, bạn có thể chiêm ngưỡng tác phẩm điêu khắc làm từ hoa cúc và cây bạch quả. Ngoài ra còn có khu chụp ảnh theo chủ đề Daejeon, bên phải có xe bán đồ ăn và bàn, khiến nơi đây trở thành một nơi tuyệt vời để nghỉ ngơi.

Vì Lễ hội hoa cúc là một lễ hội khá lớn ở Daejeon có nhiều gia đình đến tham quan. Ngoài ra, nơi đây còn có không gian trồng lãng mạn nên là địa điểm thích hợp cho các cặp đôi hẹn hò. Nếu bạn muốn trải qua khoảng thời gian mùa thu vui vẻ và ấm áp, tôi khuyên bạn nên tham gia Lễ hội hoa cúc ở Công viên Yurim.

처음 본 서울

임병승 (경영학 전공 4학년)

저는 올해 9월에 한국, 대전에 왔습니다. 9월은 모든 것이 여물고 풍성해지는 계절입니다. 저는 9월에 서울에서 여행을 했습니다. 우선 N서울타워에 갔는데, 거기에서 서울 도시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식당, 백화점, 영화관도 있었습니다.

친구와 같이 길을 찾고 있을 때, 지나가던 열정적인 운전기사님이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서울타워에서 구경을 하고 나서 오후에는 친구와 같이 명동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가게와 음식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불고기, 육개장, 갈비탕 등을 먹었는데 아주 맛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한국의 전통 간식도 먹어 봤습니다.

서울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각자 언어는 다르지만 그들의 서울 그리고 한국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은 젊음이 느껴지는, 그리고 한 번은 꼭 가 볼 가치가 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初见首尔

任炳丞 (经济管理 4年级)



9月是一切变得成熟和丰盛的季节, 今年9月, 我来到了韩国大田。

我去了首尔的N首尔塔, 在那里可以看到整个城市。这里有很多餐厅和百货商场, 还有电影院。和朋友一起找路的时候, 热情的司机给我指了路, 让我感受到了家的温暖。

当天下午, 我和朋友一起去了明洞, 这里有很多商店和小吃店, 可以买到各种小吃。我和我的朋友

吃了很多韩国传统的小吃, 有烤肉, 大酱汤, 排骨汤等等, 食物好吃又便宜。

在首尔, 可以看到许多不同国家的人, 他们虽然讲不同的语言, 但是可以看出对首尔的热爱。首尔是一个能感受到年轻,而且值得去一次的城市。

한국 여행

서옥기 (경영학 전공 4학년)

저는 올해 여름에 중국에서 우송대학교로 유학을 왔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경험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저는 혼자 여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든 도시는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여행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도 다릅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서울과 부산, 대구를 여행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변화한 거리와 오래된 골목에서 현대적인 분위기와 전통적 분위기의 조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는 바닷가의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되어 버렸는데, 바닷바람의 싱그러움과 자유를 느꼈습니다. 대구에서는 여유로운 분위기와 느리게 흐르는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국의 여러 도시에서 한국의 문화와 독특한 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학 생활을 통해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미지의 세계를 알고 싶다는 열정도 갖게 되었습니다. 유학 생활 중에 한 여행도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각 도시의 현지 음식도 맛보고 현지인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제 마음도 성장시켜 주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유학 생활과 여행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에서 점점 익숙한 세계로 바뀌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저에게 의미 있고 추억으로 간직될 삶의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韩国旅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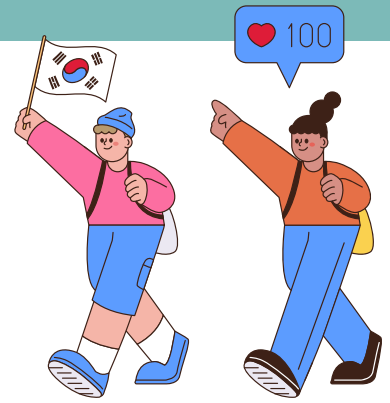
徐玉记 (经营学专业 4年级)



今年夏天, 我从中国来到又松大学留学, 开启了新的人生体验。我喜欢一个人的旅行, 每个城市都意味着新的篇章, 每次旅行都是心灵上的冒险。在首尔繁华的街道和胡同里, 感受着现代和传统的完美结合。在釜山被海边美丽的风景所吸引, 感受到了海风的清新和自由。在大邱体验悠闲的氛围, 感受着时间的缓慢流逝。每个城市都散发着独特的魅力, 让我体验到了韩国的各种文化和风土人情。

留学生活不仅有助于我适应各种环境, 还培养了探索未知事物的热情。漫步于城市街头, 品尝当地食物, 与当地人交流, 让我更深刻地了解韩国的多样性和包容性。这个过程不仅仅是旅行, 而是心灵的洗礼和成长。

也许, 这就是留学之神秘之处, 它让我从未知中找到了归属感, 开始了我有意义、充满回忆的人生旅程。



그리운 친구를 제주도에서 만나다

석여함(뷰티디자인경영학과 3학년)



저는 한국에 온 지 두 달 반 됐다. 중국에 있는 친구가 너무 그리워서 우리는 제주도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친구는 한국 비자가 없기 때문에 비자가 없어도 괜찮은 제주도를 선택했다.

우리는 각자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호텔을 예약했다.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도 좋았고 힘들지도 않았다.

제주도 바다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다. 그래서 나가면 바로 바다

를 볼 수 있는 함덕에 있는 호텔을 예약했다. 우리는 신발을 벗고 바닷가를 걸었다. 하얀 바다와 파도는 너무 예뻐서 바다 바람이 얼굴에 닿아 시원했다. 서로 너무 그림던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제주도의 유명한 흑돼지로 저녁을 먹은 후에 해변을 산책했다. 아름다운 풍경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편안한 시간이었다. 우리는 앉아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다. 우리의 고민은 어느새 다 사라지고 마음이 잔잔한 바다로 변한 것 같았다. 시간이 부족해서 아름다운 제주도를 다 볼 수 없는 것이 아쉬웠다. 그래서 한라산과 성산 일출봉을 보러 제주도에 다시 오기로 약속했다.

사랑하는 친구와의 제주도 여행은 특별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친구는 중국에서 제주도로 저는 한국에서 제주도로 가며 우리는 많이 설렘었다. 제주도로 향하는 동안 또 제주도에서의 만남과 여행, 그리고 헤어짐까지. 우리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在济州岛遇见思念的朋友

席予晗(美容设计经营学系 3学年)

我来韩国两个半月了,很想念在中国的朋友,所以我们约定在韩国的济州岛见面。因为朋友没有韩国签证,只能在不用签证的济州岛见。

我们各自定了机票和酒店,想到能和朋友在一起玩,心情很好,也没有觉得累。

济州岛的大海比想象中还要美!我们预定了出门就能看到大海的咸德酒店,脱下鞋子在海边散步。白色的大海和海浪非常漂亮,海风扑面而来非常凉爽,我们彼此之间思念的心变得温暖了。

到处逛了逛,晚饭吃了济州岛有名的黑猪肉。吃完晚饭我们在海边散步,看美丽的风景,还有人在唱歌,是很舒服的时间。我们坐下来聊了很多,很多苦恼不知不觉间都消失了,内心变得像大海一样平静。遗憾的是,由于时间不足,无法看到全部的美丽的济州岛,所以约好下次来济州岛看看汉拿山和城山日出峰。

和亲爱的朋友的济州岛旅行是特别的。在不同的地方,朋友从中国去济州岛,我从韩国去济州岛,我们都很激动。在济州岛的时光里,我们的相遇,旅行,还有分别,都成为了最难忘的回忆。



서울, 한국을 느끼다

왕성공(국제경영 3학년)

2023년 9월, 한국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다고 느꼈습니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로 모든 대도시의 특성을 고루 가지고 있는 듯했으며 도로도 넓고 매우 멋집니다.

대전을 떠나 처음으로 간 곳은 홍대였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많았는데 대부분 젊은이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중국과 같은 먹거리 음식도 많고 맛있었습니다. 길 곳곳에는 아름답고 멋진 옷차림의 사람들, 개성 넘치는 사람들도 많아서 트렌디한 문화가 발달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길 가운데에서 춤추는 사람들을 봤는데 즐겁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남산 서울타워도 갔었는데 9월의 밤은 조금 추웠지만 우리는 정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봤습니다. 환한 불빛에 끌려 서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한국 음식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한국 음식이 맛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예의 바르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경제문화가 발달했고 삼성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도 탄생했습니다. 한국은 유서 깊은 나라로 중국과 비슷한 문화도 많습니다. 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중국 한자도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더 많은 색다른 한국 문화를 경험하길 기대합니다.

서울, 感到韩国

王成功(国际经营系3年级)



2023年九月, 当我来到韩国时, 我觉得一切都显得井井有条。首尔是韩国的首都, 它拥有一切大都市的特点, 道路也十分宽敞漂亮。

离开大田后第一次去的地方是弘大, 那里人很多, 大部分都是年轻人。像中国一样的美食也很多, 并且很好吃。一路上都是穿着美丽帅气和充满个性的人, 流行文化似乎也十分发达。我还看到街上有跳舞的人, 他们看起来很开心很自由。

我还去了南山首尔塔, 九月的夜晚虽然有些冷, 但是我们还是在山顶看到了首尔的夜景。灯火通明, 仿佛被吸入首尔。虽然对韩国的饮食还不太习惯, 但还是能感受到韩国的美食十分好吃。

韩国人都十分有礼貌, 总是会听到来自他人的“안녕하세요”。韩国的经济文化十分发达, 诞生出了像三星这样世界闻名的品牌。韩国还是一个历史悠久的国家, 它的文化和中国有很多相似的地方, 随处可见的中国汉字也让我感到亲切。

希望以后也能长时间留在韩国, 期待体验到更多不一样的韩国文化。

서울로 떠나는 특전사 여행

방심이(뷰티디자인경영학과 3학년)

중국에는 '대학생 특전사 여행'이라는 인터넷 용어가 있다. 이것은 대학생이란 특전사만큼 힘든 여행을 해 봐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나는 네 명의 친구와 함께 서울의 '특전사'로 하루를 보냈다.

우리는 아침 5시 40분, 날이 밝기 전에 기숙사에서 출발했다. 대전역에서 6시 30분 ktx를 타고 서울로 갔다. 7시 50분에 서울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아침 식사였다. 배를 채워야 걸을 힘이 나기 때문이다.

아침을 먹고, 먼저 광화문에 가서 한국의 건물과 풍경을 감상하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길을 걷다가 우연히 웅덩이에 두꺼운 얼음이 얼어 있는 신기한 광경을 발견했다. 중국의 남쪽은 겨울에 별로 춥지 않기 때문에 고향이 남쪽인 우리는 매우 신기해서 손으로 얼음을 찢어 보고 발로 얼음을 밟았다. 앞을 보면 낙엽이 가득하고, 고개를 들면 햇빛에 비친 황금빛 잎사귀가 보이고, 두 눈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예뻐다.

그다음으로 우리는 한남동으로 갔다. 먼저 점심을 먹을 식당을 찾았다. 우리는 피자도 점심을 먹고 행복한 기분으로 쇼핑을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홍익대학교 근처로 향했다. 가게를 몇 개나 돌아다녔는지, 언덕을 몇 개나 올랐는지, 계단을 몇 개나 올랐는지 정말 힘들고 지쳤다. 비록 밤 11시에 학교로 돌아와 기숙사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즐거웠다.

首尔特种兵之旅

方心怡(美容设计经营学系 3年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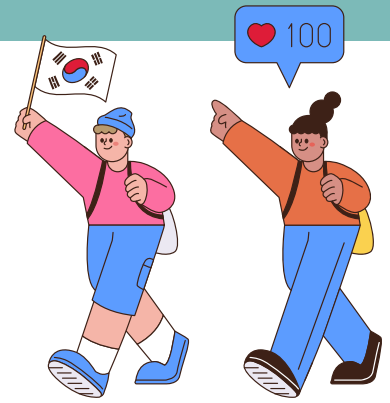
中国有个网络用语叫“大学生特种兵旅行”。就是说, 大学生尝试像特种兵般疲惫的旅行。所以上周六我和四个朋友一起当了一天首尔的“特种兵”。

我们早上5:40, 天亮前从宿舍出发了。6:30在大田站乘坐ktx去了首尔。7:50到达首尔站后做的第一件事就是吃早饭。因为只有填饱肚子, 才能有力气走路。

吃完早饭, 先去了光化门, 一边欣赏韩国的建筑和风景, 一边和朋友们欢快地聊天。另外, 在路上走着走着偶然发现了水坑里结着厚厚的冰的新奇景象。因为中国的南方冬天不怎么冷, 所以家乡是南方的我们用手戳一戳冰、用脚踩一踩冰觉得很新奇。在路上往前看能看见满地落叶, 抬头能看到阳光照射下的金黄色叶子, 漂亮到用两只眼睛都不够看的程度。

接下来我们去了汉南洞。先找了一家餐厅吃午餐。我们午餐吃了披萨, 带着超满足的心情开始购物。

最后我们去了弘益大学附近。不知道逛了多少家店铺、爬了多少个坡、走了多少个台阶, 真是又累又困。尽管累到晚上11点被朋友们拖着带回学校宿舍, 但也还是很开心。



아름다운 섬 ‘거제도’

마이티 황이(융합경영학부 1학년)



저는 한국에 온 지 두 달 반 됐다. 중국에 있는 친구가 너무 그리워서 우리는 제주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친구는 한국 비자가 없기 때문에 비자가 없어도 괜찮은 제주도를 선택했다.

우리는 각자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호텔을 예약했다.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도 좋았고 힘들지도 않았다.

제주도 바다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다. 그래서 나가면 바로 바다를 볼 수 있는 함덕에 있는 호텔을 예약했다. 우리는 신발을 벗고 바닷가를 걸었다. 하얀 바다와 파도는 너무 예뻐서 바닷바람이 얼굴에 닿아 시원했다. 서로 너무 그림던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제주도의 유명한 흑돼지로 저녁을 먹은 후에 해변을 산책했다. 아름다운 풍경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편안한 시간이었다. 우리는 앉아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다. 우리의 고민은 어느새 다 사라지고 마음이 잔잔한 바다로 변한 것 같았다. 시간이 부족해서 아름다운 제주도를 다 볼 수 없는 것이 아쉬웠다. 그래서 한라산과 성산 일출봉을 보러 제주도에 다시 오기로 약속했다.

사랑하는 친구와의 제주도 여행은 특별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친구는 중국에서 제주도로 저는 한국에서 제주도로 가며 우리는 많이 설렘었다. 제주도로 향하는 동안 또 제주도에서의 만남과 여행, 그리고 헤어짐까지. 우리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Hòn đảo xinh đẹp ‘Geojeo’

MAI THỊ HOÀNG Ý

(Khoa kinh doanh tổng hợp 1Năm nhất)

Tháng 10 vừa rồi, tôi có chuyến du lịch đến đảo Geoje cùng bạn bè. Ngay khi đến đảo Geoje, chúng tôi đi thẳng đến cửa hàng chính món mì Baemal Kalguksu. Tôi nghe nói mì Baemal Kalguksu là nhà hàng ngon trên Internet nên tôi rất muốn ăn thử. Đầu tiên, tôi gọi món Baemal kalguksu, kimbap và mì bibim sò. Sau khi thử đồ ăn, tôi cảm thấy mình có thể hiểu tại sao nhà hàng này lại trở nên nổi tiếng.

Sau khi dạo quanh đảo Geoje, chúng tôi tiến tới đảo Oedo. Khi bạn đi thuyền đến Oedo, một chú là nhân viên hướng dẫn bước ra và giải thích những điều bạn nên cẩn thận cũng như lộ trình du lịch Oedo. Lời giải thích có lẫn tiếng địa phương nên tôi đã không hiểu, nhưng nhìn biểu cảm trên khuôn mặt chú ấy, có vẻ như chú ấy đang kể một câu chuyện rất thú vị. Ngồi được một lúc, tôi bước lên boong tàu. Từ boong tàu, tôi có thể nhìn thấy biển tuyệt đẹp và những đàn hải âu bay lượn trên đó khiến lòng tôi rất thoải mái. Sau khi đi qua Haegeumgang, cuối cùng chúng tôi cũng đến được Oedo Botania. Tôi bắt đầu chuyến tham quan một cách chậm rãi, nhìn những loại cây được chăm sóc tốt giống như trong phim. Chẳng đầu tiên là một con đường đi lên, những con đường sạch sẽ và cây cối được chăm sóc cẩn thận nên khi nhìn xung quanh cảm thấy rất là thú vị, có lẽ vì vậy mà có rất nhiều khách du lịch. Chúng tôi cũng chụp rất nhiều ảnh với cây cối ở nơi đây. Sau khi đã tham quan chạng cuối cùng, ngắm nhìn đèn chấn sóng và ngọn hải đăng hy vọng, đồng thời tham quan Oedo Botania. Du lịch dường như làm cho mọi người hạnh phúc. Tôi nghĩ sau này khi nhớ biển sẽ lấy những bức ảnh này ra ngắm, như nó sẽ mang lại khoảnh khắc hạnh phúc cho tôi.

한국 자연과의 만남

헬스트루부 산더(솔브릿지 경영학부 3학년)



자연은 언제나 제 삶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노르웨이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 자연을 많이 누리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 국가의 자연을 탐험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에 저는 밤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제가 아는 몇 명의 한국 친구들은 한국의 자연이 특별하지 않다고 했지만 저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에는 수준에 맞게 걸을 수 있는 등산로도 있고, 정상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전망도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업적이 어우러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전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대둔산"은 해발 800m 이상으로 정상에 오르면 도시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가을에는 단풍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대전 안에도 좋은 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식장산"입니다.

그 산은 대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는데 연못을 지나 좀 더 걸으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장산의 독수리봉에 오르면 일몰과 야경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식장산에 한번 가보세요.

Mitt møte med Koreansk natur

Helstrup Sander Ugelstad

(Solbridge business department 3rd year)

Natur har alltid spilt en viktig rolle i livet mitt. Som en nordmann som ofte nyter naturen, har utforskingen av naturen på den andre siden av kloden vært fascinerende for meg. Etter at jeg kom til Korea, oppdaget jeg kunstig lys hverken fra solen, månen eller stjernene, og ble fortryllet av denne skjønnhet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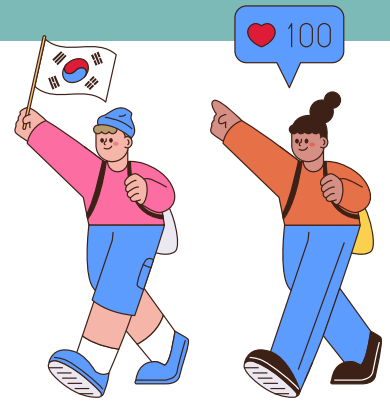
Flere av mine koreanske venner har sagt at naturen i Korea ikke er noe særlig spesiell, men jeg har hatt helt motsatt opplevelse. Koreanske fjell har stier som passer for alle nivåer, og fra toppen av disse fjellene kan man nyte vakre utsikter. Den unike kombinasjonen av natur og menneskeskapt teknologi gir oss fantastiske steder å oppleve.

"Daedunsan," som ligger 1-2 timer fra Daejeon, er et fjell med en høyde på over 800 meter og du kan se hele byen når du når toppen, og den er også berømt for dens høstfarger. Det er også et fint fjell i Daejeon kalt for «Sikjangsan».

Fjellet er det høyeste fjellet i Daejeon og er også kjent som en populær datingspot. Den har en vakker dam, og hvis du vandrer litt forbi den vil du kunne ta en pause og nyte en variasjon med treningsutstyr. Når du klatrer opp toppen av Sikjangsan vil du kunne se solnedgangen samt den vakre nattutsikten.

Dere burde alle ta en tur innom Sikjangsan.





부산 여행

안(솔브릿지 경영학부 2학년)



저는 한국에 온 지 두 달 반 됐다. 중국에 있는 친구가 너무 그리워서 우리는 제주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친구는 한국 비자가 없기 때문에 비자가 없어도 괜찮은 제주도를 선택했다.

우리는 각자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호텔을 예약했다.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도 좋았고 힘들지도 않았다.

제주도 바다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다. 그래서 나가면 바로 바다

를 볼 수 있는 함덕에 있는 호텔을 예약했다. 우리는 신발을 벗고 바닷가를 걸었다. 하얀 바다와 파도는 너무 예뻐고 바다 바람이 얼굴에 닿아 시원했다. 서로 너무 그림던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제주도의 유명한 흑돼지로 저녁을 먹은 후에 해변을 산책했다. 아름다운 풍경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편안한 시간이었다. 우리는 앉아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다. 우리의 고민은 어느새 다 사라지고 마음이 잔잔한 바다로 변한 것 같았다. 시간이 부족해서 아름다운 제주도를 다 볼 수 없는 것이 아쉬웠다. 그래서 한라산과 성산 일출봉을 보러 제주도에 다시 오기로 약속했다.

사랑하는 친구와의 제주도 여행은 특별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친구는 중국에서 제주도로 저는 한국에서 제주도로 가며 우리는 많이 설렘었다. 제주도로 향하는 동안 또 제주도에서의 만남과 여행, 그리고 헤어짐까지. 우리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Voyage à Busan

Anne (Solbridge business department 2nd year)

Situé au sud-est de la péninsule coréenne, Busan est dotée d'une multitude d'endroits magnifiques à visiter. Il existe plusieurs plages comme Haeundae ou bien Gwangalli où l'on peut se reposer au bord de la mer, bronzer sous un soleil de plomb et admirer la vue. De plus, le charmant village culturel de Gamcheon est une destination touristique où l'on peut trouver des habitations de toutes les couleurs ! Cependant, Busan ne s'arrête pas simplement à cela, de sublimes temples n'attendent que votre visite. Par exemple, le temple Yonggungsa est un endroit à ne pas manquer ! La vue y est sublime et l'on peut également y prier. Pour continuer votre aventure, vous pouvez vous rendre à la tour de Busan récemment rénovée en 2021. Celle-ci mesure 120 mètres et offre une vue panoramique à 360° de la ville. A Busan, vous pouvez également goûter les spécialités en termes de fruits de mer au marché Jagalchi. Si vous préférez admirer les mystérieuses créatures de la mer, vous pouvez également vous rendre à l'aquarium de Busan pour vous enfouir dans les profondeurs marines. A la tombée de la nuit, rendez-vous à l'observatoire de Busan où il est possible d'avoir une vue panoramique de l'ensemble de la ville. Personnellement, il s'agit de mon endroit préféré. Une douce brise de vent vous accompagnera dans votre expérience au sommet de Busan.

Il existe également beaucoup d'autres destinations à visiter lors de votre visite en Corée du Sud, laissez votre curiosité prendre le dessus et explorer de nouveaux horizons !

따뜻한 마음을 담은 편지

Letters from heart

温暖人心的信件

Những bức thư chứa đựng tấm lòng ấm áp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

노비 (글로벌미디어 영상 2학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한국에서 매일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지금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고향 집에서 함께 보낸 소중한 순간들을 항상 생각해요.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 하고 있고,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집에 돌아가면 언니, 오빠, 이모, 아빠와 다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집에 돌아가면 같이 케이크도 굽고 쇼핑도 가요.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저를 보낼 때 울었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요. 엄마가 울 때,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하는 더 좋은 딸이 되기로 다짐 했어요. 엄마를 향한 저의 다짐과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제가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려 주세요.

사랑합니다.

엄마의 가장 사랑하는 딸



To the person I love.

Shakhmurzaeva Anna Luiza (Solbridge International School of Business 3rd-year)

Hello? How are you? I miss you a lot every day while I am here in Korea. Even though we are apart now, I always think about the precious time we spent together back at home.

I have been meeting many new friends here in Korea and I am having a great time. I am working hard on my studies, and I am also trying my best to learn Kor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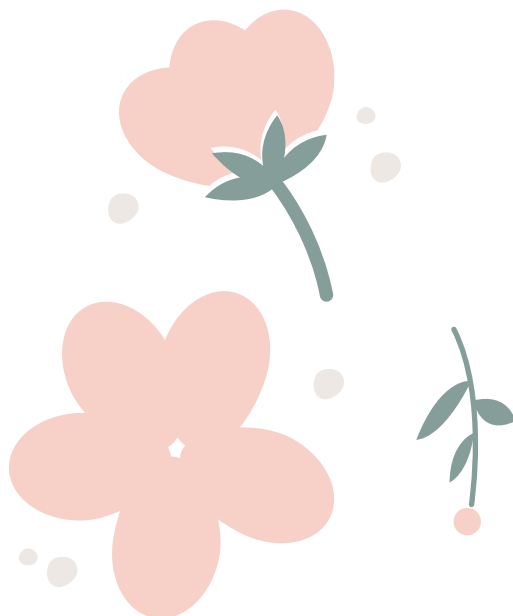
I hope that when I return home, we can all gather to have a good time with my sister, brother, aunt, and dad. I look forward to baking cakes and going shopping together when I am back home.

I still remember how you cried at the airport when you saw me off before I boarded the plane to Korea. When you cried, I made a promise to myself to become an even better daughter that you would be proud of.

My promise and love for you will never change. I am doing well here, so please always take care of yourself. And please wait for the day I return home.

I love you,

Your favorite daughter



딸에게 보내는 편지

안녕, 나의 딸

너의 편지를 받아서 너무 기쁘고 감동받았어. 엄마도 너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

네가 한국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 너무 좋다!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하니 우리 딸이 참 자랑스럽구나.

네가 다시 고향 집에 돌아와 우리가 다시 함께 할 날이 얼마나 소중할까? 어서 빨리 나와 함께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굽고 쇼핑을 하고 싶구나.

네가 한국으로 떠나던 날, 공항에서 너를 보내야 했던 그때가 내게 너무 힘든 순간이었어. 하지만 네가 걱정 없이 잘 적응하고 있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걸 들으니 마음이 놓인다.

언제든지 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을게. 그때까지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네가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로는 나의 모든 감정을 전할 수 없지만,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무 보고 싶어.

엄마가

To my beloved daughter

Hello, my daughter!

I am so happy and touched to receive your letter. And I miss you a lot too.

I am so happy to hear that you are making new friends and you are having a good time there! I just want to tell you how proud I am of you for studying hard and learning new things.

How precious those moments will be when you come home and we can get together again. I cannot wait to bake Christmas cake and go shopping with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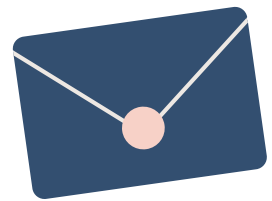
That time when I sent you off at the airport was so hard for me. But to hear that you are adapting well and living happily makes me feel relieved.

I will always wait for you to come back home. Until then, I will be praying for you and hoping for you to stay happy.

I am very thankful, and I cannot express all my feelings with just words of gratitude and love, but I hope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I miss you,

Mom



보고 싶은 부모님께

당호천(국제경영학과 4학년)

보고 싶은 아빠, 엄마에게

아빠, 엄마 잘 지내세요?" 이곳에서 저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매우 조심스러웠어요. 외국에서 실수 할까 봐, 잘못된 일이 생겨서 국가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줄까 봐 항상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국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한국인을 만났을 때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하여 의사소통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에 도움을 주신 한국어 선생님들께 감사해요.

처음 한국에 와서 낯설었지만 지금은 부모님과 고향이 생각날 때마다 중국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내 마음을 위로받고 와요. 아빠, 엄마께 제가 가 본 식당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할아버지 짜장면집인데 아주 맛있고 제 입맛에 딱 맞아요! 할아버지도 친절하세요. 두 번째는 BHC 치킨집, 학교에서 가깝고 치킨이 맛있어서 제가 자주 가는 곳이에요. 치킨도 맛있지만 콜라도 서비스로 주세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면 같이 가요.

국에 와서 중국과 한국이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일상생활 속 작은 차이부터 문화 교류 행사처럼 한국의 폭넓은 문화까지 다양하게 보고 느낄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여기 한국에 있는 동안 저는 많이 성장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지막으로 엄마 아빠, 방학에 집에 가는 날까지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해요!

아들 호천 올림

致想念的爸爸妈妈

唐昊天(国际经营学系4年级)



致想念的爸爸妈妈

"爸爸, 妈妈你们过得还好吗?" 在这我非常想念你们, 我在这过得很好。第一次来韩国, 我做事非常谨慎, 担心在国外会犯错, 做错什么, 影响到国家形象。但是现在我的韩语越来越好, 在见到韩国人时, 我能使用韩语和英语跟他们进行交流。同时也很感谢一直在教导我的韩语老师们。

虽然是第一次来到韩国很陌生, 但每当想起父母和故乡时, 我就会去餐厅吃美食, 让我的心灵得到慰藉。爸爸妈妈, 给你们介绍一下我去过的餐厅。第一家是爷爷的炸酱面, 非常好吃, 很合我的口味! 爷爷也很亲切。第二个是BHC炸鸡店, 离学校近。这也是我经常去的地方, 不但炸鸡美味, 还会赠送免费的可乐。爸爸妈妈, 你们要是来韩国的话我们就一起去吃吧。

当我到了韩国之后, 才知道中国和韩国的文化差异。从日常生活中的微小差异到文化交流活动。同时, 在这里可以感受到许多韩国的特色, 体验韩国广泛的文化。爸爸妈妈, 在韩国的期间, 我成长了很多, 对韩国文化有了更深入的了解。

最后, 爸爸妈妈, 到放假回家那天再见, 我一直爱着你们!

你们的儿子昊天献上

보고 싶은 아들이

보고 싶은 아들에게

호천아, 네가 보낸 편지를 보고, 한국에서 네가 매우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네가 한국 생활하고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적응하고 있는 거 같아 뿌듯함을 느낀다. 하지만 호천아, 이것은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 너의 아름다운 삶의 길을 갈 수 있을 거야.

역의 "하늘처럼 크고, 땅처럼 넓어 강건하며, 쉬지 않고 노력하여 덕을 두텁게 하여 만물을 수용해야 한다."라는 말처럼 너는 목표가 뚜렷하고 학업에 충실해야 해. 네가 중국을 떠났을 때부터 너는 너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나라를 대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선생님과 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예의 바르고, 남을 돕고, 단정하게 행동하길 바란다. 유학 생활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고 중국의 전통 문화도 널리 알려라. 올 한해 멋지게 앞으로 나아가렴!

아들아, 유학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엄마, 아빠는 네가 사회에 잘 적응하고 새로운 도전에 두려움 없이 맞설 거라 믿어. 이 과정이 너의 인생에 원동력이 될 거야. 우리는 언제나 너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라는 것을 잊지 마. 무슨 일이든 항상 우리와 마음을 열고 털어놓길 바란다.

아들아, 한국에서의 모든 일이 순조롭고 하루빨리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대할게.

엄마, 아빠가

想念的儿子



想念的儿子

昊天啊, 看到你寄来的信, 才知道你在韩国生活得很愉快。另外, 我对你比我们预想的更能克服和适应你在韩国生活与学习上的困难, 感到很欣慰。但是昊天, 这只是人生的开始。以后你要更加努力, 才能走上美好的生活的道路。

正如《周易》所说的"天行健, 君子以自强不息; 地势坤, 君子以厚德载物。"你要明确目标, 使学业充实。从你离开中国后, 你不仅代表了你自己, 也代表着你的家人与国家。所以希望你能够从小事做起, 跟老师和同学们好好相处, 有礼貌, 助人为乐, 举止端正。在留学生活中多学习些东西, 弘扬中国的传统文化。这一年帅气地向前走!

儿子, 留学只是一个过程, 爸爸妈妈相信你会适应社会, 面对新的挑战, 这个过程会成为你人生的动力。别忘了, 我们永远是你最坚实的后盾, 希望无论发生了什么事, 你都能和我们敞开心扉, 倾诉心声。

儿子, 期待你在韩国一切顺利, 早日平安归来。

爸爸妈妈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장석박(국제경영학 1학년)

제가 한국에 온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네요. 그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대학과 중국의 대학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생활 방식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중국 음식과는 맛이 다릅니다. 김치(파오차이)는 한국 사람들이 먹는 가장 흔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저는 한국식 치킨, 짜장면, 탕수육, 돈가스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불고기예요. 주말에 친구들과 학교 밖에서 처음 불고기를 먹고 나서 불고기의 맛과 매력에 빠졌답니다. 불고기에 야채, 마늘 그리고 바베큐 소스를 곁들여 먹으면 매우 맛있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두 시간씩 수업이 있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점심은 보통 식당에서 먹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외식하고 주말에는 근처 쇼핑몰이나 대형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고 간식과 생활용품을 삽니다. 한국의 물가는 중국에 비해 비싼데 특히 과일과 채소는 중국의 몇 배에서 수십 배까지 비쌉니다. 이곳에서는 한국문화에 대해 잘 알 수 있고 한국의 명절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어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어 공부를 통해 잘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겨울 방학이 되면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볼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장석박 2023.11.20.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 너의 편지를 받고 엄마 아빠는 매우 기뻐다. 네가 이 나라를 떠나 공부를 한 지도 어느새 반 년이 지났으니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엄마 아빠는 그동안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해 준 우리 아들이 매우 자랑스럽다. 처음 네가 유학을 떠날 때는 모든 것이 걱정이었는데 너의 편지를 받고 보니 이제는 안심이다. 네가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녹아드는 것을 보니 너무도 뿌듯하다. 더 크고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엄마 아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통화할 때마다 네가 들려주는 한국의 여러 가지 풍토와 배움의 에피소드를 즐겁게 나누는 것을 듣는 것도 매우 행복한 순간이었다. 지금 너는 이전보다 더욱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 되었다. 앞으로 몇 년 더 해외에서 공부하며 많은 수확을 얻을 것이고 크게 성장할 것이다. 지금 너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네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믿는다. 지금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진지하게 생각하며 더욱 풍요롭게 살아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너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안부 전해주고, 겨울 방학이 되면 집에 돌아온다고 하니 너를 만날 날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아들~

2023년 11월 엄마 아빠

敬爱的妈妈爸爸...

张锡博(国际经营学 1 年级)



来韩国生活两个多月了, 韩国的大学和中国大学很多不一样。生活上也有很多的不同。让我体验到了不一样的生活。有了很多新的经历。

韩国有很多美味的食物, 和中国食物的味道不一样。泡菜是最常见的食物之一。我品尝了韩式炸鸡, 炸酱面, 糖醋肉, 猪排饭等各种食物。但是我最喜欢的还是烤肉, 周末第一次和同学们在学校外面

吃韩国烤肉, 我就喜欢上韩国烤肉的味道和魅力了。用蔬菜夹着烤肉, 大蒜还有烧烤酱, 十分美味。和朋友们坐在烧烤桌边烤肉聊学习、聊生活, 有说有笑, 都享受美食和欢乐时光。在这种美味氛围下, 我们过了一个愉快的周末。

每周一到周四, 每天都有两节课, 五六日没有课。中午一般在食堂吃饭, 晚上的时候和朋友出去吃, 周末回去附近的商场或者大型超市购物, 买点零食和生活用品。韩国的物价相比于中国要贵一些, 尤其是水果和蔬菜, 是中国的几倍甚至几十倍。

来到这里可以很好的了解韩国文化, 了解一些韩国的节日。但是现在韩语沟通起来还是有很多困难。但经过以后的韩语学习, 我相信会好起来的。

寒假就可以回去了, 我会照顾好自己, 我很想念你们。

张锡博 2023.11.20.

给亲爱的儿子...



儿子, 收到你的信, 爸爸妈妈很高兴。

你离开这个国家读书不知不觉已经半年了, 时间过得真快。爸爸妈妈为一直以来适应韩国生活的我儿子感到非常自豪。当初你出国留学的时候, 一切都很担心, 收到你的信, 现在放心了。看到你很快适应和融入韩国生活, 我感到非常欣慰。能让你走出去看到更多精彩和不一样的世界是爸爸妈妈的初衷。

每次通话时, 听到你愉快地分享韩国各种风土人情和学习趣事, 也是我们最幸福的时刻。

现在你成为了一个比以前更积极乐观的人。相信你在几年的外国学习生活中一定会有很多意想不到的收获和成长。而这些必定会成为你一生中最宝贵的财富。希望珍惜和认真对待现在的每一天, 去成就和丰富自己的人生。最后向教你的老师和朋友们问好, 听说寒假要回家, 已经很期待见到你的那一天了……祝你永远健康幸福。儿子 我爱你~

2023年11月 爸爸妈妈

한국에서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

이악빙(융합경영학부 경영학전공 3학년)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요즘 건강하세요? 이제 한 달 남짓 지나면 곧 겨울방학에 집에 돌아갈 거예요.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제가 한국에 와서 공부한 지도 벌써 세 달이 지났네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엄마, 아빠는 항상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걱정하셨지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말도 통하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은 친구들과 같이 유학을 왔는데 저만 혼자 와서 외롭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좋은 친구들도 사귀었고, 실수도 많이 하다 보니 별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실수해도 두렵지 않아요.

제가 한국 유학 생활에서 절실히 느낀 건데 한국어를 잘하려면 좀 뽀뽀해야 해요. 잘못 말할까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이곳에서의 생활은 꽤 좋아요. 선생님 수업도 거의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선생님도 참 친절하시고 좋아요. 친구들도 다 좋은 사람이에요.

요즘은 밖에서 식사를 자주 하는데 한국의 음식 문화도 배우고 술자리 문화도 좀 배웠어요. 꽤 재미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꼭 한복 체험을 해 보고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이제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곧 만나요. 사랑해요.

딸 이악빙 드림

在韩国写给父母的信

李若冰(融合经营学系经营学专业 3年级)



爸爸妈妈:

爸爸妈妈, 最近身体好吗? 你们送的衣服和零食都收到啦。时间过得真快啊。再过一个多月, 我就要放寒假回家了。眼看来韩国学习已经三个月了。第一次来韩国的时候, 爸爸妈妈总是担心我, 有没有适应新环境, 有没有和朋友们一起上课吃饭的朋友等等。

第一次来韩国的时候, 我觉得真的很累。语言不通, 班上的同学都是和朋友们一起来留学的, 只有

我是一个人, 所以感到很孤独。

但是现在我交到了很多好朋友, 虽然还是经常说错韩语, 但是因为朋友陪着我, 我就觉得没什么大不了的。因此现在即使失误也不再害怕了。

我在韩国留学生活中切实感受到, 要想学好韩语, 必须要“厚脸皮”一点。如果一直担心说错韩语, 那么就不会有长进。在韩国的生活还是很愉快的。老师的课也几乎都能听懂。老师也很亲切、友好。班上的同学和朋友们都是性格很好的人。最近, 我经常在外面吃饭, 学习到了韩国的饮食文化和酒桌文化, 感觉非常有意思。有机会的话, 我很想体验一下穿韩服。爸爸妈妈, 你们不用再担心我了。天气越来越冷了, 爸爸妈妈也要注意身体健康。爱你们。

女儿李若冰

중국에서 사랑하는 딸에게

딸에게:

편지는 잘 받았어, 매우 신기하다.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한 지금, 딸의 편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색다른 느낌이 든다. 나와 네 엄마는 모두 다 좋아, 걱정하지 마라! '자식이 멀리 떠나면 어머니는 마음을 놓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잖아. 한 번도 곁을 떠나지 않은 딸이 먼 곳으로 간 것은 늘 부모를 걱정하게 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너는 잘 할 수 있다고 믿어! 네 엄마는 늘 수다를 떨어. 딸이 옆에 있으면 귀찮고, 가끔 싸우기도 했는데 요즘은 또 쓸쓸하다고 자주 말해. 웃기지 않니? 요즘은 네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물어봐야 해. 사실 부모님과 교류가 적었다는 것은 네가 이미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해. 부모님을 하소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다!

아빠와 엄마는 너랑 네 오빠가 해외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일이다! 앞으로의 길은 너희 스스로 걸어야 해. 한국으로 유학을 하는 목적은 졸업장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무언가를 배우고 돌아오는 것이다! 아빠는 우리 딸이 할 수 있다고 믿어! 가능하다면 학교 동아리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한국 사람들과 더 많이 교류하고, 이걸 네 한국어 실력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어제 틱톡에 눈 내리는 장면을 올린 걸 봤어. 한국은 많이 춥지? 감기 걸리지 않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아빠와 엄마는 딸의 새 변화를 기대한다. 곧 보자.

사랑하는 아빠, 엄마 씀

在中国给亲爱的女儿



亲爱的女儿:

信收到了, 甚感新奇, 现在网络这么发达, 能以网络的方式收到女儿的信, 有种不一样的感觉。我和你妈妈都很好, 勿念!

俗话说“儿行千里母担忧”从未离开过身边的女儿去到远方, 总是让父母担心的。你在那边的生活怎么样? 学习怎么样? 习惯韩国的生活了吗? 爸爸一直相信你能做好! 你妈妈总是唠叨。女儿在身边感觉没什么, 偶尔也会吵架, 你不在身边,

最近又总说很孤单寂寞。是不是觉得很好笑? 最近看你发来的信息, 都一定要问一下你发生了些什么。其实你和父母的交流少意味着你已经习惯了韩国的生活。不把父母当作唯一可以倾诉的对象是件好事!

爸爸和妈妈为了你和你哥哥在国外完成学业, 节衣缩食, 甚是辛苦。但这也是我们引以为豪的事情! 以后的路要靠你们自己走。去韩国留学的目的不是拿毕业证, 而是切切实实地学点东西回来! 所以从现在开始要制定长远的计划。爸爸相信我的女儿能做到!

如果有机会的话, 多参加学校社团活动, 多和韩国人交流, 这对提高你的韩语水平有很大的帮助。

我昨天在抖音上看到了下雪的场面。韩国很冷了吧? 多穿点衣服, 别感冒! 爸爸妈妈期待见到一个不一样的女儿。

爱你的爸爸妈妈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굴데예바 안나 (솔브릿지 경영학부 1학년)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친구 마리아 씨!

편지 고마워요! 편지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 여긴 벌써 겨울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조금 슬퍼요. 밖이 너무 추워서 산책을 많이 못해요. 집에서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요즘 드라마를 봤어요. 그 드라마 이름은 “구미호뎐”이에요. 드라마의 문구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거기서 '사람으로 산다는 건 인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다.' 첫눈, 첫걸음, 첫소풍, 첫 신경치료 그리고... 영원한 나의 첫사랑".

그 문구 때문에 요즘 나는 인생에 대해 많이 생각을 했어요. 역시 인생은 정말 덧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우리는 보통 새해 첫눈을 보지 못하고, 소중한 사람과 첫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새로운 장소에서의 첫 산책을 지나쳐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요. 삶을 보류해요. 다음에는 더 좋고, 더 재미있고, 더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첫 만나기가, 첫 산책이, 첫눈이 전혀 첫 아니라 마지막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각하면 좀 소름이 돋아요.

하지만 그런 동시에 오늘에 더 감사하고 유령 같은 '내일'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어요. 물론 저도 하고 싶은 목표와 계획, 꿈이 많아요. 하지만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으려고 노력해요: 첫눈, 첫 산책, 첫사랑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이보다 더 소중한요.

마리아 씨, 어떻게 생각해요? 동의해요? 연락을 기다리겠어요.

대전에서 안나가.



Письмо другу

Гульдеева Анна
(Solbridge business department 1st year)

Здравствуй, дорогой друг! Спасибо за твоё письмо! Оно немного задержалось в пути, и у нас уже наступила зима, поэтому мне немного грустно. На улице так холодно, что я не могу проводить много времени снаружи. Вместо этого я все больше общаюсь со своей семьей, читаю книги или смотрю фильмы.

На днях я посмотрела дораму, она называется «Сказание о Кумихо». В ней есть такие мысли, которые тронули мою душу.

Вот одна из них:

«Жизнь, которую проживаешь, будучи человеком, наполнена первыми и последними событиями. Первый снег, первые шаги и прогулка, первое лечение нервов и... моя первая и вечная любовь»

Эта цитата заставила меня глубоко задуматься о смысле жизни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едь жизнь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ак быстротечна. А мы этого не замечаем. Часто мы не замечаем первый снег в этом году, не придаем значение первой встрече с дорогим нам человеком, не обращаем внимание на первую прогулку в новом месте. Мы так и живём, откладываем жизнь на потом. Мы почему-то думаем, что дальше будет лучше, интереснее или легче... Но, а что, если, эта первая встреча, эта первая прогулка или этот первый снег, вовсе не первые, а последние? Что тогда? Ведь мы не боги и не можем предсказать будущее.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я много об этом думаю и мне становится немного жутко от этих мыслей, однако, в то же время они заставляют меня больше ценить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и меньше переживать о призрачном «завтра».

Конечно, у меня есть много целей и планов, есть мечты, которые я хочу осуществить, но я стараюсь не забывать о самом главном: Мой первый снег, моя первая прогулка, моя первая любовь - намного ценнее того, что еще не произошло.

Мария, а что ты думаешь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Согласна ли ты со мной?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у твоего ответа.

수필 2

Personal Essay 2

随笔 2

Tản văn 2

산책

서열봉 (융합경영학부 경영학전공 2학년)



산책은 멋진 일이다. 나는 산책을 매우 좋아한다. 특히 밤에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 밤에 산책하면, 거무스름한 하늘에 휘영청 밝은 달이 나타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 별과 달이 없어도 비나 눈을 만날 수 있어 좋다. 게다가 밤에 산책하면 나도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나의 모습을 볼 수 없어 마음이 편안하다.

산책은 방향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가고 싶은 곳까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마음도 발걸음도 자유롭고, 아

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다.

또 산책은 혼자만의 시간과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다.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 놓고, 겨울잠을 자는 개구리처럼 조용히 내 마음속을 들여다본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집중을 벗어나 내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해진다. 정적이 지혜를 낳는다는 말과 같이 산책은 나에게 지혜를 주는 것 같다.

산책은 평범하지만 멋진 광경을 선물하기도 한다. 뿔뿔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천천난만한 얼굴의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장난치는 모습, 광장에서 음악에 맞춰 즐겁게 춤추는 아주머니들의 모습 등 젊음과 긍정적인 기운은 나를 감탄하게 한다.

자연은 우리의 발아래에서 움직이며, 계절은 사람의 기분을 변화시킨다. 이를 통해 사람은 인생의 깨달음을 얻는다. 나도 산책을 통해 내 삶의 깨달음을 얻어 나가며 멋진 하루를 보내고 있다.



散步

徐悦峰 (融合经营学系 经营学专业 2年级)

漫步是一种极为美妙的体验。我深深热爱散步，尤其钟爱夜晚的漫步。夜晚的黑暗可能被清澈的月光点亮，此时黑夜的宁静中显得格外宜人。即便没有繁星与皓月，也可能迎来雨水或雪花，这样的氛围同样令人心旷神怡。而夜晚漫步，我看不到别人，别人也无法窥视我的模样，心境变得异常宁静和舒适。

漫步无需拘泥于方向。我可以随心所欲地走向任何我想去的地方，心随意动，无忧无虑。此外，漫步让我能够独自享受时间和整个过程。将手机调至静音，如同冬眠的青蛙一般进入一种封闭的状态，审视内心，慢慢品味。不必在乎他人的批评，我的内心仿佛如湖水一般平静。正如“寂能生智”一般，漫步似乎能够为我带来智慧。

虽然漫步显得平凡，但也能呈现出丰富多彩的景象。驶过的汽车呼啸而过，天真烂漫的学生们背着书包嬉戏，广场上随着音乐跳舞的大婶们充满年轻和积极的氛围，让我深感赞叹。

大自然在我们脚下不断变幻，季节的更替也引发人们心情的轮回。透过这一切，人们可以领悟到生活的真谛。我通过漫步，也在平凡中领悟到了人生的奥妙，度过了一个美好的一天。



자전거 여행

우자한(철도경영학과 4학년)



화창한 주말 아침, 나는 자전거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풍경이 아름다운 시골길을 선택했는데, 길 양쪽의 풍경이 그림 같아서 가슴이 탁 트이고 기분이 상쾌했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아침의 고요함과 상쾌함을 만끽했다. 좀 힘들기는 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가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빠른 속도를 유지하며 자전거를 탔다. 들뜬 이곳저곳을 가로질러 작은 언덕을 하나씩 넘었다.

다. 비록 가는 길이 힘들었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 길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은 친구에게 보여주었다. 사진을 보며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는 이번 자전거 여행을 통해 우리가 때로는 혼자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런 어려움을 겪어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자전거 여행은 나에게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 나의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공유하면 좋을지를 가르쳐 주었다.

自行车旅行

于子瀚(铁路经营学系 4年级)

在一个晴朗的周末早晨,我下定决心展开一场充满冒险与探索的骑行之旅。选择了一条蜿蜒曲折、风景秀丽的乡村小路,两旁的风景如同一幅绝美的画卷,让人仿佛沉浸在宁静祥和的世界中。

骑着自行车,我感受着清晨的宁静和空气的清新,仿佛进入了一个梦幻般的场景。尽管身体有些疲惫,但我坚持着,渴望证明自己有足够的毅力。于是,我保持着较快的速度,一个人独自驰骋在宁静的小路上。穿过一片片青翠的田野,翻越一个个小山丘,路途中的一切辛苦都在见证美丽风景的瞬间变得微不足道。

回到家后,我兴奋地向朋友展示了我在途中拍摄的照片和视频。我们聚在一起,分享着各自的故事和感受,享受这份独特的快乐。这次骑行不仅让我领略到大自然的美妙,更深刻地认识到,有时候,我们需要独自面对一些困难和挑战。只有经历过这些,我们才能真正地成长和进步。

我也学到了如何在困难面前坚持不懈,以及如何与他人分享我的经历和感受。这次骑行成为我生命中一段珍贵的经历,激发了我对自我探索和冒险的无限热情。



한국 유학 생활기

정자의 (미디어디자인·영상전공 2학년)

올해는 2023년입니다. 올해 8월 9일에 한국에 왔습니다. 저의 한국 유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적응을 못 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생활 습관과 음식 문화가 다릅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조금 배워서 기초 단어를 조금 압니다. 그래서 개학 전에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빨리 지나 개학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에 따라 반을 나누었는데 저는 집중1반 기초반에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학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매년 10월 개교기념일에 학교 축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연예인을 초청합니다. 학교와 동아리에서 주최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두 만들기 활동도 있었는데 이 활동으로 친구들과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 중국보다 물가가 몇 배는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손에는 몇 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물가가 비싸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날 지출을 계산해 보고 놀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약을 해서 지출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6개월 동안 잊지 못할 기억들이 많이 있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자신감을 더 키워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韩国留学记

程子仪 (媒体设计影像专业 2年级)



今年是2023年,在今年的8.9号我来到了韩国开始了我的留学生活,刚到韩国还有些不适应。跟在中国的饮食习惯,生活作息都大不相同。由于来韩前学习了不到一个月的韩语,会些基础词语,所以开学前天的生活里,能照应好自己。

时间过的飞快,就来到了开学这天,通过韩语等级来给我们分了班,我在O基础的1班。开始了一个学期的语言学习。

韩国大学的业余生活丰富多彩,每年的10月份都会举行校庆并邀请韩国艺人来校助兴。学校还有社团会有很多爱好者根据自己喜好去报名参加。还有包饺子活动,还可以增加同学之间的友谊。

韩国是个发达国家,消费水平很高,物价是国内的好几倍。由于刚来不久手里拿着几百万的韩元。所以就忘记了韩国物价高这一回事,直到有一天我算了一下来韩开销,惊呆了自己。所以开始了节俭,降低了开销。消费才逐渐降了下来。

在韩国的这半年里,给我留下很多难忘的记忆,也让我学会了更多。我相信接下来的一年里,我会学到更多东西,增强自信心,让自己变得更优秀。

나의 유학생할

곽아아 (국제경영학과 1학년)

저는 2023년 9월에 처음 한국에 와서 4년간의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하게 되면서 “처음”하게 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것도, 집을 얻는 것도, 부모님과 떨어져서 사는 것도 모두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밤 11시쯤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 안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중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학생할을 아름답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유학생할을 하고 있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쁜 소식은 알리지 말고 좋은 소식만 알려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유학생 여러분, 학업이 끝날 때까지 부디 건강하게 유학 생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我的韩国生活

郭丫丫 (国际经营专业 1年级)



2023년 9월我第一次来到了韩国,即将开始我为期4年的大学生活。刚到韩国的这几个月我拥有了许多属于我自己的“第一次”。第一次独自生活,第一次租房子,第一次远离父母.第一次……

印象最深的是那天,当时已经是晚上11点了,我正在写作业,房间里突然全黑了。我很害怕,不知道该怎么办。我静下心来,给父母打电话。爸爸妈妈的话给了我许多力量,

让我不再害怕了,最后在父母的帮助下成功解决了问题。

在很多人眼里,留学生活都是美好的。但只有我们自己知道,在语言不通的异国他乡,大部分事情都是不容易的。以前不理解大人们所说的“报喜不报忧”,现在好像慢慢可以理解了。

最后,祝所有海外学子都能学成归来,身体健康。

우연히 만난 첫눈

좌자선(융합경영학과 4학년)

첫눈은 겨울의 첫 번째 약속으로 1년을 기다렸던 우리에게 은빛 옷을 보내왔다. 밥 한 끼 먹는 사이에 늦가을의 한국이 겨울로 접어들 줄은 몰랐다. 11월 17일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세종시에 중국요리를 맛있게 하는 식당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세종행 버스를 탔다. 한 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세종에 도착해서 그리던 중국 음식을 즐겁게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자 하늘에서 눈발이 날렸다. 세하얀 눈송이가 송이송이 내 어깨 위로 떨어졌다. 눈송이는 그리 크지 않지만 한송이 한송이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옛 친구가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이 첫눈이 찾아왔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운이 좋게도 친구들 중에 첫눈을 본 사람은 내가 처음이다.

대전으로 가는 길에 눈이 그쳤다. 약간 실망스러웠지만 잠시라도 첫눈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대전에 도착해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함박눈이 다시 내렸다. 동전만 한 눈송이가 내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손바닥으로 떨어질 뻔했다. 첫눈은 우리와 함께 대전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눈송이가 손바닥에 떨어져 얼음처럼 차갑다. 한국에 겨울이 왔다. 눈꽃과 함께 찾아온 차가운 바람, 입을 벌리고 숨을 내쉬면 하얀 입김이 나온다. 핸드폰을 꺼내 가로등 불빛 아래서 첫눈과 마주친 이 낭만적인 순간을 찍었다. 홀연히 2023년 겨울은 눈과 함께 소리 없이 다가왔다.



邂逅一场浪漫的初雪!

左紫璇(经营学专业 4年级)



初雪是冬天的第一个约定,送来了我们期盼一年的银装素裹。没想到一顿饭的功夫,深秋的韩国就进入了冬天。11月17日下课后,我们听说世宗有一家中国料理做得很好吃,就坐上了开往世宗的公交车。坐一个小时的公交车到达世宗后,愉快地吃到了自己想吃的中国料理。吃完饭一出来,天上就飘起了雪花。洁白的雪花纷纷落在我肩上。雪花虽然不大,但每一朵都能看清。初雪降临,仿佛很久没见的老朋友突然敲窗户一样。心里暖烘烘的。幸运的是,在朋友中看到初雪的人,我是第一个。

去大田的路上雪停了。虽然有点失望,但万幸的是能看到了第一场雪。到达大田后,我走回家,突然天又下了鹅毛般的大雪。一个铜钱大小的雪花在我头顶上,手心上,扑腾地飞舞在肩上。第一场雪是和我们一起回到大田的。雪花落在手心上冰凉,韩国冬天来了。和雪花一起吹来的寒风,张开嘴呼气的話,会发出白色的哈气。拿出手机在路灯的灯光下拍下了初雪相遇的浪漫瞬间。朦胧中,2023年冬天与雪相拥,悄无声息,款款而来。

나의 할머니

최마야 (테크노 미디어융합학부 3학년)



나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통해 배려와 위로, 다정함을 배웠다. 특히 할머니는 나에게 친절과 배려의 롤모델이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코로나가 발생했다. 할아버지께서 병에 걸렸고, 의사들이 할아버지를 살리려 노력했지만, 할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나셨다.

가족들의 충격은 매우 컸고, 그 충격이 희미해지기도 전에 할머니께서 아프시기 시작했다. 당시 간호나 의료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할머니를 간호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마야가 할머니의 뿌리가 있는 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할머니는 한국에서 살고 싶었어.”

당시 할머니의 그런 말씀들이 유언처럼 들렸고, 내 사명 같이 느껴졌다. 할머니는 이틀 뒤 중환자실로 가셨고, 무선 통신 장치를 통해 마지막 말을 전하셨다.

“마야, 사랑한다. 할머니는 늘 마야 곁에 있어!”

나는 할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한 그날 이후, 할머니의 바람을 꼭 이루어드리겠다고 다짐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3년이 흘렀다. 나는 지금 한국에 있다.

“할머니, 저 보고 계시지요? 할머니가 오고 싶어 하셨던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면 힘이 나요. 할머니 바람처럼 한국에서 예쁘게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주신 영혼의 뿌리가 있는 이곳에서 아주 멋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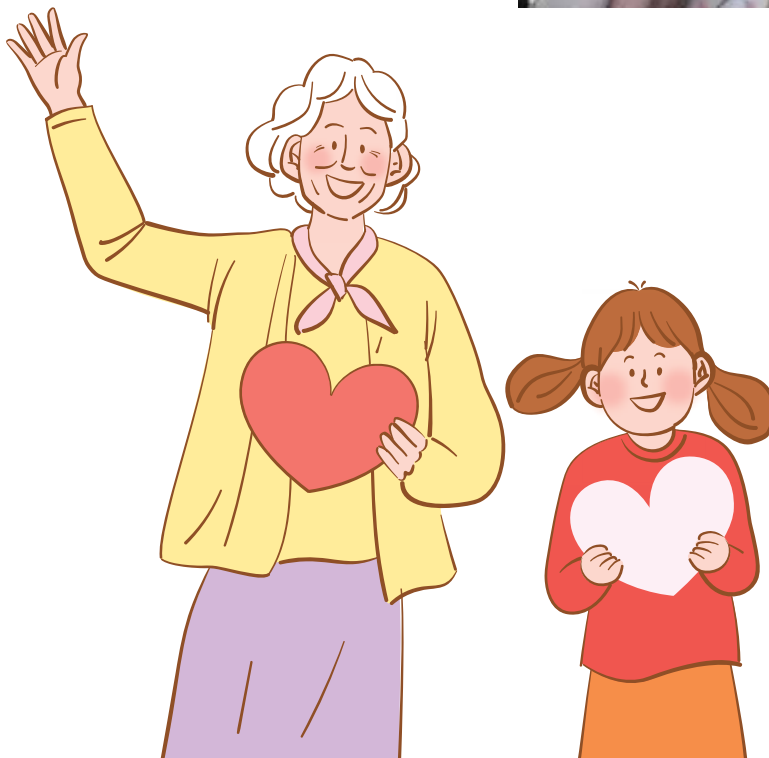
나는 할머니의 소망이 제 인생에 마법처럼 작동해서, 내가 한국에 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행복하게, 유학 생활을 마치고 싶다.

Моя Бабушка

Tsoi Maia

(Global Media, and Communication Arts 3th-year)

С моей бабушкой связано множество ценных воспоминаний : уважение к окружающим, забота, любовь и непреклонная доброта. Когда пандемия COVID-19 охватила мир, мы потеряли дедушку, а затем и бабушку, чье здоровье ухудшалось из-за недостатка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Ее последние слова были наполнены любовью и желанием: она мечтала жить в Корее, стране ее истоков. Это стало для меня Три года спустя я здесь, в Корее, учусь так, как она всегда хотела. Невзирая на трудности, воспоминания о бабушке дают мне силы. Я верю, что ее желание сбылось в моей жизни, и это стало моей целью, завершить обучение за границей, чтобы почтить ее память и увековечить ее желание.



아름다운 만남

사라(엔디콧자울융합학부 2학년)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K-POP 광신자였다. 어느 날 한국 댄스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한국어가 들렸다. 처음 한국 사람을 본 거라 너무 신기해서 드라마를 통해 배운 대로 "안녕하세요?"라고 말다. 그 때, 한 오빠가 "너희 집에 놀러 갈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나는 무조건 오케이를 하고 집으로 한국인 네 사람을 데리고 갔다.

그날 엄마한테 엄청 혼났다. 엄마는 청소도 안 했고, 요리도 안 했는데 손님을 데리고 왔다고 눈을 흘겼다. 그런데 할머니는 저와 같이 너무나 즐거워하셨다. 내 동생과 사촌까지 합류해서 한국 게임을 했다. 아빠가 퇴근하셔서 함께 튀니지 음식을 먹고 해변을 산책했다.

한국 여행객 네 사람은 우리 집에서 이틀을 보냈다. 다른 지방으로 가면서 한국 마스크 팩을 선물로 주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인의 피부 관리 노하우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 웃면서 헤어졌다. 그런데 놀라운 운명 같은 일이 다시 한번 벌어졌다. 오빠, 언니들이 튀니지의 다른 도시를 관광하다가 나에게 전화를 했는데, 내가 그때 그 지방에 있었다. 우리는 다시 만났고 헤어질 때 오빠, 언니들이 저에게 말했다.

"사라야, 우리 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

"사라가 마음만 먹으면 한국에 유학 올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라 할 수 있어."

나는 지금 오빠 언니들 말처럼 한국에 있다. 한국에 오자마자 전화를 했고 다시 만났다. 고등학교 때 "안녕하세요?"라고 말한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었다. 나는 이 인연을 소중하게 이어나갈 것이다.



ليمجال عاقل

Sarra Zghid (K-POP Arts Management 2nd year)



ةسردملا يف تنك امدنع
يكلاب ةسووهم تنك ،ةيوناثلا
بوب.

تنك امدنع مايالا نم موي يف
ةصح رثا لزنملا ىلا ةدئاع
تعمس ،يروكلا صقرلل نييرمت
تيأرو ،ةيروكلا ةغللاب تاملك
،يماما ايروك اصخش ةرم لوال
ةيروكلا ةغللاب آبجرمب تييح
اماردلا نم اهتملعت يتلا
ةيروكلا.

يتقفارم مهنالكماپ ناك ول ةوخالا دجا يفنم بلط مويلا كالأ يف
نكل ،يتدل او بصغ راثا امم ،ريكتفت ىندأ نود تلبق اعبط ،لزنملا
امهلالخ انكراشت نيئرار نييموي انيضقو ،مهراري زب تدعس يتدج
ةيسنوت تابجوو ةيروك اباعلا

ةرشبالب ةيانعل يف سرد لوا كالأ ناكو ةيروك هجو ةعنقا يندودها
،عومدلاب انضعب انعدوو ليحرلا تقو ناج .ةيروكلا ةقيرطلا ىلع
مهنم تيقلت امدنع مايالا دعب ادجم يفتلن نا ردقلا عاش نكل
مهودجو ناكل مل ةرواچم ةنيديم يف تنكو الاصتا

كنأ انيدهاع ةراس "يل اولاق ليحرلا تقو ناج نيحو ادجم انيقتلاف
لضفب ايروك يف انا ،نالا . " ام اموي ايروك ىلا نيئاتاس
ليمجال عاقل اذله دلخا ،مهعيجشت



인도네시아인의 한국 이야기

세티아완 오드리 클라리사(솔브릿지 경영학부 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드리입니다. 저는 18살입니다. 한국에 온 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공부하고 더 많이 한국에 대해 배우려고 했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서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어려운 순간과 즐거운 순간의 혼합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으로 나는 환영받는 느낌을 받아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3개월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지만, 한국에 도착했을 때에도 한국어를 어떻게 말하는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다행히도, 사람들은 내 의도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어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항상 한국에 가서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음식, 옷, 메이크업, 음악, 드라마, K-POP 등 한국에 관한 모든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인도네시아와 매우 다릅니다.

지난 네 달 동안, 나는 현대성과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나라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음식은 맛이 다양하고 매우 맛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김밥과 만두입니다. 이곳에는 메이크업과 스킨케어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꽤 비싸지만 제 피부에 정말 잘 맞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보다 작은 나라지만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주변 도시와 관광지를 다니면서 한국의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홍대에도 갔습니다. 거기엔 좋은 옷이 많아서 샀습니다. 한국에는 멋지고 패셔너블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용인 한국민속촌에 가서 한복도 입어보고 여기저기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한국민속촌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에 갔는데 정말 독특했습니다. 거기에 재미있는 드라마 명소도 있는 걸 봤습니다. 아직 방문하지 않은 한국의 많은 곳이 있습니다.

지난 네 달 동안 나의 학문이 풍부해졌을 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와 개인적인 성장에 대한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의 경험은 정말 흥미롭고 정말 좋았습니다.



Kisah Orang Indonesia di Korea

Setiawan Audrey Clarissa (Solbridge business department 1st year)



Halo semuanya! Namaku Audrey. Saya berumur 18 tahun. Sudah 4 bulan sejak saya datang ke Korea. Saya datang ke Korea untuk belajar bisnis dan belajar lebih banyak tentang Korea. Menyesuaikan diri dengan kehidupan sehari-hari di lingkungan baru ini adalah kombinasi momen yang sulit dan menyenangkan. Kehangatan dan

keramahan masyarakat Korea membuat saya merasa disambut dan membantu saya beradaptasi lebih mudah dengan latar belakang Indonesia saya. Walaupun saya sudah belajar bahasa Korea selama 3 bulan sebelum datang ke sini, saya masih bingung bagaimana cara berbicara bahasa Korea ketika saya tiba di Korea. Namun seiring berjalannya waktu, saya mulai terbiasa mendengar bahasa Korea. Saya selalu ingin pergi ke Korea dan belajar tentang budayanya. Baik itu makanan, pakaian, tata rias, musik, drama, K-POP, saya tertarik dengan segala hal tentang Korea. Budaya di Korea sangat berbeda dengan Indonesia. Selama empat bulan terakhir, saya kagum pada perpaduan harmonis antara modernitas dan tradisi di negara ini. Makanan di Korea memiliki rasa yang berbeda-beda dan sangat lezat. Makanan favorit saya di sini adalah kimbab dan mandu. Ada banyak sekali produk makeup dan skincare di sini. Dan beberapa di antaranya bekerja dengan sangat baik di kulit saya meskipun harganya cukup mahal. Meskipun Korea adalah negara yang lebih kecil dari Indonesia, ada banyak tempat yang bisa Anda kunjungi. Menjelajahi kota-kota dan objek wisata sekitar memungkinkan saya untuk mendapatkan pemahaman baru tentang keindahan Korea Selatan. Saya pernah ke Seoul dan pergi ke Hongdae. Ada banyak pakaian bagus di sana dan saya membelinya. Di Korea, banyak orang memakai pakaian bagus dan modis. Saya juga pergi ke Yongin Korean Village Folk dan mencoba hanbok serta mengambil foto di berbagai tempat di sana. Saya pergi ke museum yang menunjukkan sejarah Desa Rakyat Korea dan itu sangat unik. Saya melihat ada atraksi drama lucu di sana juga. Masih ada banyak tempat di Korea yang belum saya kunjungi. Empat bulan ini tidak hanya memperkaya pencapaian akademis saya tetapi juga membuat kenangan tak terlupakan dalam pertukaran budaya dan pertumbuhan pribadi. Pengalaman saya selama di Korea sungguh menarik dan saya sangat menyukainya.

내가 좋아하는 한국

태민(솔브릿지 경영학부 2학년)

한국에 오기 전에 한 번 비자가 거절되어 올해 처음으로 도착한 대학생으로서, 한국에서 생활하게 되어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항상 꿈꾸어 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정말 행복한 순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날 도착해서 나는 친구와 함께 대전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나에게 대전의 모든 명소를 보여주었고, 우리는 집 근처에 있는 '알촌'이라는 가게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 가게의 주인은 우리가 무슬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돼지고기 없는 음식을 제공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정말로 감동을 받았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특별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언어적인 차이와 문화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도전과 경험이 가득한 여정이지만, 나에게서는 큰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의 삶을 통해 다양성을 경험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나는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며,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Менин ссүйүктүкүү Корея

Темирлан(Бизнес 2 курс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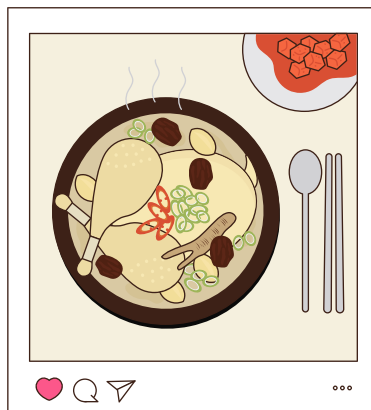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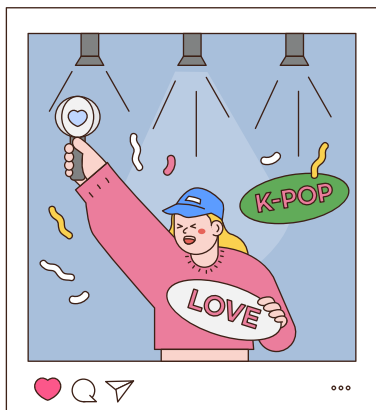


Кореяга келгенге чейин визам бир жолу четке кагылгандыктан быйыл биринчи жолу келген колледждин студенти катары мен Кореяда жашап жатканыма кубанычтамын. Кореядагы жашоо мен көптөн бери кыялданчу нерсе болчу, андыктан бул жакка келгени

чындап бактылуу көз ирмем болду.

Биринчи күнү келгенде досум менен Тежон шаарынын борборун кыдырып чыктым. Ал мага Тежондун бардык аттракциондорун көрсөтүп, үйүмдүн жанындагы "Альчон" деген ресторанда тамактандык. Бул ресторандын ээси биздин мусулман экенибизди эске алып, чочконун эти жок тамак-аш менен камсыз кылган. Ошол учурда мен чындап толкунданып, Кореядагы жашоо өзгөчө жана көп түрдүү экенин түшүндүм. Ошондой эле ар кандай маданияттар менен таанышууга жана жаңы достор менен таанышууга мүмкүнчүлүк алдым. Тил жана маданий айырмачылыктарга карабастан, мен ар кыл улуттагы достор менен баарлашып, бири-бирибизден үйрөнүп, өсүү мүмкүнчүлүгүм болду.

Кореяда жашоо - бул жаңы кыйынчылыктарга жана тажрыйбаларга толгон саякат, бирок бул мага чоң канааттануу тартуулайт. Бул жерде жашоо мага ар түрдүүлүктү сезип, дүйнөгө жаңы көз караш менен кароого мүмкүнчүлүк берди. Көбүрөөк адамдар менен баарлашып, корей маданиятын тереңирээк түшүнүп, ө



한국 문화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인지 부조화

발레리아(솔브릿지 경영학부 1학년)



새로운 규칙, 지식, 느낌으로 새로운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신념과 우리가 익숙한 규범과 우리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행동과 상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로 우리가 다른 세계로 뛰어 들고 다른 문화적인 관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러시아 문화를 가진 사람이 경험해야 하는 가장 분명한 인지 부조화는 지역 사람들의 호의와 기쁨입니다. 특히 낯선 사람에 대한 밝은 감정의 표하는 것은 러시아 사회에서는 없습니다. 낯선 사람한테서 칭찬을 받거나 버스 운전기사의 환영에 놀라고 이는 인지 부조화의 원인이 됩니다.

한국에서, 특히 대전에 더디고 차분한 생활도 주목할 만합니다. 러시아와는 달리 이곳 사람들은 많은 일에 부담을 느끼며 서두르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더 조용한 생활에 적응하고 끊임없이 서두르지 않는 것에 적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지 부조화는 한국에 대기열이 꽤 많은 것입니다. 많은 카페와 레스토랑의 필수적인 부분은 거대한 줄입니다. 특히 장소가 유행하는 곳이거나 인기가 많으면 이곳을 방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카페나 레스토랑과 같은 시설이 현저히 적응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은 러시아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문화는 항상 인지 부조화를 유발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보고 분석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상충되는 관념으로 인해 있는 불편함은 완전히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느낌과 경험입니다.

КОГНИТИВНЫЙ ДИССОНАНС В ПРОЦЕССЕ ПОГРУЖЕНИЯ В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Valeriia Skvortcova (Б и з н е с 1 к у р с у)

Новая культура – это всегда новые правила, знания, и совершенно новые ощущения, противоречащие нашим уже сформировавшимся убеждениям, нормам, по которым мы привыкли жить, и действиям, которые стали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нашей повседневной рутины. Новая культура позволяет нам окунуться в иной мир и взглянуть на иные культурные обычаи, что в последствие позволяет людям столкнуться с когнитивным диссонансом.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явных когнитивных диссонансов, который вынужден испытать человек с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ой, является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сть и радушие местных людей. Проявление ярких эмоций, в особенност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незнакомым людям, не свойственно русскому обществу. Compliment от незнакомца человека, приветствие от водителя автобуса – то, что удивляет и способствует возникновению диссонанса.

Также стоит выделить и более размеренный и спокойный темп жизни в Корее, особенно в Тэджоне. Здесь люди не привыкли куда-то торопиться, обремененные множеством дел, как это происходит в России.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людям из России зачастую довольно сложно перестроиться на более размеренный и спокойный ритм жизни и привыкнуть к отсутствию постоянной спешки.

Не менее важным диссонансом является и очереди, которых довольно много в Корее.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многих заведений, в частности кафе и ресторанов, являются очереди. Особенно если место обрело популярность или стало трендом, попасть туда будет довольно затруднительно. Данное явление все еще не характерно для общества России,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заведений вроде кафе и ресторанов существенно меньше.

Новая культура – это всегда когнитивный диссонанс, который позволяет нам посмотреть на вещи под другим углом,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и многое переосмыслить. Дискомфорт, вызванный столкновением в нашем сознании конфликтующих представлений, характерен для процесса адаптации к абсолютно новой реальности — это не плохо, это новые ощущения и новый опыт.



집의 의미

야몬푸 (솔브릿지 경영학부 2학년)

한국의 부산 해운대 비치의 모래사장에 앉아, 햇빛 가득한 토요일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서 앉아서 펜을 들고, 나만의 집에 편지를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럼, 집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안전한 안식처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집은 그저 벽돌과 시멘트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곳은 가족이 이야기를 만들고 함께 따스한 애정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나의 집에는 어머니, 아버지, 오빠, 그리고 나로 이루어진 네 명의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통 무용 대회, 동생의 졸업식, 나의 고등학교 졸업식 등 언제나 지원해 줄 때마다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머무르면서, 두 번째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멋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솔브릿지를 통해 첫 면접과 첫 직장을 얻었고,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과 오래가는 우정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대전을 탐험하고 영화를 보며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 가족을 찾았다는 것은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은 물리적인 장소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감정입니다. 나에게 집 같은 느낌을 주는 하나의 방법은 음식입니다. 나는 내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지만, 한국 요리에도 빠져들었습니다. 내 부모님도 한국 음식을 시식한 후에 정말로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비빔밥, 불고기, 김치 등 일부 인기있는 한국 음식을 즐겼습니다.

마무리로, 집은 한 곳이나 특정한 그룹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 연결, 그리고 따뜻함의 원천입니다. 나는 고향에 있는 가족, 한국에서 찾은 두 번째 가족, 그리고 오래전부터 사랑한 도시와의 연결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들이 세게 어디에서든 어떤 장소가 집 같이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e meaning of Home

Ya Mone Phoo (Solbridge business department 2nd year)



Sit on the sandy beach at Haeundae Beach in Busan, Korea, and imagine a Saturday morning full of sunlight. I'm ready to write a letter to my own home, holding the pen I'm getting off there.

Then, you may be wondering what the house is. Most people will describe the house as a safe haven and a comfortable space where we can be ourselves. But

to me, a house means more than just bricks and cement: This is a sanctuary where families make stories and share warm affection together. There are four family members in my house, my mother, father, brother, and me. They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my life and never let me down whenever they support traditional dance contests, my brother's graduation, my high school graduation.

While staying in Korea, I met some wonderful people who I could call my second family. Through SolBridge, I got my first interview and my first job, and I built a long-lasting friendship with my hard-working colleagues. We explored Daejeon, watched movies, and sang songs together. Finding a second family in Korea was a beautiful experience.

But home isn't just a physical place; it's a heart-warming feeling. One way to give me a feeling like home is food. I miss the taste of my hometown, but I'm into Korean cuisine. I think my parents will also really like Korean food after tasting it. I enjoyed some popular Korean food such as bibimbap, bulgogi, and kimchi.

To conclude, the house is not limited to one place or a specific group. It is a source of emotion, connection, and warmth. I cherish the connection with my family back home, my second family I visited in Korea, and my long-loved city. These are what makes a place feel like home anywhere in the world.



한국 유학 생활을 잘 보내는 방법

찬티다 (솔브릿지 경영학부 4학년)



저는 한국 유학생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세가지 방법을 추천하고 싶어요.

첫 번째, 한국에 유학생활을 오기 전
에 한국 문화를 알아보고 이해해야 해
요. 문화를 알아 두면 유학 생활 중 뜻하
지 않은 실수를 줄일 수 있고 한국 사람
과 친해지는 데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어른들에 대한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런 어른 공경 문
화를 모르면 예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
어요.

두 번째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좋아요. 간단한 일상 대화 정도만 할 수 있다면 한국에 살며 한국 사람과 의사소통하기에 훨씬 편할 거예요. 유학 생활 이후 한국에서 살고 취업을 하고 싶으면 TOPIK 시험을 준비해보세요. 높은 레벨의 TOPIK 점수를 받는다면 졸업 후 취업을 할 때에 큰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대학교에 가면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이 좋아요. 한국 사람과 친해
진다면 더욱 좋아요. 그들과 대화하며 한국어 실력을 늘릴 수 있고, 한국 생활 적
응을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또, 유학생들 중 외롭지 않을 거에
요.

저는 이러한 방법들이 유익하고 행복한 유학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해요. 한국은 사계절이 시시각각 다른 아름다운 나라예요. 유학 생활을 하며 한국만의 다양한 매력을 느꼈으면 해요.



រៀននេះ ៗ បង្ហាញពីការប្រើប្រាស់
សិល្បៈក្នុងការបង្ហាញពីអារម្មណ៍?

Heang Pech Chanthida (Solbridge business department 4th year)

[illegible][illegible][illegible]

내가 만난 한국

귀자청 (글로벌융합비즈니스학과 3학년)

나는 한국에 와서 대만과는 다른 몇 가지를 느끼게 됐다. 첫 번째는 기후이다. 한국은 대만보다 추워서 대만에서는 거의 입을 일이 없는 긴 코트나 털목도리, 모자 등을 자주 입게 된다. 한국에 도착한 날도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코트에 목도리, 장갑을 하고 공항을 빠져나왔다.

고속도로 양쪽 옆에는 눈꽃이 어렴풋이 내리고, 가로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한국에서는 겨울에 '삼한사온'이 흔한 현상이다. 즉, 연속 3일간의 강추위 후에는 4일간 따뜻한 날씨가 온다는 뜻이다. 나는 서울에서 직접 영하의 날씨를 체험해 볼 수 있었다. 은백색의 산간지대에서는 심지어 영하 2도까지 내려가서, 나는 지금까지 타 본 적 없는 스키의 즐거움을 맛보았다. 실제로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도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두 번째로 다른 점은 음식이다. 끼니마다 김치, 배추, 오이, 콩나물, 다시마 ... 가지각색의 다양한 음식이 많다. 그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흰 무로 만든 김치인데 맛이 새콤달콤하며 전혀 맵지 않다. 참쌀밥을 가득 넣은 인삼으로 만든 삼계탕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이다. 특히 추운 겨울에 먹으면 정말 꿀맛이다.

我遇见的韩国

郭嘉城 (全球管理融合商务 3年纪)

抵达韩国后, 我立刻感受到与台湾截然不同的几个显著特点. 首先, 气候方面的差异让我感到身临其境. 相比台湾温暖的气候, 韩国更为寒冷, 迫使我频繁穿上在台湾几乎用不到的长外套、毛围巾和帽子. 抵达的当天, 我就看到许多人穿着厚重的大衣、围巾、手套离开机场, 对这种寒冷的适应程度令我略感吃惊.

沿着高速公路驶行, 两侧的林荫树下飘落的雪花在阳光的映衬下闪烁微光, 尽管景色单调, 但仍散发出一种宁静而美丽的氛围. 在韩国, 冬季的"三寒四温"现象颇为常见, 连续三天的严寒过后, 会迎来四天的温暖天气. 在首尔亲身体验了零下的天气, 尤其是在银装素裹的山区, 气温甚至降至零下2度, 我感受到了滑雪的乐趣, 尝试着堆雪人、打雪仗, 度过了一段充实而有趣的时光.

其次, 食物文化的差异也深深吸引了我. 每餐都丰富多彩泡菜, 白菜、黄瓜、豆芽、海带等各种食材琳琅满目. 我特别喜欢用白萝卜制作的泡菜, 其酸甜可口的味道令我陶醉其中, 更为惊喜的是, 一点辣味也没有. 另外, 放满糯米饭的人参鸡汤成为我钟爱的美食之一, 尤其在严寒的冬天享用, 格外美味.



즐거움 속에서 공부하기

장한문(유아교육과 1학년)



2023년 가을 한국에 왔습니다. 낯선 나라, 새로운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하기, 듣기, 읽기를 공부하면서 힘들 것도 있었고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국어 학습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말하기입니다.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저는 매일 단어를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문장부터 시작해서 본문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큰소리로 읽는 겁니다.

둘째는 듣기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뮤지컬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어 버전의 클래식 뮤지컬을 들었습니다. 음악과 함께 하면 언어의 매력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저는 한국 예능을 보면서 듣기 연습합니다. 그래서 긴장하지 않고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읽기입니다. 저는 항상 책이 여러 언어를 연결하는 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작은 더 그렇습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언어마다 다른 맛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어 버전의 '어린 왕자'를 읽고 있는데 아직 문법과 단어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읽기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공부는 재미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즐거움 속에서 공부하고, 공부 속에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在快乐中学习

张瀚文(幼儿教育专业 1 學年)

2023年秋天我来到了韩国，到了陌生的国家和新的环境中最重要的就是语言。我在学习口语，听力，阅读的过程中，虽然很辛苦，但也学到了很多。所以我想和大家分享一下我所知道的韩语学习方法。

首先是口语，刚开始学习韩语的时候，每天都会练习读单词。后来从简单的文章到复杂的课文都学习了，这个时候最重要的是要大声的读出来。

第二部分是听力，这是我最喜欢的部分。我非常喜欢听音乐剧，所以去找了韩文版本的经典音乐剧来听。像这样伴随着音乐，能更好的体会专属语言的魅力。有时间的话，我会边看韩国综艺边锻炼听力，所以可以不用那么紧绷着神经进行学习。

第三个部分是阅读，我一直认为书籍是链接各种语言的桥梁，名著更是如此。虽然是同样的故事情节但在不同的语言中却绽放着各自的光彩。最近我在看韩语版的《小王子》，虽然语法和单词还不太理解，但是对于锻炼阅读理解的学习很有帮助。

学习应该是有趣的，我们要找到适合自己的学习方式。在快乐中学习，在学习中快乐!



한국 생활

미셀(솔브릿지 경영학부 3학년)

율리아(솔브릿지 경영학부 2학년)



미셀: 안녕하세요?

율리아: 안녕하세요?

미셀: 율리아 씨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는지 여쭙봐도 될까요?

율리아: 저는 한국에 온 지 2년 됐어요. 미셀 씨는요?

미셀: 저는 한국에 2021년 2월에 왔으니까 거의 3년이 다 됐어요.

율리아: 와아, 오래 됐네요.

미셀: 네 맞아요. 가족이 보고 싶지만 지금은 여기서 공부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나중에 가족을 만나러 꼭 러시아 갔다 올 거예요. 저도 율리아 씨도 한국에서 긴 시간 살고 있는데 우리 한국 생활에 대해 얘기해 보는 게 어때요?

율리아: 좋아요.

미셀: 율리아 씨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떤 점이 힘들었어요?

율리아: 어, 일단은 저는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를 조금밖에 몰라서 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어로 말하기가 무서웠고, 항상 실수할까 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 영어로 의사소통했어요. 그런데 미셀 씨도 보시다시피 저는 고려인이어서 한국인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저를 한국인으로 오해하고 저한테 항상 한국말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는 “한국말 잘 못해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미셀: 그래요? 제 경우에도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힘든 점이 너무 많았거든요. 지금도 분명히 그런 점이 있지만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티가 안 나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매일 매일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어요. 그냥 “뭐 괜찮아, 내가 선택한 길이지, 한 일이 년 뒤에 좀 더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극복했어요.

율리아: 오, 신기해요. 미셀 씨는 이제 한국에서 산 지 3년이 됐는데 한국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나요?

미셀: 이제는 제가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서 제 삶의 퀄리티가 좀 좋아졌죠.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생겼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면 제 삶이 더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율리아 씨는요? 한국에 이민이 계시니까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는 과정은 좀 덜 힘들었을 것 같은데 궁금해요.

율리아: 네, 저희 친척들이 한국에 계셔서 아마도 다른 외국인들보다 저는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있는 친척들로부터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집밥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외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덕분에 한국 생활에 빨리 익숙해졌어요.

미셀: 그러면, 율리아 씨,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다른 유학생들과 공유할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율리아: 네, 좋아요. 첫 번째는 미리 한국어를 배우는 게 좋아요. 한국에 빨리 익숙해지고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 한국어가 필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영어만 알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에 한글이라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한국에 와 있으면 여기서도 한국어를 편하게 배울 수 있어요. 학교에서나 많은 외국인 주민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미셀: 네, 맞아요. 저도 한국인이 아닌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한국말을 아예 못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저에게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고 한국인들이 왜 영어를 못 하는지 궁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여기로 왔으니까 여기의 언어부터 문화까지 조금이라도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문화도 아주 신기하고 한글도 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아직 매일 매일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기도 할 거예요.

율리아: 네, 많은 친구들이 한국에서 재미있게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고 한국 친구들과 어떻게 사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일단은 카톡에서나 페이스북에서 많은 언어교환 그룹을 찾을 수 있어요. 언어교환 모임을 다니며 새로운 친구들도 사귄 수 있고 한국어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요. 또한 도시마다 외국인 주민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고 필요하신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대전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봉사 활동도 했고 다양한 행사도 가봤어요.

미셀: 맞아요! 한국에서 엄청 비싼 것은 뭔지 아세요? 바로 정보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학교를 통해 그런 소중한 정보를 받고 자기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럼, 율리아 씨, 혹시 한국에서 일을 할 생각이 있어요? 대학교 졸업한 뒤에 어떻게 하고 싶은지 궁금해요.

율리아: 네, 저는 졸업한 후에 한국에서 대학원에 가고 취직할 계획이에요. 미셀 씨는요?

미셀: 저도요. 원래 대학원에 갈 생각이 있었는데 마음 바꿨어요. 내년에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할 계획이에요. 그럼, 율리아 씨, 우리 얘기를 엄청 알차게 한 것 같죠? 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율리아: 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Жизнь в Корее

Мишель (Solbridge business department 3rd year)

Юлия (Solbridge business department 2nd year)

Мишель: Привет?

Юлия: Привет!

Мишель: Можно спросить, сколько времени вы уже в Корее, Юлия?

Юлия: Я здесь уже 2 года. А вы?

Мишель: Я приехала в Корею в феврале 2021 года, так что почти 3 года.

Юлия: Вау, довольно долго.

Мишель: Да, точно. Скучаю по семье, но сейчас усердно занимаюсь учебой и работой здесь. Обязательно поеду в Россию навестить семью как-нибудь позже. Юлия, и я, и вы прожили в Корее довольно долго, так что может поговорим о жизни здесь?

Юлия: Хорошо.

Мишель: Когда вы впервые приехали в Корею, с какими трудностями вы столкнулись?

Юлия: Когда я впервые приехала, мне было трудно из-за малого зн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Я боялась говорить по-корейски из-за страха ошибиться, так что изначально общалась на английском. Но, как вы видите, меня часто принимали за кореянку из-за моего внешнего вида, и люди говорили со мной на корейском. Когда я говорила, что не очень хорошо говорю по-корейски, их лица выражали путаницу.

Мишель: О правда? У меня тоже были трудности, когда я впервые приехала. Сейчас тоже, конечно же, нелегко, но в то время был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ложно. Я старалась не показывать свои трудности и думала: "Все будет хорошо, через год-два ситуация улучшится".

Юлия: О, интересно. Изменилась ли ваша жизнь после трех лет жизни тут?

Мишель: Теперь я уже привыкла к жизни в Корее, и качество моей жизни стало лучше. Я могу делать много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и у меня появились возможности зарабатывать деньги. Я верю, что если продолжу усердно работать, моя жизнь станет еще лучше. А как у вас, Юлия? У вас здесь есть тетя,

поэтому, наверное, адаптация к корейской жизни была менее сложной. Интересно, как вы это восприняли?

Юлия: Да, возможно, мне было немного легче из-за наличия родственников в Корее. Я получала поддержку и помощь от сво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имела возможность попробовать домашнюю кухню, так что я не чувствовала себя так одиноко и быстро освоилась.

Мишель: Тогда может поделимся нашим опытом с другими студентами-иностранцами. Как вы думаете?

Юлия: Да, хорошая идея. Во-первых, я думаю, что заранее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было бы полезным. Чтобы быстро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к жизни в Корее и успешно общаться с людьми,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является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Ведь если вы знаете только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повседневная жизнь может быть сложной. Поэтому я считаю, что было бы хорошо знать хотя бы основ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еред приездом. Но если вы уже здесь, вы также можете учи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осещая бесплатные уроки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или в местных центрах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Не упустите этот шанс.

Мишель: Да, верно. У меня тоже есть друзья, не являющиеся корейцами, среди которых есть те, кто вообще не говорит по-корейски, и те, кто знает язык немного. Когда они говорят мне, что им трудно здесь, и они удивляются, почему корейцы не говорят по-английски, я думаю, что важно учить язык и погружаться в местную культуру, поскольку мы приехали сюда.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удивительна, 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красив, поэтому я продолжаю учиться каждый день. Я уверена, если так делать, то корейцы будут вас уважать.

Юлия: Да, многие мои друзья спрашивают меня, как можно весело провести социальную жизнь в Корее и как завести друзей среди корейцев. Сначала, я думаю, что полезно искать группы по языковому обмену на KakaoTalk или Facebook. Присоединившись к таким встречам, вы можете завести новых друзей и весело учи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Кроме того, в каждом городе есть центры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Там вы можете участвовать в различных программах и получить необходимую помощь. Например, я участвовала в волонте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через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иностранцев в Тэджоне и посещала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Мишель: Правильно! Знаете, какая в Корее самая дорогая вещь? Информация! Поэтому получать ценную информацию через друзей или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и прилагать усилия для улучшения своей

жизни очень важно. Кстати, Юлия, какие у вас планы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университета?

Юлия: Я планирую поступить на магистратуру и затем найти работу в Корее.

Мишель: У меня тоже похожие планы. Изначально я думала о поступлении в магистратуру, но передумала. Планирую окончить университет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и сразу же устроиться на работу.

Итак, Юлия, кажется, у нас получилась очень интересная беседа, не так ли? Я бы хотела поговорить о многом еще, но, кажется, нужно заканчивать.

Юлия: Да, я согласна. Надеюсь, что наш разговор был полезен и другим.

한국에 처음인데,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해요?

아이씨타(솔브릿지 경영학부 1학년)



여러분, 안녕! 프랑스에서 온 21살 아이씨타라고 해요. 한국에 온 것이 처음인데,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해서 잘 살고 있어요. 2013년에 한류 물결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때부터 드라마를 보고, 음악도 듣고,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10년 후에, 한국에 공부하러 왔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면 방법이 많아요. 지금부터 반말 사용하면서 내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하나) 드라마는 너의 영원히 친구야!

꽃보다 남자, 개인의 취향, 드림하이, 내 사랑 싸가지... 이런 드라마하고 영화를 보면서 단어를 많이 배워야 돼. “안녕하세요”, “고마워”, “미안해요”, “사랑해” 드라마 덕분에 다 배웠어.

둘) 쓰고 읽는 것을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

웹페이지에 무료 한국어 수업이 많아. 이틀이면 한글을 배울 수 있어!

셋) 연습하자!

케이팝이나 발라드 음악의 가사로 재미있게 배우면 많이 발전할 수 있어.

넷) 혼자 이야기해도 좋아!

친구 없어도 괜찮아! 어떤 상황을 상상해 봐: 어떤 잘생긴 남자가 에펠 타워에 가는 길을 몰라서 너에게 물어봐. 어떻게 대답해?

다섯) 마지막 단계

한국 여행을 준비하고 여기에 오기 위해 최선을 다 해! 부자인 척해도 돼!

나는 대학교에 갈 때 교환학생이 되려고 경영대학교에 가는 것을 선택했어. 방법이 많아. 열심히 공부하면 너도 올 수 있고 잘 살 수 있어. 한 번 해 봐, 화이팅!

Premiere fois en Coree et pourtant si autonome!

Aissata Kobele KEITA(Solbridge business department 1st year)

Bonjour! Je suis Aissata. Je suis et je vis en France. J'ai été emportée par la vague Hallyu à l'âge de 11ans (2013) et cela m'a poussé à apprendre le coréen. Je vous partage aujourd'hui ma petite recette d'apprentissage (applicable en cas de pandémie).

- Les K-dramas sont votre amis!

Regardez des oeuvres coréennes sous-titrées telles que Boys Over Flower, Dream High, Personal Taste, ou encore 100 days with Mr. Arrogant. Certains mots faciles à retenir se répètent: Annyeonghaseyo (Bonjour), Gomawo(merci), Mianhae(desole), Saranghae(je t'aime), etc...

- Lire et écrire gratuitement avec “cours-de-coreen.com” : Vous y trouverez des cours bien rédigés : du vocabulaire , des conversations, des expressions et de la grammaire.

- Pratiquez en lisant bien les sous-titres de vos chansons k-pop et émissions préférées.

- Parlez seul.e dans votre chambre si vous n'avez pas d'amis

Imaginez des situations précises. Par exemple: un beau garçon vous demande son chemin, Que lui répondez-vous?

- Dernière étape, faites tout pour venir en Corée! J'y suis actuellement en échange universitaire et j'adore. Il existe de nombreuses méthodes et voilà la mienne. À votre tour ! Fighting!



우정

허호박 (Endicott 자율융합학부 2학년)

일상의 희미한 빛 속에서
나는 우정을 엮어 시를 만들었습니다.
슬픈 이별이 아니라,
평범함 속의 아름다움입니다.

친구는 영혼의 가족입니다.
다양한 지역, 성격, 경험,
인연은 우리를 만나게 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들은 하소연의 대상입니다.
술 마시는 친구입니다.
서로 다른 혈연의 형제입니다.
전생에 가장 사랑했던 연인입니다.

우정은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가장 진지한 축복이 필요합니다.
화려한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뜻한 인사 한마디,
그리고 따스한 눈빛.

잔을 들어봅시다.
마음씨 좋은 술 한 잔,
함께 비바람을 맞으며
우정의 세계에서는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깁니다.



友情

许皓博 (Endicott 自主融合学部 2年级)

在日常微光的映衬下，
我将友情编织成一首诗。
这并非悲伤的别离，
而是平凡中的绚烂。

朋友，是灵魂的亲人，
无论地域、性格、经历，
缘分使我们相聚，
成为人生中最珍贵的一部分。

他们是我们倾诉的对象，
是共饮时的知音，
是超越血缘的兄弟，
是前世最深刻的恋人。

友情需要呵护，
需要相信，
需要最真挚的祝福。
它不是华丽辞藻的陈列，
而是一句贴心的问候，
一瞬间心领神会的眼神。

让我们共同举杯，
品味一杯深情的酒，
共渡风雨，
在友谊的世界里，
留下属于我们的美好足迹。



한류, 한국문화 체험기

Hallyu, K-Pop, Korean Cultural Experiences

韩流, 韩国文化体验

Trải nghiệm văn hóa Hàn Quốc và làn sóng Hallyu

한국은 처음이지?

줄리아 마얀 (글로벌미디어 영상 2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문화를 뜨거운 마음으로 좋아하고 알아보고 싶은 러시아 학생, 줄리아라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열심히 한국어를 배워도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어 표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은 통화가 끝나고 전화를 끊을 때, “어, 알겠어, 들어가!” 또는 “쉬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표현들이 어색할 때가 아주 많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돌려서 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부탁할 경우, 상대방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아,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부탁을 들어 줄 가능성이 조금은 있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말은 ‘안 된다’라는 불가능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언어가 다르고 표현의 차이가 있다 보니 때로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차이를 알아가는 것도 한국생활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생활은 아주 편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에서는 아주머니가 제가 외국인인걸 아시고 항상 서비스를 주시거나, 시장에 가면 저를 보시고 “아이고, 예뻐라” 하시면서 과일도 더 주십니다. 한국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주위 어른들이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어디가? 빨리 집에 들어가.” 또는 “왜 이렇게 시원하게 입고 나왔어? 감기 걸려~”라는 조금은 투박한 말투로 따뜻함을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그게 바로 한국인만의 진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국 사람과 한국 문화를 통해 이러한 따뜻함을 가득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Is it your first time in Korea?

Martirosian Luliia (global media, second year)

Hello? I'm Julia, a Russian student who loves Korean culture with a hot heart and wants to learn it. Foreign students, including me, have many Korean expressions that are difficult to understand even if they learn Korean hard. For example, when Korean people hang up after a call, they often say “Uh, okay, get in!” or “take a rest”. I was confused when I first heard this. At first, such expressions were very awkward, but now they have adapted to a certain extent. And Korean people have the characteristic of speaking by twisting the meaning than speaking directly. For example, if you ask someone for a favor, the other person will say, “That's going to be a little difficult.” At first, when I first heard it I thought, ‘Oh, I think it's going to be difficult, but there's still a chance it'll work out,’ and as it turned out, it was their own way of simply saying ‘no’. Sometimes you get the wrong idea or opinion of the other person, and I think it's fun to know this difference in Korean life.

I think life in Korea is very comfortable and good for foreigners.

In the restaurant, cute ladies who work there can see that I'm a foreigner, and they always give me free stuff, or when I go to the market, they will look at me and say, “Oh, you're so pretty,” and give me more fruits as a gift. I think the Korean people are very warm compared to the Russian people. Sometimes I hear such words “No, what time is it now, where are you going? Get into the house quickly.” Or “Why did you come out dressed up like that? It's too cold! There are times when you show warmth in a little clunky tone, but I think that is a sincere expression of Korean people.

I hope you will feel this warmth through Korean people and Korean culture.

반짝이는 워터멜론

강송림 (미디어디자인·영상전공 3학년)



저는 중국에서 온 강송림입니다, 이제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 일상에 대해 조금 이해하게 되었고,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최근에 방영된 tv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시작 부분에서 남자 주인공의 가족이 소개하는데 가족들 중 남자 주인공 외에는 부모와 형이 모두 청각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남자 주인공은

가족이 외부와 교류하는 유일한 창이기도 합니다. 남자 주인공은 어렸을 때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지만 쉽게 꺾이지 않았고 또래들보다 한층 성숙합니다. 어느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귀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할아버지는 상처받은 주인공을 위로해 주고 좌절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뜻밖에 주인공이 기타에 소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배운 것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사고를 당하게 되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자신의 실수로 넘겨지지 못한 가정도 이사라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6년이 지났습니다. 주인공은 자라 부모님의 자랑이 되었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음악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바라는 것은 은결이가 공부에 전념하여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온 남자 주인공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 부모의 젊은 시절로 거슬러 젊었을 때의 부모를 만납니다. 이렇게 은결이에게 인생 변화의 기회가 찾아 오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 하은결이 꿈을 꾸는 끈기와 운명의 불공정함에 맞서는 정신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시대의 애정관은 우리가 현대에서 배울 가치가 있습니다, 언제나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현재를 소중히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가장 좋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생활과 맞서 싸울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좌절에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꿈을 고수하여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줄곧 걸어 가면 '반짝거리는 워터멜론'과 같이 자신의 인생에서 반짝 반짝 빛날 것입니다.

闪烁的西瓜

姜松林 (媒体设计影像专业 3年级)

我是来自中国的姜松林, 现在已经来到韩国三个月也了解了一部分韩国文化日常, 也被深深的吸引, 接下来我想向大家推荐一部最近上映的电视剧《闪烁的西瓜》, 也是我自己比较喜欢的一部韩剧。

剧中开头介绍了男主的家庭成员, 家庭中除男主外父母和哥哥都是患有聋哑的残障人士, 所以男主也是这个家庭与外界唯一交流的“窗户”。这也导致了男主的童年难免遭受欺凌, 可就算这样也没能轻易的将我们男主角河恩杰“击败”反而比同龄人更加的成熟, 收到欺凌后恩杰在回家的路上遇到了改变他一生的“贵人”, 老爷爷安抚了受伤的河恩杰教给了他面对挫折时应对的办法, 也意外发现了恩杰吉他方面的天赋, 并将自己所学毫无保留的教给了恩杰。

却因为这件事造成了意外也让恩杰十分内疚成为了一家人的心结。因为自己的失误也让本不富裕的家庭面临搬家这一难题。很快时间来到了六年后, 河恩杰也长大成人成为了父母的骄傲, 多年过去恩杰从来没有放弃自己的音乐梦, 但父母所期望的是恩杰能够把心思放在学习上成为一名医生, 因此恩杰和父亲大吵一架便离家而去, 可能是老天不想让恩杰这个吉他天才被掩埋一转眼男主竟穿越到了自己父母年轻时的年代。就这样恩杰改变人生的机会来了后面也发生了一系列有趣的故事。

我个人在这部剧里领悟了我们男主河恩杰所以梦想的执着和敢于面对命运的不公作斗争的精神。还有父母年轻时那个年代的爱情观是值得现代的我们学习的, 永远会有更好的人选但我们要学会珍惜当下, 因为当下便是最好。

最后希望大家也有敢于和生活作斗争的勇气, 不要轻易因挫折而困惑, 要坚持自己的梦想选择自己认为对的道路一直走下去, 就像“闪烁的西瓜”一样在自己的人生中闪闪发光!



제가 강추하는 한국 드라마

왕재기 (자유전공 1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전공 1학년에 재학 중인 왕재기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아주 좋아해서 한국 드라마를 여러 편 봤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본 드라마는 바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입니다.

저는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20년 넘게 쌓아온 우정이 부러웠습니다. 주인공들은 밴드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되고, 매주 일이 끝나고 나서 밴드 연습을 합니다. 그들을 보며 음악에 대한 열정, 삶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실에서 그런 친구를 만나면 반드시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대사 중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지나갈 겁니다.'라는 대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말은, 좋지 않은 일들도 언젠가는 분명 지나갈 테니 앞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장면과 대사들이 제 마음에 와 닿아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제 주변 친구들에게 추천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날 때 꼭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我强烈推荐韩剧

王梓淇 (自由专业一年级)



大家好，我是自由专业一年级在校王梓淇。我特别喜欢韩国电视剧了，看了好几部韩国电视剧。其中，我印象最深的电视剧就是“机智的医生生活”。

我很羡慕在电视剧中5名主人公之间积累了20多年的友情。主人公们因乐队而结缘，每周工作后也见面练习。看着他们，我能充分感受到他们对音乐的热情，对生活的热爱。我认为在现实生活中遇到

这样的朋友，一定要珍惜。

电视剧中“不管是好事还是坏事都会过去”的台词给我留下了深刻的印象，这句话暗示了人生会不断向前，即使现在发生了不好的事情也终究会过去。除此之外，还有很多场面和台词非常贴心，受到了很多启发。

所以我把这部电视剧推荐给了我身边的朋友们，希望大家有时间一定要看一看。

한국의 문화와 음식

여철호 (뷰티디자인경영학과 3학년)

한국에 온 지 두 달 동안 저는 한국 문화를 마주하면서 중국과 비슷한 것도 있지만 조금은 다른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예의와 음식에 대한 애정은 제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한국의 생활 방식은 중국과 차이가 큼니다. 한국 사람들은 개인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하는 데 주의를 기울입니다. 예의를 중시하는 이런 문화와 분위기가 조금은 낯설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저는 몇 가지 어려움과 도전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현지인들과 교류하고 배우면서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통과 교류'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소통을 통해서만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다른 문화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의 음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단순하게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음식에는 건강뿐만 아니라 보이는 아름다움과 먹는 사람들의 행복까지 생각합니다.

한국의 불고기, 김치, 비빔밥과 같은 전통 음식을 보더라도 맛은 물론 건강과 식감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맛보면서 한국인들의 음식에 대한 집착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韩国的饮食文化

吕哲昊 (美容设计经营学系 3年级)



来到韩国的两个月里，接触了韩国文化。我学到了一些与中国相似的东西，但也有一些不同的东西，特别是韩国人的礼仪和对饮食的热爱深深打动了我心。

韩国的生活方式和中国有很大的差异。在韩国，虽然个人很重要，但与其他人的关系也很重要。韩国人注意保持安静，不要在公共场所打扰别人。这种重视礼仪的文化和氛围虽然有点陌生，却也引发了

了我的思考。

在适应韩国生活的过程中，我遇到了一些困难和挑战。不过通过和当地人交流和学习，逐渐克服了困难。在此过程中，我深切地感受到了“沟通与交流”的重要性。我认为只有通过沟通，我们才能更好地了解彼此，更好地适应不同的文化环境。

另外，韩国的食物给我留下了深刻的印象。韩国人好像不认为食物只是单纯地吃，韩国饮食不仅考虑健康，还考虑看得见的美丽和吃的人的幸福。

从韩国的烤肉，辛奇，拌饭等传统食物来看，不仅味道好、健康、口感也很丰富。品尝这些食物的同时，感受到了韩国人对食物的执着和热爱。

SEVENTEEN 유네스코에 가다!

양자명(경영학 4학년)



여러분, SEVENTEEN을 아십니까? SEVENTEEN은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입니다. 멤버는 모두 13명이고, 한국, 중국, 미국 세 나라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유네스코에 초청되어 강연을 했습니다. SEVENTEEN의 강연은 그들이 그동안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작은 지하실에서부터 고층빌딩으로 올라가기까지 그

길의 어려움과 고난은 그들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의 꿈을 위해 밤낮을 얼마나 버텼는지, 내일은 틀림없이 데뷔할 수 있다는 것을 매일 알리고 끊임없이 격려하며 서로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큰 무대에 올라 SEVENTEEN, 그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유네스코로 갑니다. 이번 강연에서 민규는 SEVENTEEN이 데뷔 후 받은 첫 월급으로 13명의 멤버 수와 같이 야기 염소 13마리를 구입해 아프리카 탄자니아 어린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생계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후, 한 아이가 염소와 함께 사진을 찍어서 “내 꿈을 위해 이 염소를 잘 키우겠다”는 내용과 함께 SEVENTEEN에게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 염소는 삶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꿈이기도 할 것입니다. 승관, 조슈아, 버논 역시 SEVENTEEN의 성장 스토리를 전하며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SEVENTEEN去联合国教科文组织

杨子铭(经营学 4年级)

大家知道SEVENTEEN吗?SEVENTEEN是我最喜欢的偶像歌手组合。成员共有13人,有韩国、中国、美国三个国家的人。

他们最近受邀到联合国教科文组织演讲。SEVENTEEN的演讲告诉我们他们是如何成长的。从小地下室到高楼大厦,这条路的艰难和辛苦只有他们知道。为了心中的梦想,熬了多少昼夜,每天告诉自己明天一定可以出道,不断鼓励,给彼此希望。现在,他们登上了更大的舞台,SEVENTEEN,带着他们的故事来到联合国教科文组织。在这次演讲中,珉奎以SEVENTEEN出道后收到的第一份薪水,和12名成员一起,将13只山羊宝宝捐赠给非洲坦桑尼亚的儿童,以供他们养活。不久之后,一个孩子和山羊合影,写了一封信给SEVENTEEN,上面写着“为了我的梦想,我会好好养这只山羊”。对他们来说,这只山羊不仅是生活的基础,也是梦想。胜宽,知秀,瀚率也讲述了SEVENTEEN的成长故事,鼓励年轻人拥有梦想并奔向未来。SEVENTEEN从来不言放弃,他们保持积极乐观的态度,满怀饱满的激情和向前奔跑的勇气,从出道到今天成功站到联合国讲台上,他们就花费了九年的时间,坚持不懈,不忘初心,一步一个脚印创造出了属于他们的时代,这是他们努力向前奔跑的结果!团结,激情,勇敢,正能量是他们的代名词,成为他们的粉丝我感到很幸福,他们同时教会了我要学会接受自己的不完美,我们也正是因为这些不完美而变得有属于自己的魅力。



〈응답하라 1988〉를 보고 나서

대현(뷰티디자인경영학과 2학년)

〈응답하라 1988〉은 가족 간의 감정과 사랑 그리고 온정이 담겨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며 청춘을 함께 보낸 것 같았습니다. 이 드라마 너무 따뜻하고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는 어떤 단일 주연도 없고, 네 가족이 모두 주연인 것이 좋았습니다. 서로의 부모님들이 모두 좋은 친구이고, 아이들도 좋은 친구입니다.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순수한 감정에 더욱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모 간의 사랑은 자녀에게 전달되며, 부모의 아이에 대한 사랑은 매우 순수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남자 주인공 중의 한 명인 태이가 덕선이를 향한 직접적인 사랑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둘째 딸인 덕선은 가족들의 편애가 좀 있었고, 둘째 딸이기 때문에 계속 무시당한다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때 태이를 통해 “나도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해줬습니다.

저는 이런 진실한 사랑에 감동을 받고, 소소한 일상과 명확한 느낌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 그런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 속 대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초콜렛 상자와 같다. 열어 보기 전에 무엇을 잡을지 알 수가 없다. 쓰디 쓴 초콜렛을 집었는데도 어쩔 수 없다. 그게 내가 선택한 운명이다. 후회할 것도 징징 울 것도 가슴 아플 것도 없다.”

《请回答的1988》观后感

戴萱(美容设计经营学系 2年级)



《请回答1988》包含了家人之间的感情，爱情和温情。看这部电视剧的时候，感觉就像和主人公们一起度过了青春。我觉得这部电视剧非常温馨感人。

我喜欢这部剧没有单一的男主角，四个家庭都是主角。彼此的父母们都是好朋友，还有孩子们也都是好朋友。我想这是一种无法想象的理想状态。

而且孩子们之间纯真的感情更让我感慨万千。再者，父母之间的爱会传递给孩子，父母对孩子们的爱也很纯粹。其中，最让我动容的是作为男主之一的阿泽对德善直球式的爱。德善作为二女儿去从来没得到家人的偏爱，当她因为自己是二女儿而经常被忽视而感到疏远时，通过阿泽也感受到了“我也被爱着。”

我被这种真挚的爱所感动，我喜欢生活中简单的东西，喜欢那种清澈的感觉。我想这就是我通过这部电视剧所感受到的。

最后，我想用剧中的一句台词作为结尾。“人生就像一只巧克力盒子。打开看之前，不知道要抓什么。抓到苦苦的巧克力也没有办法。这就是我的命运没有后悔，没有抱怨，没有心痛”。

K-POP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라재영(융합경영학부 경영학전공 2학년)

한국하면 떠오르는 한국의 케이팝 음악문화는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과 전파력을 가지고 사랑받고 있으며,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좋아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부터 제가 좋아하는 케이팝 음악과 앨범을 소개하겠습니다.

케이팝 음악을 들은 10년 동안 제가 가장 좋아했던 앨범은 방탄소년단의 '화양연화'였습니다.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음악과 뮤직비디오, 그리고 짧은 스토리가 결합된 콘셉트로, 마치 방탄소년단의 일곱 멤버가 같은 꿈을 위해 서울에서 만난 것처럼, 젊고 방황하는 막막했던 시절을 담은 스토리텔링 영화였습니다.

'화양연화'는 세 앨범으로 나뉘는데, 1집은 언제 시들지 모르는 찬란함과 불안정한 청춘의 황공함과 불안함을, 2집은 질주하는 청춘을 보여주는데 상처받아도 상관없다는 팬들에게 청춘의 찬란한 에너지를, 3집은 '화양연화' 앨범 전체의 엔딩으로 앨범 수록곡 '영 포에버'의 가사처럼 '내리는 꽃잎 비 사이로 해매어 달리네 이 미로, 넘어져 다치고 아파도 끝없이 달리네 꿈을 향해'는 아픔을 꿈꿨습니다.

그들의 매 앨범과 컨셉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도 이 노래를 통해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学习如何通过K-POP生活

罗梓瑛(融合经营学系经营学专业 2年级)



一说到韩国就会想到韩国的kpop音乐文化，在亚洲乃至全世界具有非常大的影响力和传播力，深受大家的喜爱，而我也不例外从小学六年级开始喜欢到现在大学快毕业有接近十年的时间了。现在开始来介绍我喜欢的KPOP音乐和专辑。

在听kpop音乐的十年里，我最喜欢的一张专辑是防弹少年团的《花样年华》，不仅仅是单纯的音

乐，而是以音乐，mv和故事短片相结合的概念呈现，更像是记录关于青春年少彷徨迷茫时光的故事影片，就像那时防弹少年团的七名成员来自韩国的不同城市为了同样的梦想在首尔相聚。

《花样年华》分为三张专辑，第一张专辑体现了不知何时会凋谢的灿烂和不稳定青春的惶恐与不安；第二张专辑展现了疾驰的青春，即使受伤了也没有关系，给正处于同年龄的歌迷们传递了青春的灿烂能量；第三张专辑是整个《花样年华》专辑的结尾，就像专辑里的收录曲《Young Forever》里的歌词：“漫天飞舞的花瓣之间我徘徊奔跑在迷宫之中”“即使跌倒受伤痛苦也依旧向着我的梦想前进”

他们的每一张专辑和概念就像我们人生的每一个部分，最重要的是学会爱自己。通过这首歌,我好像也更多知道了一点该如何去爱自己。

노란 병아리 날다-문화 체험

진가이(뷰티디자인경영학과 3학년)

7살 때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과 한국문화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한국에 꼭 한번 오고 싶었는데 지금 우송대학교 유학생이 되어 여기 한국에 있다.

처음 왔을 때는 중국과 차이가 있어 조금 불편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친구들도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한국 문화 중 제일 낯선 것은 높임말이다. 나 역시 높임말을 잘못 사용해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다. 어느 날 백화점에 가는 길에 자전거를 탄 한 남자아이를 만났는데 가방이 열려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려 주려고 아이에게 “죄송합니다. 가방이 열려 있습니다.”라고 말하니 아이는 놀란 표정으로 웃었다. 그때는 그 아이가 왜 웃는지 몰랐다. 나중에 친구들에게 “아이에게는 보통 반말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 웃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높임말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몰라서 실수를 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웃을 수 있다.

또 한국 사람들의 옷차림은 무채색으로 중국보다 심플하다. 한국에 처음 온 날 입은 노란색 티셔츠는 너무 눈에 띄어 노란 병아리 같았던 기억이 있다. 요즘 내 옷장에 무채색 옷이 가득 찬 것을 보면 나도 한국 패션을 좋아하게 된 것 같다.

이처럼 당황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적응하며 잘 지내고 있다. 앞으로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서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翔的黄色小鸡-文化体验

陈佳怡(美容设计经营学系 3学年)



在七岁的时候，第一次看到了韩剧，接触到了韩国和韩国文化。从那时候起，就想着一定要来一次韩国，直到现在已经成为了又松大学的一名留学生。

第一次来的时候因为两个国家的文化不同，所以生活有点不方便。后来慢慢地去适应韩国的文化，大家应该也有类似的经历吧？

韩国文化中比较陌生的就是敬语了，我也曾经因为用错敬语而慌乱过。有一天去百货商场的路上遇见了一个骑自行车的男孩，但是他的书包敞开着。于是便大声告诉他：打扰一下，你的包没有拉好拉链！男孩用惊讶的表情看着我。那时候还不知道为什么男孩这么惊讶，之后问了朋友才知道，和小孩一般都是使用平语。虽然我有过很多类似的失误，但我现在可以笑着说起这些话题。

另外，来了韩国之后发现大部分学生穿的都是黑色或者白色的衣服，比中国的颜色要简约很多。我第一天来韩国的时候穿的是黄色的T恤衫，像黄色的小鸡一样，非常显眼。所以我在买新衣服的时候也会虽然有过多这种尴尬和慌张的经历，但是已经适应的非常不错了。以后要更努力学习韩语和理解韩国文化，度过一个幸福开心的大学生活。



대한민국 사랑해요!

마라왓 시티 주바이다(솔브릿지 3학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비다입니다. 저는 20살입니다. 사람들은 20살이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말하지만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새로운 문화와 관습을 배울 수 있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복을 입어보고, 고궁을 여행하고, 솔브릿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등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친절한 한국 현지인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하는 때문일 것입니다. 대전에 처음 왔을 때 기숙사 근처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계산을 하고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더니 가게 사장님이 제 한국어 실력에 대해 친절하게 칭찬해 주셨어요. 사장님은 정말 기분이 좋아 보였고 제가 한국어를 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해주셨습니다.

셋째, 제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생활한 지 일주일 후에 삼촌의 친구가 불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아는 불고기는 소고기였기 때문에 바로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식당은 소고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반찬을 제공하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배추김치, 백김치, 간장게장, 한우곰탕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받은 따뜻함 덕분에 한국과 대전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대한민국, 사랑해요!

Korea, Aku Cinta Kamu!

Malawat Siti Zubaidah(Solbridge third grade)

Salam kenal! Namaku Bida, umurku 20 tahun. Kata orang umur 20 tahun itu masa yang membingungkan, tapi, aku merasa sangat bahagia saat ini, kenapa ya? Mungkin karena aku tinggal di Korea, dimana aku bisa belajar kultur dan budaya baru. Aku senang bisa mengeksplor berbagai culture di korea, seperti mencoba hanbok, jalan-jalan ke istana bersejarah di Korea, dan tentunya belajar bahasa korea di solbridge.

Kedua, mungkin karena aku suka berinteraksi dengan warga lokal Korea yang sangat ramah. Ketika aku pertama kali datang ke Daejeon, aku membeli es krim supermarket dekat asrama. Lalu, ketika aku membayar dan mengucapkan "terima kasih" dalam bahasa korea, sang pemilik toko dengan ramah memuji kemampuan bahasa koreaku. Pemilik toko benar-benar terlihat senang dan mengapresiasi usahaku untuk berbicara bahasa korea.

Yang ketiga, sepertinya karena aku suka makanan korea. Setelah seminggu aku tinggal di Korea, teman pamanku mengundangku untuk pergi makan bulgogi. Saat itu, aku langsung mengiyakan ajakannya karena bulgogi setauku adalah daging sapi. Tapi, ternyata di restaurant itu tidak hanya disajikan daging sapi, namun juga berbagai macam lauk pauk yang sangat lezat. Favoriteku adalah baechu kimchi, baek kimchi, ganjang gejang, dan sop sapi khas korea.

Berkat kehangatan yang aku terima selama tiga bulan ini, aku jatuh cinta pada Korea dan Daejeon.

Korea, aku mencintaimu!



내가 한국 문화를 알게 된 계기

알리나(솔브릿지 경영학부 1학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 대중음악과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2020년, 우연히 방탄소년단의 인기 곡 'Boy with luv'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이상하고 매우 흥미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뮤직비디오가 흔치 않아서 정말 놀랐어요.

나중에는 이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한국의 매우 인기 있는 보이그룹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뮤직비디오를 모두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얼마 후 저는 다른 한국 인기 그룹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취미 덕분에 저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 댄스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의 댄스 스튜디오에서 K-pop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많은 새로운 친구와 지인을 사귀고 귀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선택할 때가 되자 한국 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입국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한국 문화와 역사에 계속 관심을 갖고 이 독특하고 흥미로운 나라에 대해 점점 더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이 저에게 동기를 부여했고, 모든 아티스트 덕분에 저는 계속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문화의 진원지에 오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Как я познакомилась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Kirichenko Alina (BBA student 1 grade)

Здравствуйте! Сегодня я бы хотела поделиться своей историей о том, как я полюбила корейскую поп музыку и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В 2020 году я случайно увидела музыкальный клип BTS на популярную песню 'Boy with luv'. Это мне показалось необычным и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м. В культуре моей страны такие яркие музыкальные клипы встречаются редко, поэтому меня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удивило.

Позже я стала интересоваться, что это за группа, откуда они и почему так популярны. Оказалось, что это очень популярная корейская мужская группа. Я пересмотрела все их музыкальные клипы и влюбилась. Через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я узнала и о других корейских популярных группах.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увлечению я стала интересоваться культурой и историей Кореи всё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Более того, применив свой танцевальный опыт и навык, я стала преподавать к-поп в танцевальной студии своего города, благодаря чему завела много новых друзей и знакомств, и получила бесценный опыт. А когда пришло время выбирать высшее учебное заведение, я стала интересоваться учёбой в Корее.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й подготовки к поступлению в Корею, я продолжала интересоваться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 историей, узнавая всё больше об этой уникальной и интересной стране. Корейская популярная музыка мотивировала меня, и благодаря ей и всем артистам я продолжала идти к своей цели. Сейчас я очень счастлива находиться в эпицентр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한국 전통 문화를 느끼며...

멍링기타오(솔브릿지 경영학부, 1학년)



43년의 역사를 지닌 용인민속문화촌은 한국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조성된 곳으로, 전국 각지에서 옮겨온 짚과 기와지붕의 전통 가옥들이 이씨 왕조를 살았던 다양한 계층의 생활상과 풍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박한 나무로 만든 문을 열고 들어서면 곳곳에서 역사의 숨결을 느끼며 천 년의 시간을 여행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도자기에 새겨진 흔적과 손자

국은 마치 100년 전 도자기를 만든 장인의 손길을 만지는 것만 같습니다. 문화의 아름다움은 제 시야를 넓혀줍니다.

은행나무 잎으로 뒤덮인 길을 걸으며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을 밟고, 나무 틈새로 비치는 햇살을 맞고, 바람이 불고, 비처럼 떨어지는 낙엽을 맞습니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개울가를 걷다 보면 선선한 바람이 뺨을 스치지만 마음은 뜨겁습니다. 이곳에서는 민속 공연과 농사 체험 등 한국의 전통 민속 활동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제가 간 날 결혼하는 커플을 만날 수 있었고,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커플들을 보며 한국 전통 결혼식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집집마다 문에는 “문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복을 맞이한다”는 한문 글귀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 문화의 유사성, 두 문화의 융합, 그리고 양국 언어의 매력은 5,000년 중국 역사와 문화가 이 순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양국은 지리적 근접성, 인간적 친밀감, 문화적 기원 측면에서 서로 가깝습니다. 산들바람이 살랑거리고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고, 나는 “간담을 매번 서로 밝게 비추고 얼음 주전자에 찬 달이 내려 비춘다.”라는 고대 조선의 시인 허균이 중국과 한국의 깊은 우정을 표현한 시 한 수가 생각났습니다.



领略韩国传统文化

孟令依陶(索布里奇商学院, 大一)

韩国龙仁民俗文化村距今有43年的历史,是为了保护和传承韩国传统文化而建立的,包括从韩国各地迁来的草顶或瓦顶传统房屋,生动形象的展示了李氏王朝当时不同阶层各人民生活的习惯及风俗。

踏进古朴的木门仿佛穿越千年,无一不透着历史感。陶器上一道道痕迹与指纹,仿佛触摸到百年前制作它的工匠。文化之美让我的视野无限扩张。

漫步在铺满银杏叶的小路上,每走一步都会踩的树叶嘎吱作响,阳光从树的缝隙洒下,微风吹过,落叶如雨。走在溪边,听着溪水潺潺,清冽的冷风拂过脸颊,但心里却是滚烫的。

我可以在这里看到了很多传统的韩国民俗活动,如民间舞蹈表演、农耕体验等。很幸运在我去的那天遇到了有人结婚,看到了身穿韩国传统服饰的夫妻,感受到了韩国传统婚礼的魅力。

在这里家家户户的门上都贴有很多中文的对联“门迎春夏秋冬福”。中华上下五千年历史文化,中韩文化的相似之处与两国文化的融和语言的魅力在这一刻体现的淋漓尽致。两国的地缘相近,人缘相亲,文源相通。微风沙沙作响,银杏叶纷纷飘落。“肝胆每相照,冰壶映寒月。”这是韩国古代诗人许筠对于中韩情谊之深的描述。



K-pop과 한국 문화 경험

밀라나(솔브릿지 경영학부 2학년)



K-팝은 세계적인 규모의 현상으로, 음악 세계에 신선한 소리를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한국 문화 경험의 창을 제공합니다. BTS와 BLACKPINK와 같은 인기 그룹은 한국 팝 문화의 대표적인 대사로서 수백만 명의 팬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나 또한 여러 한국 그룹의 팬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은 콘서트를 참석하고 그 에너지를 느끼고 멋진 감정을 경험해 보라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음악 이외에도 한국 드라마(K-dramas)와 영화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부터 추리와 신비로운 이야기까지 다양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힘쎈여자 도봉순”과 “기생충”을 시청하길 추천합니다. 모든 드라마는 독창성, 배우들의 연기력 등에서 돋보이며 세계 영화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K-팝과 한국 문화에 대한 나의 경험은 나에게 한국의 다른 면을 보여주었으며, 음악적 리듬에서부터 드라마의 중요한 스토리와 영화의 감동적인 캐릭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를 사람들이 통일된 사랑 속에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문화적 인식의 경계를 넓히고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독특한 경험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다면 이 멋진 나라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K-팝 и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Опыт

Kirichenko Alina (BBA student 1 grade)Mikriukova Milana (Solbridge business department 2nd year)

K-поп, явление мирового масштаба, не только вносит свежие нотки в музыкальный мир, но и предоставляет окно в богатый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опыт. Популярны группы, такие как BTS и BLACKPINK, стали амбассадорами корейской поп-культуры, привлекая миллионы поклонников. Как и все, я тоже поклонник многих корейских групп, поэтому я советую вам посетить хотя бы один концерт, и вы почувствуете такую энергетику и испытаете потрясающие эмоции.

Кроме музыки, корейские драмы (K-dramas) и фильмы также захватывают внимание. Есть огромное разнообразие дорам, от любви до детектива и мистики. Я бы вам порекомендовала посмотреть “Силачка До Бон Сун” и “Паразиты”. Все дорамы выделяются своей оригинальностью, актерами и признаются в мире кинематограф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мой опыт с K-поп 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показал мне другую сторону Кореи и показал, что может объединить людей разных культур в общей любви к таланту Южной Кореи — от захватывающих музыкальных ритмов до захватывающих сюжетов драм и проникновенных образов в кино. Всё это — часть уникального опыта, который расширяет границы культурного восприятия и объединяет людей по всему миру. Так что, если вы никогда не были в Корее, вам обязательно стоит посетить эту потрясающую страну.



한국의 축제

응웬 티 끼우짱 (엔딕컷 자유전공 4학년)



43년의 역사를 지닌 용인민속문화촌은 한국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조성된 곳으로, 전국 각지에서 옮겨온 짚과 기와지붕의 전통 가옥들이 이씨 왕조를 살았던 다양한 계층의 생활상과 풍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박한 나무로 만든 문을 열고 들어서면 곳곳에서 역사의 숨결을 느끼며 천 년의 시간을 여행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도자기에 새겨진 흔적과 손자

국은 마치 100년 전 도자기를 만든 장인의 손길을 만지는 것만 같습니다. 문화의 아름다움은 제 시야를 넓혀줍니다.

은행나무 잎으로 뒤덮인 길을 걸으며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을 밟고, 나무 틈새로 비치는 햇살을 맞고, 바람이 불고, 비처럼 떨어지는 낙엽을 맞습니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개울가를 걷다 보면 선선한 바람이 뺨을 스치지만 마음은 뜨겁습니다. 이곳에서는 민속 공연과 농사 체험 등 한국의 전통 민속 활동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제가 간 날 결혼하는 커플을 만날 수 있었고,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커플들을 보며 한국 전통 결혼식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집집마다 문에는 “문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복을 맞이한다”는 한문 글귀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 문화의 유사성, 두 문화의 융합, 그리고 양국 언어의 매력은 5,000년 중국 역사와 문화가 이 순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양국은 지리적 근접성, 인간적 친밀감, 문화적 기원 측면에서 서로 가깝습니다. 산들바람이 살랑거리고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고, 나는 “간담을 매번 서로 밝게 비추고 얼음 주전자에 찬 달이 내려 비춘다.”라는 고대 조선의 시인 허균이 중국과 한국의 깊은 우정을 표현한 시 한 수가 생각났습니다.

lễ hội của Hàn Quốc

Nguyen Thi Kieu Trang (Endicott grade 4)

Xin chào! Tôi là Nguyễn Thị Kiều Trang. Tôi đang là sinh viên năm 4 chuyên ngành tự do. Tôi đã đến Hàn Quốc được khoảng 5 năm rồi. Trong thời gian sinh sống ở hàn quốc tôi đã được trải nghiệm văn hoá đa dạng của Hàn Quốc..

Nếu mọi người đi du lịch Hàn Quốc thì thường nghĩ đến nơi nào? Thông thường mọi người hay nghĩ đến đảo Jeju hoặc Seoul đầu tiên. Du lịch đến các địa điểm du lịch nổi tiếng như vậy cũng thú vị nhưng tham gia lễ hội được tổ chức từng khu vực và tận hưởng chuyến du lịch mới mẻ hơn thì thế nào? Tôi sẽ giới thiệu hai lễ hội mà mọi người có thể hứng thú ở Hàn Quốc.

Lễ hội đầu tiên là lễ hội hoa anh đào được tổ chức ở Jinhae. Lễ hội hoa anh đào được tổ chức vào đầu tháng tư hàng năm và nhiều khách du lịch đến lễ hội này để ngắm hoa anh đào. Nếu đi bộ trên con đường hoa anh đào nối theo đường tàu hoả giống như đường hầm thì sẽ có cảm giác như đi vào trong truyện cổ tích. Jinhae có cây cầu đã quay phim truyền hình, nơi đây là địa điểm lí tưởng để chụp ảnh

Lễ hội thứ hai tôi muốn giới thiệu là lễ hội hoa tuyết. Lễ hội này là lễ hội mùa đông tiêu biểu và được tổ chức ở Gangwon-do từ tháng 1 đến tháng 2. Gangwon-do là nơi tuyết rơi nhiều ở Hàn Quốc, nếu đến đây vừa có thể ngắm các tác phẩm điêu khắc băng lớn vừa có thể trượt tuyết và cũng có thể làm người tuyết.

Ở Hàn Quốc có rất nhiều lễ hội để trải nghiệm văn hoá như vậy. Nếu tìm kiếm văn hoá Hàn quốc trên internet sẽ tìm thấy nhiều nội dung đa dạng. Sau này tôi muốn tham gia nhiều lễ hội đa dạng trong thời gian ở Hàn Quốc. Mọi người cũng tham gia thử lễ hội ở Hàn Quốc nha.





이 도시의 구석에서

형지호 (융합경영학부 경영학전공 1학년)

이 도시의 구석에서
외로운 사람들이 서둘러 지나가고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묻어있어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돈인가 명예인가
그들을 그토록 서두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누가 발걸음을 멈출 수 있을까?

나는 거리 불빛 아래 서서
사람들의 왕래를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서둘러 서둘러
어떤 것을 피하려는 것 같다

사랑인가 꿈인가
그들을 그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이 빠른 속도의 삶 속에서
누가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

나는 눈을 감고
이 도시의 맥박을 조용히 느낀다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나는 여전히 평온을 찾을 수 있다

나는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
돈에 얽매이지 않는다
나는 그저 고요한 마음을 갖고 싶을 뿐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나를 늦춰 줘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 줘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게 해 줘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在这个城市的角落

邢志豪 (国际经营学 1 年级)

在这个城市的角落
孤独的人们匆匆而过
他们的脸上带着忧伤
似乎在追逐着什么

是金钱还是名利
让他们如此匆忙
在这个喧嚣的世界
谁又能停下脚步

我站在街角的灯光下
看着人群来来往往
他们匆匆忙忙
仿佛在逃避着什么

是爱情还是梦想
让他们如此焦虑
在这个快节奏的生活
谁又能找到真正的自己

我闭上眼睛
静静地感受这个城市的脉搏
在这个喧嚣的世界
我依然能找到宁静

我不追逐名利
我不被金钱所束缚
我只想拥有一颗平静的心
在这个喧嚣的世界里

让我慢下来
让我停下脚步
让我找到真正的自己
在这个喧嚣的世界里

우송한국어교육원 어학연수

WKLI Language Training

WKLI 语言研修

WKLI Đào tạo tiếng Hàn trường đại học Woosong

오순도순, 도란도란 한국어 수업

Ohsun Dosun, Doran Doran (getting along well) Korean Language class



한국어 사랑방 (전통 놀이)
Korean Sarangbang (traditional game)
冬季学期结业式
Sarangbang tiếng Hàn(trò chơi truyền thống)



한글날 활동
Hangeul's Day activities
性暴力预防教育
Hoạt động của ngày Hangeul



반별 활동
Class activities
留学生摄影展 (优秀奖获奖)
Hoạt động lớp

우송 한국어교육원에는 몽골, 베트남, 미얀마, 카자흐스탄, 태국, 인도네시아, 알제리, 러시아, 필리핀, 일본, 중국 총 11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학습하고 있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되어 교실 수업은 오순도순,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운다. 또한 흥미로운 교실 활동을 통해 말하기 수업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토픽 급수 취득을 돕기 위해 토픽 특강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고급반 학생들은 토픽 급수를 취득하여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예방 교육, 한국 법령 교육, 범죄 예방 교육 등으로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게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캠퍼스 내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즐거운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고 있다. 11월에 개최된 유학생 사진전에서는 중급반 트리단단 학생, 요상우 학생이 대천 문화체험에서 찍은 사진을 출품하여 최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하여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

교실 수업 이외에도 학생들이 한국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실 밖에서 다양한 활동 등이 함께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전주 한옥 마을에서 진행된 비빔밥 만들기 활동과 한복 체험, 시립 연정 국악원에서 진행된 퓨전 국악 공연 감상으로 한국 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가을 학기에 대천으로 떠난 문화 체험에서는 시원한 바다 바람을 맞으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우송 한국어교육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즐겁고 유익한 유학생활을 위해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 활동을 준비할 것이다.

At Woosong Korean Language Institute, students from a total of 11 countries, including Mongolia, Vietnam, Myanmar, Kazakhstan, Thailand, Indonesia, Algeria, Russia, the Philippines, Japan, and China, are learning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e classroom is composed of students with diverse nationalities, creating a dynamic and lively atmosphere in classes. Through interesting classroom activities, speaking classes are reinforced to help improve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For students preparing for university admission or employment, special lectures on 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are conducted to assist them in acquiring TOPIK certification. As a result, advanced-level students have received TOPIK certification, taking a step closer to realizing their dreams. Additionally, the institute provides education on sexual assault prevention, Korean legal systems, and crime prevention to ensure student's safety while living in Korea.

Furthermore, various events on campus are organized to create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enjoy their study abroad experience. In the student photo exhibition held in November, students from the intermediate class, Trinh Thanh Dien and Yosangwoo, have won awards for photos taken during a cultural experience in Daecheon. They shared the joy with the classmates and the teachers.

In addition to classroom lessons, students have engaged in activities outside the classroom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Activities include making bibimbap in Jeonju Hanok Village, experiencing traditional Hanbok clothing, and attending a fusion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 at the Daejeon Municipal Yeonjeong Korean Traditional Music Center. During the cultural experience in Daecheon in the fall semester, students enjoyed a refreshing time by the sea.

Woosong Korean Language Institute is committed to preparing diverse educational programs and experiential activities for students to ensure a joyful and enriching study abroad experience in the future.

和和睦睦的韩语课

Lớp học tiếng Hàn Ohsun Dosun, Doran Doran

在又松韩国语教育院，来自蒙古、越南、缅甸、哈萨克斯坦、泰国、印度尼西亚、阿尔及利亚、俄罗斯、菲律宾、日本和中国等11个国家的学生正在积极学习韩国语和韩国文化。这个多元文化的学习环境中，拥有各种国籍的学生组成的教室充满和谐与活力，同学们在课堂中互相交流，形成了温馨的学习氛围。为了提高学生的口语表达能力，教育院采用了有趣的教室活动和强化口语授课，助力学生更好地沟通交流。此外，特设话题特别讲座，帮助即将升入大学或投身职场的学生们获得更高的话题级别，为实现个人梦想奠定坚实基础。在这个过程中，高级班的学生们成功获得了TOPIK等级，为自己的未来发展打下了坚实基础。为了确保学生在韩国的生活更加安全，教育院开展了性暴力预防教育、韩国法令教育以及犯罪预防教育等多方面的培训，使学生更好地适应韩国社会。此外，学院还提供各类校园活动，为学生提供了丰富的留学生活体验。在11月举行的留学生摄影展上，中级班学生特里坦丁和姚相宇展示了在大川文化体验中拍摄的照片，成功获得最优秀奖及奖励奖，与同学们和老师分享了喜悦。除了课堂内的授课，为了让学生更深刻地体验韩国文化，教育院还组织了多种课外活动。学生们通过参与全州韩屋村的拌饭制作活动、韩服体验，以及在市立涟静国乐院欣赏混合国乐演出等活动，亲身感受了韩国文化的魅力。在秋季学期的大川文化体验中，学生们一同享受了凉爽的海风，度过了难忘的时光。未来，又松韩国语教育院将持续为学生们提供愉快有益的留学生活，策划更加丰富多彩的教育项目和体验活动，助力学生在留学生涯中不断成长。

Viện Giáo dục Tiếng Hàn của Trường Đại học Woosong, có tổng cộng 11 quốc gia tham gia học Tiếng Hàn và văn hóa Hàn Quốc, bao gồm Mông Cổ, Việt Nam, Myanmar, Kazakhstan, Thái Lan, Indonesia, Algeria, Nga, Philippines, Nhật Bản, và Trung Quốc. Lớp học với những sinh viên từ các quốc tịch khác nhau, tạo ra một không khí lớp học phong phú và sôi nổi. Bên cạnh đó, các buổi học được tổ chức một cách sáng tạo để nhằm nâng cao kỹ năng giao tiếp của sinh viên thông qua các hoạt động thú vị. Để hỗ trợ sinh viên chuẩn bị cho việc học đại học hoặc đi làm, viện giáo dục cũng tổ chức các buổi giảng đặc biệt về TOPIK (Kỳ thi kiểm tra Năng lực Tiếng Hàn) để giúp học sinh đạt được điểm cao. Qua đó, sinh viên ở các lớp cao cấp đã đạt được chứng chỉ TOPIK, giúp tiến thêm một bước trên con đường hoàn thành ước mơ của mình. Ngoài ra, viện cũng chú trọng vào việc giúp sinh viên sống an toàn hơn ở Hàn Quốc thông qua giáo dục phòng chống bạo lực tình dục, giáo dục luật pháp Hàn Quốc và giáo dục phòng chống tội phạm. Ngoài ra, viện mang đến cơ hội có trải nghiệm du học thú vị bằng cách tham gia các sự kiện khác nhau trong trường. Tại triển lãm ảnh sinh viên quốc tế được tổ chức vào tháng 11, học sinh lớp trung cấp Trinh Thanh Dien và Yo Sang-woo đã gửi những bức ảnh chụp trong chuyến trải nghiệm văn hóa Daecheon và giành được giải nhất và giải khuyến khích, chia sẻ niềm vui với các bạn cùng lớp và giáo viên. Ngoài những buổi học trong lớp, các hoạt động ngoại khóa được tổ chức giúp sinh viên có cơ hội trải nghiệm văn hóa Hàn Quốc. Sinh viên tham gia hoạt động làm món bibimbap tại làng cổ Hàn Quốc Jeonju, trải nghiệm trang phục truyền thống Hanbok, và thưởng thức buổi biểu diễn âm nhạc truyền thống và hiện đại tại Trung tâm Âm nhạc Quốc gia Daejeon Yeonjeong. Trong chuyến trải nghiệm văn hóa vào mùa thu, chúng tôi đã có những khoảng thời gian tuyệt vời khi được tận hưởng không khí biển vô cùng mát mẻ. Viện giáo dục Tiếng Hàn của Trường Đại học Woosong cam kết tiếp tục chuẩn bị các chương trình giáo dục và hoạt động trải nghiệm đa dạng để giúp sinh viên có cuộc sống du học thú vị và bổ ích.



봄학기 문화체험(전주 한옥 마을)
Spring Semester Cultural experience (Jeonju Hanok Village)
冬季学期结业式
Trải nghiệm văn hóa kỳ Xuân (Làng cổ Jeonju)



여름학기 문화체험(시립연정국악원)
Summer Semester Cultural experience (Daejeon Municipal Yeonjeong Korean Traditional Music Center)
性暴力预防教育
Trải nghiệm văn hóa kỳ Hè (Trung tâm âm nhạc Hàn Quốc Daejeon Yeonjeong)



가을학기 문화체험(보령 박물관/ 대천 해수욕장)
Fall semester cultural experience (Boryeong Museum/Daecheon Beach)
留学生摄影展 (优秀奖获奖)
Trải nghiệm văn hóa kỳ Thu (Bảo tàng Boryeong/Bãi biển Daecheon)



성폭력 예방 교육 / 법령 교육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 law education
口语活动(课堂活动)
Giáo dục phòng chống bạo lực tình dục/Giáo dục pháp luật



유학생 사진전 (최우수상 수상)
International Student Photo Exhibition (Grand Prize)
口语活动(采访韩国人)
Triển lãm ảnh sinh viên quốc tế (Giải nhất)



수료식
Graduation Ceremony
又松中学越南语社团活动(全球语言学习)
Lễ tốt nghiệp

같이 낚시하러 갈까요?

친사나 (어학연수 1반)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온 친사나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연수 1반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 취미는 낚시하는 것입니다. 몽골에 있을 때는 주말에 친구들과 자주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요리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낚시를 할 때 친구들에게 생선 요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만든 생선 요리를 먹으면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 있어서 낚시를 가지 못 합니다. 친구들과 낚시를 가지 못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럴 때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서 생선 요리를 합니다. 한국에 있는 몽골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같이 먹습니다. 친구들이 “요리가 정말 맛있네요” 이야기해 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혹시 낚시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같이 낚시를 하러 갈까요?



Загасанд хамт явах уу?

Чинсанаа (хэлний бэлтгэл 1р анги)

Сайн байна уу. Би Монголоос ирсэн Чинсанаа гэдэг. Солонгос улсад ирээд 8 сар орчим болж байна. Одоо би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1-р ангид суралцаж байна.

Миний хобби бол загас барих. Би Монголд байхдаа амралтын өдрөөр найзуудтайгаа загасчлахаар их явдаг байсан. Би бас хоол хийх дуртай. Тэгээд би загасчлахдаа найзууддаа загасаар хоол хийж өгсөн. Өөрийнхөө хийсэн загасны хоолыг идэж байхдаа найзуудтайгаа олон сонирхолтой яриа өрнүүлдэг. Харин одоо би Солонгост байгаа болохоор загасчлах боломжгүй. Найзуудтайгаа загасчлахаар явж чадахгүй байгаа болохоор маш их бухимдаж байна.

Ийм үед би захруу явж загас худалдаж аваад хоол хийдэг. Солонгост амьдардаг Монгол найзуудаа авчирч хамт хооллодог. Найзууд маань “Чиний хоол үнэхээр амттай байна” гэж хэлэхэд надад сайхан санагддаг. Загас барих дуртай найз байвал хамтдаа загасчлах уу?



한국 문화 체험

баярцэцэг (어학연수 1반)

저는 바알체체이라고 합니다. 몽골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온 지 8개월쯤 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연수 1반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학기에 대천으로 문화 체험을 갔습니다.

몽골에는 바다가 없어서 한국에 와서 바다에 처음 갔습니다. 바다에 처음 가서 너무 신났습니다.

그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금 추웠지만 우리는 친구들과 바다에서 예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보령 박물관에 서는 옛날 교복을 입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우리가 찍은 사진은 유학생 사진전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어 공부가 어려워 조금 힘들지만 문화 체험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문화 체험이 기대됩니다. 지난 문화체험 때 우리 반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같이 못 갔는데 이번 문화 체험에는 우리 반 친구 모두 가면 좋겠습니다.



Солонгосын соёлын туршлага

Баярцэцэг (хэлний бэлтгэл 1р анги)

Намайг Баярцэцэг гэдэг. Би Монголоос ирсэн. Солонгост ирээд 8 сар орчим болж байна. Анх ирэхэд хэцүү байсан ч одоо маш сайн явж байна. Би одоо сургалтын 1-р ангид сурдаг. Бид өнгөрсөн семестерт соёлын туршлагаар Дэчон руу явсан.

Монголд далай гэж байдаггүй болохоор Солонгост ирээд анх удаа далайд гарсан юм.

Анх удаа далайд гарах гэж байгаадаа маш их баяртай байсан.

Тэр өдөр маш их салхитай, бага зэрэг хүйтэн байсан ч бид найзуудтайгаа далайн эрэг дээр маш олон хөөрхөн зураг авав. Борёонгийн музейд бид хуучин сургуулийн дүрэмт хувцас өмсөж зургаа авахуулсан. Бидний авсан зургууд олон улсын оюутны гэрэл зургийн үзэсгэлэнгээс хүртэл шагнал авсан.

Солонгост солонгос хэл сурахад жаахан хэцүү ч соёлын туршлага хуримтлуулна гэдэг үнэхээр сайхан.

Би энэ семестрт бас соёлын туршлагаа тэсэн ядан хүлээж байна. Сүүлчийн соёлын туршлагын үеэр манай ангийн хүүрэд эмнэлэгт хэвтсэн тул би түүнтэй хамт явж чадаагүй ч манай ангийнхан бүгдээрээ энэ соёлын туршлагад очиж болно гэж найдаж байна.



우리 나라의 중요한 명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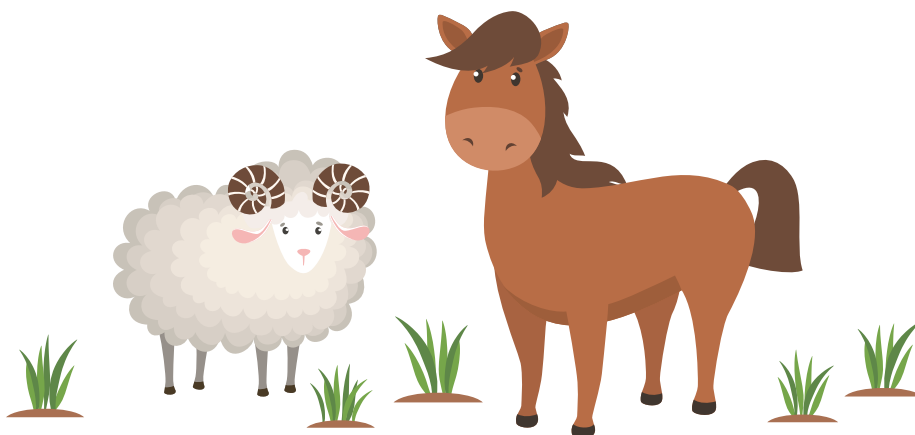
문흐체чек(어학연수 2반)

우리 나라 몽골의 중요한 명절은 설날입니다. 설날은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4일 동안입니다. 설날은 오랫동안 못 만난 사람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설날에는 오랫동안 못 만난 사람들을 만나서 세배를 한 후에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준비하고 어른에게 세배를 합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어른들께 세배를 할 때 돈을 드리고 어른의 손 아래에서 손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라고 말합니다. 설날에 먹는 특별한 음식은 한국 만두 같은 음식인데 양고기로 만드는 보즈입니다. 설날이 되기 한 달 전부터 보즈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 우유로 만드는 아이락을 마십니다. 아이락은 술과 비슷하지만 너무 맛있습니다. 설날에 하는 전통 놀이에는 동물 뼈로 만든 점박이 개구리처럼 생긴 말을 놓고, 말을 움직여서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어른 댁에서 온 가족들이 돌아갈 때 어른들은 선물을 줍니다. 보통 양말을 선물로 줍니다.

Манай улсын чухал баяр

Мөнхцэцэг(Хэлний бэлтгэл 2-р анги)

Манай улс Монголын чухал баяр нь цагаан сар юм. Цагаан сар нь голдуу 2 сарын 10-ний өдрөөс эхлээд 2 сарын 14-н хүртэл 4 өдөр болдог. Цагаан сар нь урт хугацаанд уулзаж чадаагүй хүмүүс уулздаг өдөр юм. Тиймээс цагаан сараас удаан хугацаанд уулзаж чадаагүй хүмүүс уулзаад золгосны дараа ярилцдаг. Өглөө боссоноосоо эхлээд бэлтгэл ажил хийгээд ахмад настнаас эхлээд золгодог. Нас залуу хүн нь ахмад хүнтэй золгох үедээ мөнгө өгөөд ахмад хүний гарын доороос гараараа өргөдөг. Тэгээд “1 жилийн турш сайн сууж байсан уу?” гэж хэлдэг. Цагаан сараар иддэг уламжлалт хоол нь Солонгос мандү шиг хоол бөгөөд хонины махаар хийдэг бууз юм. Тэгээд морины сүүгээр хийдэг айраг юм. Айраг нь архитай төстэй ч үнэхээр амттай. Цагаан сараар тоглодог уламжлалт тоглоом нь амьтны шагайгаар алаг мэлхий өрөх, морь уралдуулах тоглоом юм. Эцэст нь ахмадын гэрт ирсэн гэр бүл нь буцаад явах үед бэлэг өгдөг. Ихэвчлэн оймс бэлгэд өгдөг.



한국의 남쪽, ‘부산’

아이추르 유스라 (어학연수 3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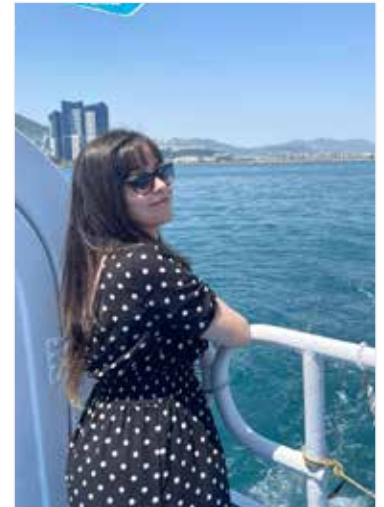
저는 우송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서 어학연수 수업을 듣고 있고 한국에 온 지 일 년이 됐습니다. 제 취미는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행을 갑니다. 지난 방학에는 부산 여행을 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여행이었습니다.

부산은 한국의 남쪽에 있는 도시이며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부산에는 ‘해운대’라는 바다가 있는데, 밤에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불빛이 켜지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마침 제가 갔을 때는 ‘해운대 불빛축제’가 열리고 있어서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운대뿐만 아니라 ‘자갈치 시장’이라는 곳도 유명한 곳입니다. 바다 도시답게 각종 싱싱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말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로 붐비기는 했지만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나서 ‘이기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바닷길을 따라 산책길을 걸으면서 바다의 풍경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었는데, 아직도 그 바다의 모습이 생생할 정도입니다. 또한 감천 문화 마을도 구경했는데 알록달록 여러 색으로 칠해져 있는 집들이 동화처럼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부산이라고 하면 ‘바다’만 떠올렸는데, 이번 부산 여행을 통해서 매우 활기차고 다채로운 도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가 보고 싶습니다.



The South of Korea, ‘Busan’

AICHOUR AMNA YOUSRA (language course grade 3)

I am taking language training classes at Woosong university's 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and it has been a year since I came to Korea. My hobby is to travel. So whenever I have time I go on a trip. Last vacation, I traveled to Busan and it was joyous.

Busan is a city in the south of Korea, it is one of the most famous tourist destinations in Korea.

There is a sea called 'Haeundae' in Busan, at night when the light is turned on, you can see a beautiful scenery at Haeundae Beach. Likewise, I had chance to see the beautiful night sky and assist to the fall light festival held in 'Haeundae' Beach.

Busan is not only known by Haeundae, also Jagalchi Market is famous. As a Coastal city, I was able to eat various fresh seafood. I went there on the weekend, although it was too crowded but I liked the dynamic vibe and lively atmosphere.

After filling up my stomach, I headed to 'Lee Gi-dae Park'. I could see the scenery of the road, and I still vividly remember the sea. I also visited Gamcheon Culture Village, the houses painted in many colors felt like fairy tales.

When it comes to Busan, I only think of the sea, but through this trip to Busan, I felt that it is a very vibrant and colorful city. If I have time again, I would like to visit there again.



대천에서의 좋은 추억

카노크라트 (어학연수 2반)

2023년 10월 20일, 한국어교육원에서 나와 친구들은대한민국 지방에 있는 대천으로 문화 체험을 갔다.

가장 먼저 간 곳은 보령박물관이었다. 이 박물관에서는 대천의 조선 시대부터 보령 근처에 역사를 볼 수 있으며, 고물상, 우체국과 미용실도 볼 수 있고 한국 옛날 교복도 입어 볼 수 있다. 그다음에 점심 식사를 했는데 부대찌개라는 한국 음식을 먹었다. 나는 매운 걸 잘 먹을 수 있고 태국 음식을 연상시키는 그런 맛이어서 이 맛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한국 반찬도 되게 좋아해서 항상 곁들여 먹는다. 반찬 종류가 정말 많고 계속 리필해 주는 게 정말 신기했다.

밥을 먹고 나서 2시간 정도 산책하고 사진을 찍고 대천해수욕장에 가서 새들에게 과자를 줬는데 그때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웠지만 친구들이랑 너무 재미있었다. 바다를 처음 본 친구들도 있고 바다가 없는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다. 친구들의 웃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나도 행복했다.

우리는 자유시간이 끝나기 직전까지 함께 놀았고 그날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나는 대천에서의 추억을 평생 간직할 것이다.

ความทรงจำดี ๆ ที่แดชอน

กนกรัตน์ (กลุ่มสาระการเรียนรู้ภาษาต่างประเทศ ๒ห้อง)

เมื่อวันที่ 20 ตุลาคม 2023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อุซงได้พาฉันและเพื่อนที่เรีย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ด้วยกันไปเที่ยวที่จังหวัดแดชอน 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ใต้ สถานที่แรกที่เราไปคือ พิพิธภัณฑ์ โบรยอง พิพิธภัณฑ์นี้ คุณสามารถดู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โลกโบรยองได้ ตั้งแต่สมัยราชวงศ์โชซอนของแดชอน คุณสามารถเห็นร้านอาหารโบราณ, สำนักงานไปรษณีย์และร้านเสริมสวย และลองใส่ชุดนักเรียนเกาหลีสมัยก่อนได้ หลังจากนั้น พวกเราได้ไปทานอาหารกลางวัน คือ บุตเตจิก ฉันชอบรสชาตินี้มาก เพราะเป็นคนที่สามารถกินเผ็ดได้ และทำให้ฉันนึกถึงอาหารไทย และฉันชอบเครื่องเคียงของเกาหลีที่มีหลายอย่าง อีกทั้งยังดื่มได้ตลอด หลังจากทานอาหารเสร็จ มีเวลา 2 ชั่วโมงเพื่อเดินเล่นถ่ายรูป พวกเราได้ไปเดินเล่นและให้อาหารนกที่ชายหาดแดชอน ตอนนั้นลมแรงและหนาวมาก แต่ฉันกับเพื่อนสนุกกันมาก เพื่อนบางคนเคยเห็นทะเลเป็นครั้งแรก เนื่องจากประเทศของเขาไม่มีทะเล ฉันเห็นรอยยิ้มพวกเขา ดูมีความสุขกันมาก ฉันก็มีความสุขเช่นกัน พวกเราเล่นกันจนหมดเวลา วันนั้นเป็นอีกหนึ่งวันที่ฉันมีความสุขมาก และจะจดจำมันตลอดไป



한국의 숨결, 경복궁

레티항 (어학연수 3반)

‘경복궁’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19세기에 지어진 경복궁은, 한국을 여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궁궐 중에 가장 큰 궁궐이며,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경복궁은 왕과 관리들의 정무 시설, 왕족들의 생활공간, 휴식을 위한 후원 공간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정원과 호수도 있어서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어 하늘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가을에는 붉은 단풍잎이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 고즈넉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저는 봄과 가을이 경복궁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복궁 근처에는 한복을 빌려 주는 가게들이 있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고운 색의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 입장합니다.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으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를 여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왕과 왕비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의 수도 서울의 중심이고,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궁궐인 경복궁. 한국의 오랜 숨결이 느껴지는 경복궁에서 여러분도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Hơi thở của Hàn Quốc, Cung điện Gyeongbok

LE THI HANG (Lớp 3 khoa học tiếng)

Gyeongbokgung là một trong những công trình kiến trúc lịch sử quan trọng nhất của Hàn Quốc. Cung Gyeongbok được xây dựng vào thế kỷ 19 là nơi không thể bỏ qua khi đi du lịch Hàn Quốc. Đây là cung điện lớn nhất trong số các cung điện và là nơi lưu giữ lịch sử lâu đời. Cung Gyeongbokgung được chia thành các khu vực chính như cơ sở chính trị của vua và các quan chức, không gian sinh hoạt của hoàng tộc, khu vực nghỉ ngơi được dành cho vua. Ngoài ra còn có hồ và vườn tuyệt đẹp nên có thể cảm nhận được bầu không khí đa dạng thay đổi theo mùa. Xuân là thời điểm hoa anh đào nở rộ, làm cho bầu trời trở thành màu hồng, trong khi mùa thu lại mang đến không khí yên bình với lá đỏ phong và bầu trời thu. Tôi nghĩ rằng mùa xuân và mùa thu là mùa có thể cảm nhận rõ nhất vẻ đẹp của Cung điện Gyeongbok.

Gần Gyeongbokgung có những cửa hàng cho thuê Hanbok, nơi mà nhiều du khách nước ngoài thường mặc những bộ trang phục truyền thống đẹp. Nếu mặc Hanbok và chụp ảnh thì có cảm giác như đang du hành qua thời kỳ Joseon. Ngoài ra còn có cảm giác giống như trở thành vị vua hoặc hoàng hậu. Gyeongbokgung, trung tâm thủ đô Seoul của Hàn Quốc và là cung điện tiêu biểu nhất của Joseon. Tôi hy vọng các bạn có thể cảm nhận được văn hóa và lịch sử của Hàn Quốc tại Cung điện Gyeongbok nơi cảm nhận được hơi thở lâu đời của Hàn Quốc.



창가의 수필

방택통(국제경영 4학년)

탁상 달력을 한 장, 또 한 장 찢었다.
마음속에 그리움이 더욱 커졌다.
귓가에 들려오는 떠들썩함은 나와는 상관없다.
입가의 차향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다.
창가에서 멀리 내다보니 눈 앞에
도시의 변화함과 시끄러움이 보인다.
창간의 따스한 김이 점점 나의 두 눈을 가렸다.
나를 이끌고 꿈속으로 간다.
거기는 내 집이다!
바로 내 기억 깊은 곳에 있는 고향이다!

어둠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눈에 비치는 경치가 점점 더 또렷해진다.
귓가에 들리는 경쾌한 소리에 더욱 친밀감을 느낀다.
길가의 차 소리가 희망의 교향곡을 연주한다.
뒤를 돌아보니 가족과 벗들이 모두 보인다.
모두 다 '낯익은' 모습들.
눈물이 점점 나의 눈을 가렸다.
나에게 창가의 변화한 모습을 똑바로 보라고 한다.
여기는 내 학교다!
내가 고군분투 하는 곳 바로 여기다!



窗边随笔

房泽通(国际经营系4年级)

台历撕下一页又一页,
心中思念重了一分又一分。
耳畔的嘈杂与我格格不入。
唇边的茶香久久不能消散。
窗畔远望, 目光所致,
皆是繁华与喧嚣。
水雾渐渐蒙住了我的双眼,
裹挟我前往那梦境中的地方。
那里是我的家!
我记忆深处的地方!

黑暗淡了一次又一次,
眼中景物清晰一点又一点。
耳畔的繁华使我倍感亲切。
路边的车辆奏响希望乐章。
回头一望, 亲友皆致,
皆是熟悉的过往。
眼泪渐渐蒙住了我的双眼,
强迫我看清那窗畔繁华景象。
这里是我的学校!
我在此奋斗的地方!



가을

아이넬 (솔브릿지 경영학부 2학년)

가을에는 자연이 겨울 휴식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숲 거주자는 식량을 비축하고 나무는 잎을 떨굽니다. 사람들은 들판과 채소밭에서 작물을 수확합니다. 가을은 자연이 주는 다양한 선물이 매우 풍부합니다. 잘 익은 사과와 배, 큰 호박과 맛있는 당근, 건강한 견과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올해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매우 자주 가을은 풍부하고 관대합니다. 태양은 여전히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폭우는 나무와 꽃을 씻깁니다. 때로는 가을이 올 때 동화가 우리 문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는 삶에 와서 가을의 비움을 위해 모입니다. 그들은 모두 웅장하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은 회전하면서 부드럽고 쉽게 땅으로 날아갑니다. 낙엽 꽃은 비움을 배열합니다. 모든 식물은 겨울을 기다리고 태양의 따뜻함의 마지막 날을 즐기고 있습니다.



Autumn

Dossaliyeva Ainel (Solbridge business department 2nd year)

In autumn, nature is preparing for winter rest. Forest dwellers stock up on food, and trees shake off their leaves. People harvest crops in fields and vegetable gardens. Autumn is very rich in various gifts from nature. Ripe apples and pears, large zucchini and delicious carrots, healthy nuts. All this gives us the time of the year. Very often autumn is rich and generous. The sun still warms the earth, and heavy rains wash trees and flowers. Sometimes, when autumn comes, fairy tales seem to knock on our doors. And now the trees come to life and gather for autumn emptying. They are all dressed in magnificent and elegant dresses. And the leaves fly to the ground smoothly and easily, rotating. Deciduous flowers arrange empties. All plants are waiting for winter and enjoying the last days of the warmth of the sun.





다시, 무대위에서

지난 3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하던 말하기 대회를 올해부터는 다시 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봄에 열린 제3회 말하기 대회는 예선을 거친 24팀, 가을의 제4회 대회에서는 19팀이 한국 생활과 문화, 시, 동화, 수필 등 다양한 주제로 한국어 실력을 뽐냈다.

올해는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참가했는데, 말하기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올해는 유독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발표가 많았는데, 이를 통해 유학생만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고, 서로를 응원하고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강당의 무대 위에서 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 발표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런 자리에서는 원래 긴장이 되기도 하고 지난 몇 년간은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 앞에 설 일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마이크를 잡은 손을 떨거나 발표 내용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학생도 있었지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힘찬 박수로 긴장한 친구를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던 올해의 말하기 대회였다.

무대의 커튼이 다시 열렸다. 내년 말하기 대회에서도 발표자들은 객석을 가득 채운 학생들을 바라보며 긴장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긴장과 설렘은 분명, 지난 몇 년간 우리들이 간절히 기다려왔던 설렘일 것이다.

重新 在舞台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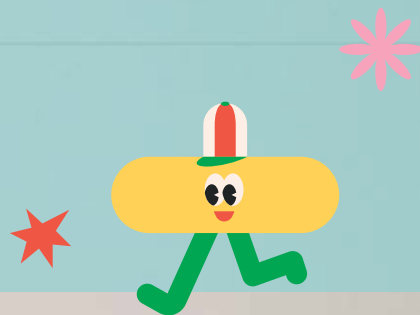
在过去的三年里，网上举办的口语大赛经历了一次巨大的改变，从今年开始重新回归现场。在春季的第3届口语大赛中，经过激烈的预选赛，共有24支队伍成功晋级。而在秋季的第4届口语大赛中，19支队伍通过丰富多彩的主题，如韩国生活、文化、诗歌、童话随笔等，展示了令人瞩目的韩语实力。

今年，来自中国、日本、印度尼西亚、俄罗斯、越南、乌兹别克斯坦等多个国家的留学生参与了比赛。通过激动人心的演讲比赛，不仅展现了学生们扎实的韩语水平，也让观众深入了解各国文化。特别引人注目的是，今年许多留学生分享了他们在韩国生活中经历的各种故事，通过这些故事形成了只有留学生才能理解的共鸣，使比赛成为一个相互支持，更深层次理解的意义非凡的时刻。

由于比赛舞台上的面对面交流，使得绝大多数学生都感到紧张。这种紧张感或许来源于过去几年受制于新冠肺炎，缺少与人面对面对交流的机会。因此，有的学生在握着麦克风时手不免发抖，或者在关键时刻突然遗忘发表内容而感到惊慌失措。然而，不论是谁先发生这样的情况，观众们都以热烈的掌声鼓励紧张的同伴，使今年的演讲比赛成为比以往任何时候都更加温馨场合。

随着舞台的幕布再次拉开，演讲者们或许会因明年的比赛而紧张。然而，这种紧张和激动显然是我们过去几年翘首以待的激动。在明年的演讲大赛上，演讲者们将欣喜地看着坐满观众席的学生们，这将是一场令人期待的盛况。

유학생 한국 사진전 留学生韩国摄影展



우송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은 유학생들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즐거운 유학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2023년 제2회, 제3회 유학생 한국 사진전을 5월 22일~24일, 11월 28일~30일에 각각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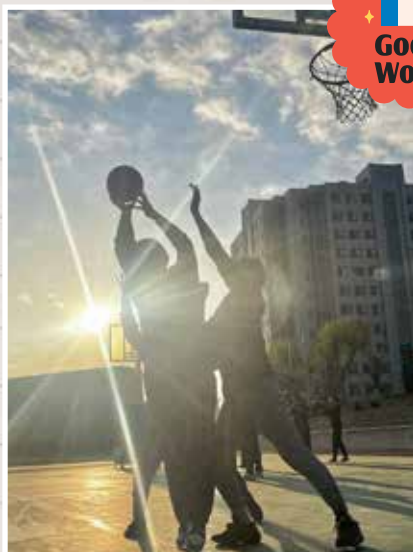
제2회 사진전의 주제는 ‘한국의 봄, 청춘, 좋아하는 장소 및 사람’으로 총 65점이 출품되었으며, 미디어영상학과 양흥후(WANG XINYU) 학생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그 외에 최우수상 2명(Cirstea Sarah, Mai Thi Hoang Y), 우수상 3명(LI LIANGZIHAN, SUN YINGQIAO, ZHENG XINXING), 장려상 5명(LENNITA, HA HOANG HAI, ZUO ZIXUAN, DUAN XINRUI, Maharani Angelica Bung), 특별상 1명(LI ZHAO) 등 총 12명의 학생이 수상하였으며, 제3회 사진전에서는 ‘인물’을 주제로 유학생들이 직접 찍은 자화상, 나의 가족, 내가 좋아하는 사람 등 총 56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3차에 걸친 공정한 심사를 거쳐 테크노미디어융합학부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아나스타샤(Svinarenko Anastasiia) 학생이 뛰어난 예술성과 독창성으로 대상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 최우수상 2명(TRINH THANH DIEN, GONG JINGHAO), 우수상 3명(Matkosimov Oybek, CHEN JINXI, XIA ZIRAN), 장려상 5명(Maharani Angelica Bunga, LIU SHUANG, GAO SUJING, YANG LIU, YAOXIANGYU) 총 11명의 학생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2023년 2회에 걸친 사진전은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우송대 재학생과 교직원들의 관람이 있었으며 평소 우리들이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유학생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为了激发留学生对韩国语和韩国文化的浓厚兴趣，同时帮助他们充实而愉快地度过留学时光，又松大学韩国语教育院于5月22日至24日，11月28日至30日分别成功举办了第2届和第3届留学生韩国摄影展。

第二届摄影展以‘韩国的春天，青春，喜欢的场所及人’为主题，汇聚了65件精彩的摄影作品。其中，媒体影像系学生王鑫宇(WANGXINYU)脱颖而出，荣获大奖。此外，最优秀奖获得者包括两名得奖者(Cirstea Sarah, Mai Thi Hoang Y)，三名优秀奖得主(LI LIANG ZIHAN, SUN YINGQIAO, ZHENG XINXING)，以及五名鼓励奖获得者(LENNITA, HA HOANG HAI, ZUO ZIXUAN, DUAN XINRUI, Maharani Angelica Bung)和一名特别奖得主(LI ZHAO)，共计12名留学生积极参与并获奖。在第三届摄影展上，以‘人物’为主题，共展出了留学生亲自拍摄的自画像，我的家人，我喜欢的人等56幅作品。通过三轮公正的评审，技术媒体融合系全球媒体影像系学生阿纳斯塔西亚(Svinarenko Anastasiia)凭借卓越的艺术性和独创性再次获得大奖。此外，最优秀奖得主包括两名(TRINH THANH DIEN, GONG JINGHAO)，三名优秀奖得主(Matkosimov Oybek, CHEN JINXI, XIA ZIRAN)，以及五名鼓励奖得主(Maharani Angelica Bunga, LIU SHUANG, GAO SUJING, YANG LIU, YAOXIANGYU)，共计11名学生幸运地分享了获奖的喜悦。

这两届摄影展于2023年举行，不仅吸引了众多留学生的积极参与，还吸引了又松大学在校生和教职员工的密切关注，为留学生提供了一个独特的机会，通过视觉艺术来感受平时无法体验的精彩瞬间。



YES!

Deriabina lana '25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경희대학교, 연합뉴스 공동 주최) 3위 수상(한국 국제교류재단상)

Deriabina lana won 3rd place in the '25th World Korean Speaking Contest for Foreigners' (co-hosted by Kyung Hee University and Yonhap News Agency)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Exchangers Award)



기념 촬영하는 '제25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가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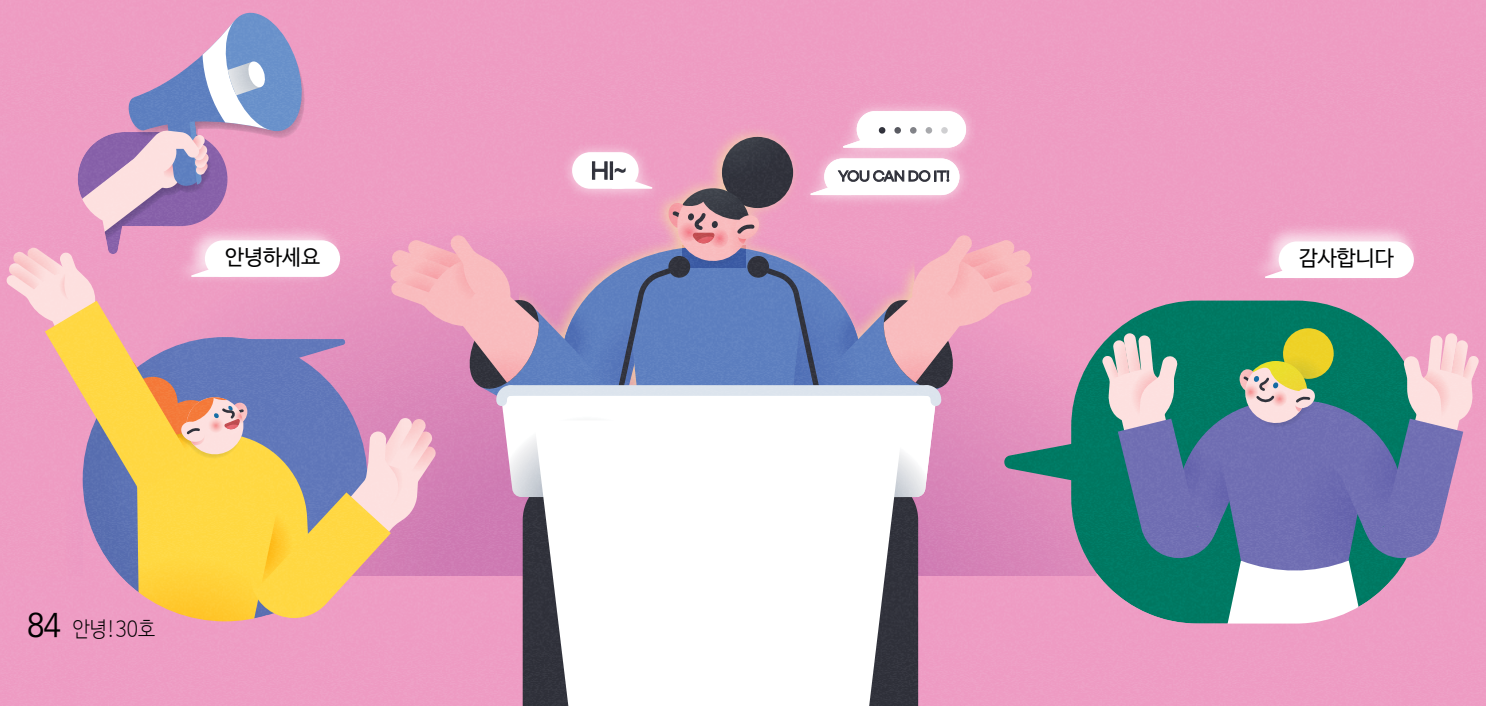
Participants of the '25th World Korean Speaking Contest for Foreigners' taking a commemorative photo

10월 19일 경희대학교와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한 '제25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SolBridge 국제대학 4학년 Deriabina lana(러시아)가 'AI가 전달할 수 없는 한국어의 개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3위에 해당하는 한국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세종대왕 탄신 600주년을 기념해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올해 25회를 맞아 36개국 1천23명이 예선에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lana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한글이라고는 하나도 몰랐던 자신이 파파고 번역기 덕분에 쉽게 한국인들과 소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어를 더 공부하고 보니 무분별한 번역기 앱을 사용한 과거 자신의 채팅 내용에 창피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한국 시와 같은 고급한국어를 번역기가 제대로 번역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더욱 그 한계를 느꼈다고 한다. 이제야 자신은 비로소 한국어의 참맛을 느껴가고 있으며 한국어를 공부하는 많은 외국인들도 파파고 앱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신처럼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한국어의 참맛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심회를 발표하여 심사위원들과 청중의 열렬한 반응을 얻어내었다. 이러한 발표의 결과로 Deriabina lana는 한국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상과 상금 80만원을 수여하는 영예를 누렸다.

On October 19, Deriabina lana (Russia), a junior at SolBridge International University, won third place at the 25th World Korean Speaking Contest, co-hosted by Kyung Hee University and Yonhap News Agency, for her presentation, "Individuality of Korean Language that AI Cannot Convey," which earned her the Chairman's Award from th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Exchange. The competition was launched in 1998 to commemorate the 600th anniversary of King Sejong's death, and this year's 25th edition attracted 1023 participants from 36 countries to compete in the preliminary round.

lana, who didn't know a word of Hangul before coming to Korea, thought she could easily communicate with Koreans thanks to Papago Translator, but as she studied the language more, she became embarrassed by her past chats with reckless translator apps. She also realized the limitations of the translator when she couldn't translate advanced Korean, such as Korean poetry. She presented her pitch to the judges and the audience, saying that she was only now realizing the true flavor of Korean, and that she hoped that many foreigners studying Korean could experience the creative and beautiful Korean language like she did, rather than relying on the Papago app. As a result of her presentation, Deriabina lana was honored with the Chairman's Award of th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Exchange and a cash prize of 800,000 won.



16회 솔브릿지 한국어 UCC 영상제

16th SolBridge Korean UCC Video Competition



12월 5일 오후 4시 우송대학교 솔브릿지에서 '16회 솔브릿지 한국어 UCC 영상제'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190개 팀 26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본선에서는 45개 팀이 경합하였다. 이 대회에서 Kulikova Xeniya팀, Aisenova Runa팀, Dagbaeva Iuliia, Ryuto Gabriella Valerie팀이 공동 대상을 차지하였다.

On December 5th, at 4:00 PM, the 16th SolBridge Korean UCC Video Competition took place at Woosong University's SolBridge campus. A total of 260 students from 190 teams participated in this event, with 45 teams competing in the finals. Kulikova Xeniya's team, Aisenova Runa's team, Dagbaeva Iuliia, and Ryuto Gabriella Valerie's team jointly claimed the grand prize in this competition.

5회, 6회 솔브릿지 한국어 말하기 대회 5th, 6th SolBridge Korean Speech Contest



6월 1일 우송대학교 솔브릿지에서 '5회 솔브릿지 한국어 말하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255여 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본선에서는 44개 팀이 경합하였다. 이 대회에서 Deriabina Iana, Hopp Hanne, Bernard Clemence Marie Anne, Dandarova Zinaida가 공동 대상을 차지하였다. 12월 21일 우송대학교 솔브릿지에서 '6회 솔브릿지 한국어 말하기 경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12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본선에서는 31개 팀이 경합하였다. 이 대회에서 Dandarova Zinaida가 대상을 차지하였다.

"The 5th SolBridge Korean Speech Contest" was held on June 1st at Woosong University's Solbridge campus. In this contest, there were 255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preliminary round, and 44 teams were selected to compete in the finals. A total of 255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event, with 44 teams competing in the finals. Deriabina Iana, Hopp Hanne, Bernard Clemence Marie Anne, and Dandarova Zinaida jointly won the grand prize in this competition.

"The 6th SolBridge Korean Speech Contest" was held at SolBridge International School of Business, Woosong University. Against the 120 participants, 31 students were selected for the final. The student Dandarova Zinaida won the grand prize in the competition.



우송한국어교육원 연혁 및 역대 시상내역 안녕 출간 기록

〈우송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연혁〉

2024. 01. 김홍기 원장 취임
2021. 09. 성원경 원장 취임
2019. 04. 박승익 원장 취임
2018. 05. 노영환 원장 취임
2017. 10. 이달영 원장 취임
2015. 12. 유학생 잡지 '안녕' 10주년 특집 제 22호 발간
2013. 09. 한국어교재 '와우한국어1-2' 출판
2013. 08. 한국어교재 '와우한국어1-1' 출판
2013. 02. 토픽교재 'TOPIK 어휘·문법다지기' 출판
2010. 06. 제 1기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운영
2010. 04. 공자아카데미 한국어 위탁교육
2009. 07. 충남기계공업고 북방 교포자녀 한국어 위탁교육
2008. 09. 이근태 원장 취임
2007. 10. 교육부 공모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센터' 지정
2007. 09. 제1회 외국인유학생 한가위 큰잔치 개최
2006. 07. 라오스국립대 교수진 한국어 특별교육과정 개설
2006. 04. 유학생 잡지 '안녕' 제 1호 발간
2006. 03. 한국학 및 예절교육 실시
2005. 09. 최학 원장 취임
2005. 08. 일본 자매대학 한국문화체험단 한국어 연수과정 개설
2005. 04. 제1회 우송 외국인 한국어말하기대회 개최
2005. 03. 정상직 원장 취임
2003. 03. 외국인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시작

〈우송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수상내역〉

- 2023.10_ 제 25회 경희대학교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3위 수상)
작품명: 「AI가 전달할 수 없는 한국어의 개성」
참가자: 데리바비나 아나(Deriabina lana)
- 2018.10_ 제 17회 고려대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 (우수상)
작품명: 「너를 바꿔 주겠어」 / 참가자: 카몰라렌 외
- 2017.05_ 제 20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대상 수상)
작품명: 「화난하고 역동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대한민국」
참가자: 쇼쿠루크(Jobborov Shokhrukh)
- 2016.11_ 제 15회 고려대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 (연출상)
작품명: 「학교전설」 / 참가자: 이지작진
- 2016.10_ 제 12회 한남대 외국인 말하기, '이영' 글짓기 대회 글짓기 개인 부문 (김현전상) 수상,
아지작진 말하기 (한글상) 수상
작품명: 「소통」 / 참가자: 진사은
작품명: 「내 인생의 시험과 KPOP」 / 참가자: 이지작진
- 2015.11_ 제 14회 고려대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 (대상), (연기상), (아이디어상)
작품명: 「원수」 / 참가자: 대사원 외 3인
- 2015.10_ 제 11회 한남대 외국인 말하기, 글짓기 대회 글짓기부문 단체상
(김현전상), 개인 부문 (가가상) 수상
작품명: 「얼굴」 / 참가자: 진사은
- 2014.11_ 제 13회 고려대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 (우수상)
작품명: 「사람은 누구나 외롭다」 / 참가자: 쇼쿠루크 외 3인
- 2014.10_ 제 10회 한남대 외국인 말하기, 글짓기 대회 글짓기부문 (김현전상)
작품명: 「미인, 아름다운 여인」 / 참가자: 장홍
- 2014.10_ 제 10회 한남대 외국인 말하기, 글짓기 대회 글짓기부문 (단체상)
한겨레상(한남대 대외협력처장상)
- 2013.11_ 제 12회 고려대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 (대상)
작품명: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 참가자: 오소 외 3인
- 2012.11_ 제 4회 ACE포럼 발표회 (최우수상)
작품명: 「우송과 함께 점프」 / 참가자: 황준 외 2인
- 2012.10_ 제 11회 고려대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 (전달상)
작품명: 「나에게 알려주고 싶은 한국」 / 참가자: 유진양 외 4인
- 2012.10_ 제 8회 한남대 외국인 말하기 대회 말하기부문 (한글상)
작품명: 「나의 약속 한글 지킴이」 / 참가자: 육해향
- 2012.06_ 제 15회 경희대 외국인 말하기 대회 (준우승)
작품명: 「찜질방에서의 추억」 / 참가자: 엘리자 영
- 2012.05_ 제 5회 안산시 외국인 유학생 민속 및 경기 경연대회 (장려상)
작품명: 「K-POP국」 / 참가자: 오소 외 5인
- 2011.11_ 제 1회 상생생명 중국인 말하기 대회 (금상)
작품명: 「백제문화 소개」 / 참가자: 황준
- 2011.11_ 제 7회 한남대 외국인 말하기 대회 (한글상)
작품명: 「노민호와 주리원의 칠월 칠석」 / 참가자: 누 외 3인
- 2011.09_ 제 1회 KBS 우리말 겨루기 한마당 (최우수상)
작품명: 「만남을 통한 문화 체험」 / 참가자: 이맘
- 2010.11_ 제 9회 고려대 전국 외국인 한국어 연극 한마당 (대상)
작품명: 「공취 말쑤」 / 참가자: 황리원 외 12인
- 2010.10_ 제 6회 한남대 전국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글짓기 대회 말하기 부문 (세종상)
작품명: 「고마워요 이모」 / 참가자: 이맘 외 4인
- 2010.05_ 제 14회 경희대 외국인 말하기 대회 (장려상)
작품명: 「마력비빔밥」 / 참가자: 오소
- 2009.11_ 제 1회 세종대 "관광한국어" 열린마당 (인기상)
작품명: 「아름다운 충청도 그리고 아름다운 절」 / 참가자: 당박진 외 3인
- 2009.05_ 제 1회 대전연극협회 외국인 연극연대대회 (대상)
작품명: 「흥부와 놀부」 / 참가자: 안톤 외 14인
- 2008.10_ 한밭대 전국 외국인 노래자랑 (금상)
- 2008.10_ 제 5회 한남대 전국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글짓기 대회 글짓기 (준우승 및 말하기 3위)
- 2007.10_ 제 6회 고려대 전국 외국인 한국어 연극 한마당 (장려상)
작품명: 「서동과 선화공주」 / 참가자: 와타나, 장영철 외 10인
- 2007.10_ 한남대 외국인 말하기·글짓기 대회 글짓기 부문 (대상)
- 2007.09_ 충남대 외국인 말하기 대회 (대상 외 입상)
- 2006.10_ 충남대 외국인 말하기 대회 (대상 외 입상)

< 又松大学韩国语教育院 沿革 >

2024. 01. 金弘基院长任职
2021. 09. 成媛京院长任职
2019. 04. 朴承翼院长任职
2018. 05. 卢泳焕 院长任职
2017. 10. 李达荣 院长任职
2015. 12. 留学生杂志《安宁》十周年特辑第22号发刊
2013. 09. 韩国语教材《哇呜 韩国语1-2》出版
2013. 08. 韩国语教材《哇呜 韩国语1-1》出版
2013. 02. TOPIK教材《强化TOPIK词汇语法篇》出版
2010. 06. 开设首期对外韩国语教师人才培养课程
2010. 04. 孔子学院韩语委托教育
2009. 07. 忠南机械工业高中北部同胞子女韩语委托教育
2008. 09. 李根泰 院长任职
2007. 10. 被教育部指定为“大田广域市教育厅多文化教育教育中心”
2007. 09. 成功举办首届留学生中秋庆典活动
2006. 07. 针对老挝国立大学教授的特别韩语教育课程
2006. 04. 留学生杂志《安宁》第1号发刊
2006. 03. 开设韩国学及礼仪教育
2005. 09. 崔焯院长任职
2005. 08. 针对日本友好院校韩国文化体验团的韩语研修课程
2005. 04. 首届又松外国人韩国语演讲大赛
2005. 03. 郑祥植院长任职
2003. 03. 针对外国留学生的韩国语教育正式开始

< 又松大学韩国语教育院获奖情况 >

- 2023.10_ 第25届庆熙大学世界外国人韩语演讲大赛 (第三名)
作品名称: 《AI无法传达的韩语个性》
参赛人员: Deriabina lana
- 2018.10_ 第17届高丽大学世界韩国语视频、荣获优秀奖
作品名称: 《我会帮你改变》 / 参赛人员: Kamola Narmuradova
- 2017.05_ 第20届庆熙大学外国人演讲大赛大奖
作品名称: 《再生的火热活力的大韩民国》 / 参赛人员: Jobborov Shokhrukh
- 2016.11_ 第15届高丽大学世界韩国语视频、获得了表演奖
作品名称: 《学校传说》 / 参赛人员: Azizakhon Anorboeva
- 2016.10_ 第12届韩南大学外国人演讲、写作大赛中, 李莹在演讲领域荣获“集贤殿奖”,
Azizakhon在写作领域荣获“韩文奖”
作品名称: 《沟通》 / 参赛人员: 李莹
作品名称: 《我人生的考验与K-POP》 / 参赛人员: Azizakhon Anorboeva
- 2015.11_ 第14届高丽大学世界韩国语视频大赛荣获大奖、人气奖和创意奖
作品名称: 《我的敌人》 / 参赛人员: 戴思远外3人
- 2015.10_ 第11届韩南大学外国人演讲写作大赛荣获团体“集贤殿奖”,
个人荣获“韩语学堂院长奖”
作品名称: 《脸》 / 参赛人员: 陈思韵
- 2014.11_ 第13届高丽大学世界韩国语视频大赛荣获优秀奖
作品名称: 《无人不孤单》 / 参赛人员: Shokhrukh外3人
- 2014.10_ 第10届韩南大学外国人演讲写作大赛荣获写作部分“集贤殿奖”
作品名称: 《美人, 漂亮的恋人》 / 参赛人员: 张鑫
- 2014.10_ 第10届韩南大学外国人演讲写作大赛荣获写作部分团体奖—
“韩语学堂院长奖”
- 2013.11_ 第12届高丽大学世界韩国语视频大赛荣获大奖
作品名称: 《给我朋友的一封信》 / 参赛人员: 吴霄外3人
- 2012.11_ 第四届ACE论坛荣获发表部分最优秀奖
作品名称: 《与又松一起成长》 / 参赛人员: 杭俊外3人
- 2012.10_ 第11届高丽大学世界韩国语视频大赛荣获传递奖
作品名称: 《我眼中的韩国》 / 参赛人员: 刘珍阳外4人
- 2012.10_ 第8届韩南大学外国人演讲写作大赛荣获写作部分韩字奖
作品名称: 《韩字我来坚守》 / 参赛人员: 陆海香
- 2012.06_ 第15届庆熙大学外国人演讲大赛第二名
作品名称: 《汗蒸房的记忆》 / 参赛人员: Eliza Young
- 2012.05_ 第5届安山市外国人留学生民俗演讲大赛荣获鼓励奖
作品名称: 《K-POP王国》 / 参赛人员: 吴霄外5人
- 2011.11_ 首届三星生命中国人演讲大赛荣获金奖
作品名称: 《介绍百济文化》 / 参赛人员: 杭俊
- 2011.11_ 第7届韩南大学外国人演讲写作大赛荣获写作部分韩字奖
作品名称: 《七夕》 / 参赛人员: BUTNEAN JIRARAT外5人
- 2011.09_ 首届KBS韩语标准化庆典活动最优秀奖
作品名称: 《亲临文化体验现场》 / 参赛人员: Imam
- 2010.11_ 第9届高丽大学世界韩国语视频大赛荣获大奖
作品名称: 《分享》 / 参赛人员: 黄丽媛外12人
- 2010.10_ 第7届韩南大学外国人演讲写作大赛荣获演讲部分世宗奖
作品名称: 《阿姨, 谢谢您》 / 参赛人员: Imam外4人
- 2010.05_ 第14届庆熙大学外国人演讲大赛荣获鼓励奖
作品名称: 《魔力拌饭》 / 参赛人员: 吴霄
- 2009.11_ 首届世宗大学旅游韩国语大赛荣获人气奖
作品名称: 《阿姨, 谢谢您》 / 参赛人员: Imam外4人
作品名称: 《美丽的忠清道和美丽的寺庙》 / 参赛人员: 唐博尘外3人
- 2009.05_ 首届大田演剧协会外国人演剧大赛荣获大奖
作品名称: 《兴夫与农夫》 / 参赛人员: Anton外14人
- 2008.10_ 韩田大学全国外国人歌唱大赛荣获金奖
- 2008.10_ 第5届韩南大学外国人演讲写作大赛荣获写作部分荣获第二名,
演讲部分荣获第三名
- 2007.10_ 第6届高丽大学全国外国人韩语演剧大赛荣获鼓励奖
作品名称: 《王子与公主》 / 参赛人员: Watana, 张研晴外10人
- 2007.10_ 第5届韩南大学外国人演讲写作大赛荣获写作部分荣获第一名
- 2007.09_ 忠南大学外国人演讲大赛荣获大奖
- 2006.10_ 忠南大学外国人演讲大赛荣获大奖



WKLI 한국어교육원

우송이 말하면 세계가 듣는다

- ▶ 100% 교수 전담제
- ▶ 1:1 상담(학업, 생활) 시스템
- ▶ 매 학기 한국 문화체험 진행
- ▶ 한국어능력 시험 대비반 개설
- ▶ 교내외 한국어 대회 집중 지도
- ▶ 외국인 유학생 잡지 '안녕' 연 1회 발간
- ▶ 여름, 겨울 한국문화캠프 운영



WKLI Woosong Korean Language Institute

Woosong Speaks, the World Listens

- ▶ 100% Professor led system
- ▶ 1:1 Consultation (study, living) system
- ▶ TOPIK preparation classes
- ▶ Korean cultural experience every quarter
- ▶ Devoted coaching programs for intramural and extramural Korean speech contests
- ▶ Foreign students' magazine, "An-Nyeong" published once a year
- ▶ Summer and Winter Korean Cultural Camps



우송이
말하면
세계가
듣는다

Woosong Korean Language Institute



- ▶ 서울역에서 KTX로 대전역까지 50분!
- ▶ 대전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 ▶ 고속터미널에서 버스로 5분 거리
- ▶ 지하철 대동(우송대)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

WKLI

우송한국어교육원
34606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자양동)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도서관 704호
<http://wkli.kr>

우송이
말하면
세계가
듣는다

우송대학교 한국어교육원



WU

우송대학교 한국어교육원

Woosong Speaks,
the World Listens

Woosong Korean Language Institute



Woosong University is conveniently located:

- ▶ 50 minutes by high-speed(KTX) train from Seoul to Daejeon!
- ▶ 10 minutes on foot from Daejeon Station
- ▶ 5 minutes by bus from Express Bus Terminal
- ▶ 7 minutes on foot from Daedong(Woosong) subway station

WKLI

Woosong Korean Language Institute
Woosong Library #704, Dong-Daejeon-ro 171,
Dong-gu, Daejeon, Korea / Zip Code : 34606
<http://wkli.kr>

Woosong
Speaks,
t h e
W o r l d
Listens

Woosong Korean Language Institute



WU

우송대학교

Woosong Korean Language Institute



WKLI 又松韩国语教育院

又松一语 举世聆听

- ▶ 100%教授全面负责制度
- ▶ 一对一商谈系统(学业、生活)
- ▶ 每学期安排韩国文化体验活动
- ▶ 开设韩国语能力考试预备班
- ▶ 针对校园内外韩语竞赛进行集中指导
- ▶ 每年发刊一期外国留学生杂志《你好》
- ▶ 开设韩国冬令营和夏令营文化体验



又松一语 举世聆听

Woosong Korean Language Institute



- ▶ 从首尔站乘KTX至大田站 50分钟!
- ▶ 从大田火车站步行 10分钟
- ▶ 从高速汽车站做公交 5分钟
- ▶ 从地铁站大洞(又松)站出口到学校步行 7分钟

WKLI

又松韩国语教育院
34606 大田广域市 东区 东大田路171(紫阳洞)
又松大学西校区 又松图书馆704号
<http://wkli.kr>

又松一语 举世聆听

又松韩国语教育院



WU

又松大学 又松韩国语教育院



WKLI 한국어교육원

우송이 말하면 세계가 듣는다

- ▶ 100% 교수 전담제
- ▶ 1:1 상담(학업, 생활) 시스템
- ▶ 매 학기 한국 문화체험 진행
- ▶ 한국어능력 시험 대비반 개설
- ▶ 교내외 한국어 대회 집중 지도
- ▶ 외국인 유학생 잡지 '안녕' 연 1회 발간
- ▶ 여름, 겨울 한국문화캠프 운영

WKLI Woosong Korean Language Institute

Woosong Speaks, the World Listens

- ▶ 100% Professor led system
- ▶ 1:1 Consultation (study, living) system
- ▶ TOPIK preparation classes
- ▶ Korean cultural experience every quarter
- ▶ Devoted coaching programs for intramural and extramural Korean speech contests
- ▶ Foreign students' magazine, "An-Nyeong" published once a year
- ▶ Summer and Winter Korean Cultural Camps

WKLI 又松韩国语教育院

又松一语 举世聆听

- ▶ 100%教授全面负责制度
- ▶ 一对一商谈系统(学业、生活)
- ▶ 每学期安排韩国文化体验活动
- ▶ 开设韩国语能力考试预备班
- ▶ 针对校园内外韩语竞赛进行集中指导
- ▶ 每年发刊一期外国留学生杂志《你好》
- ▶ 开设韩国冬令营和夏令营文化体验



